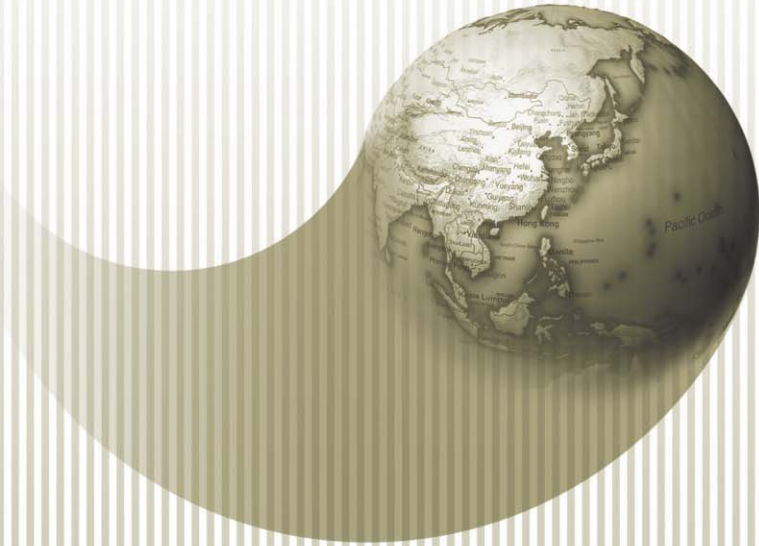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07-08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서 언

최근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고 ASEAN, 싱가포르, 칠레, EFTA, 미국 등과 이미 협상을 체결하였고, EU를 포함한 4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과는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현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 체결에 의한 대중국 관세인하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 FTA에 관한 양국간 공동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본원은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민경제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축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GE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 교역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함으로써 좀더 현실에 근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약 300여개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기업의 매입·매출 전략과 현지 경영활동의 주요 애로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중 FTA에 미칠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한·중 교역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기보다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명목관세율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의 수입액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과 가공무역 위주의 교역 특성을 감안한 실질관세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CGE 모델을 통한 기존 연구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는 다소 다른 결과입니다. 중국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는 FTA 체결로 관세인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부분이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중간재의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매입·매출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중 교역구조를 감안한 한·중 FTA 추진전략과 관세 인하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CGE 모델을 선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중 무역구조와 실질관세율에 대한 분석과 중국 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한·중 FTA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거시경제적 관점

에서 도출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한·중 FTA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세부적인 근거자료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본원 중국팀의 연구진과 건국대학교 조현준 교수를 포함한 원내의 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로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국민대 은중학 교수, 산업자원부의 김영만 사무관, 그리고 본원의 김준동 선임연구위원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기업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FTA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국문요약

###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중 교역구조

한·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대치보다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중 간 교역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용 수출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의 중간재가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자(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

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중국을 임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후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매입과 매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중 간 분업·경쟁 구조와 실질관세 비교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 간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실질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한·중 간 분업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고,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에 분업관계, 경쟁관계, 우위관계를 기준으로 한·중 FTA 추진시, 시장보호 예상 강도를 정리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류, 비금속광물, 기타 섬유제품에서 국내시장의 보호요구 강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무제품, 정밀계측기기, 조선,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업종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FTA시 경쟁·보완 패턴과 시장보호요구 예상 강도

분업관계	기 준		비교우위 국가	보호요구 예상강도	해당 업종
	경쟁관계	우위관계			
산업내 무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목재 및 종이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비철금속,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 기타공산품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화학섬유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일방적 무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철강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대	고무, 정밀계측기기, 조선
	중국		대	수산물, 의류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기타운송장비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대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중국	대	비금속광물, 기타섬유제품		

자료: 필자 작성.

둘째,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간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중국(9%)이 한국(6.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한국(4.62%)이 중국(4.4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 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2.7%)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무역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의 수출 후에 관세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한 업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편직물, 의류는 물론 가죽 및 모피, 화학섬유, 합성수지, 무기화학, 유기화학, 화장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Matrix

		한국의 관세 <sup>2)</sup>		
		10% 이상	5% 이상 10% 미만	5% 미만
중국의 관세 <sup>1)</sup>	10% 이상	-	완성차	-
	5% 이상 10% 미만	의류	자동차부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
	5% 미만	편직물	섬유직물, 화학섬유, 기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비금속광물, 정밀광학계측기기, 일반기계, 화장품, 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기타화학제품, 기타공산품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철강 일차재료, 스테인리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 합금강 및 봉, 석유제품 및 코크스,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전자제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주: 1)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2)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3) 음영부분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업종임.

셋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는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현재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한·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명목, 대한국 가중 평균,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의류, 가전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완성차, 자동차부품, 의류, 기타 섬유제품, 가전기기, 고무,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 업종에서 가격효과와 전환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품

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품목은 중국의 무역 방식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중에서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에서는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업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그동안 중국의 고관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품군은 대체로 내구소비재류가 이에 속하며 중국이 가장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가전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고관세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활발하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이미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일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

한·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 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288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무관세의 실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인력이동 제한 완화, 중국의 비합리적인 상관행의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 중에서 통관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중국 법인의 원부자재 수입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의 관세평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 추진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품분과 이외에 비관세조치 협상 분과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비관세조치와 투자 관련조치는 각국의 각종 법규의 개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협상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각종 비관세조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 사례, 투자 장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와 사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 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전체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중 FTA로 양국간에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간재보다는 자동차, 의류 등 최종재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서 언 .....	5
국문요약 .....	9
<b>제1장 서 론 .....</b>	<b>27</b>
1. 연구 배경과 목적 .....	28
2. 연구 방법과 범위 .....	29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31
<b>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b>	<b>33</b>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34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34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35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	37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	37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	41
<b>제3장 한·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경쟁관계 분석 .....</b>	<b>51</b>
1. 한·중 교역의 특징 .....	52
가. 한·중 교역의 확대과정 .....	52

나. 교역구조의 변화 .....	55
2. 한·중 간 분업구조 분석 .....	65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	65
나. 무역결합도 분석 .....	75
3. 한·중 간 경쟁관계 분석 .....	78
가. 무역특화지수 .....	78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	88
다. 수출유사성지수 .....	94
4. 소결: 한·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	99
가. 한·중 교역의 특수성 .....	99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	100

##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

1. 한·중 간 관세율 비교 .....	108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	108
나. 관세율별 구성 .....	110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	111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	112
가. 자동차 .....	112
나. 철강 .....	115
다. 섬유 및 의류 .....	119
라. 전기전자 .....	122
마. 기계 .....	125
바. 석유화학 .....	130
사. 기타 제조업 .....	133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	135

<b>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전략 분석</b>	141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142
가. 대중국 투자 현황	142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145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분석	147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분석	147
나. 업종별 매입·매출 구조 분석	152
3.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168
가. 매입·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168
나. 업종별 매입·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173
4. 소결: 매입·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182
가. 매입·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182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185

<b>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b>	191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193
가. 수입제한 조치	194
나. 주요 기술장벽	198
다. 환경규제 조치	203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205
마. 통관 관련규제	207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210
사. 기타 규제	213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214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214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219

<b>제7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b> .....	225
1. 한·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	226
2.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228
가. 한·중 FTA 추진방향 .....	228
나. 한·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	231
다.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	233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	236
 <b>참고문헌</b> .....	 239
 <b>부 록</b> .....	 243
 <b>Executive Summary</b> .....	 265



## 표 차례

표 2-1.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GDP 증대 효과	34
표 2-2.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수출입 증대 효과	35
표 2-3. 중국 FTA 추진 현황	39
표 2-4. 중·ASEAN FTA 감세 일정표(정상품목)	43
표 2-5. 중·ASEAN 관세삭감 일정(민감품목)	43
표 2-6. 중·칠레 FTA 협상 중, 중국제품의 관세삭감 계획	44
표 2-7. 중국의 1단계 수입관세 양허표	46
표 2-8. 파키스탄의 1단계 수입관세 양허표	46
표 2-9. 중국 기 체결 지역 FTA의 관세삭감 모델 비교	47
표 2-10. 중·칠레 FTA의 중국측 과도기 제품 구성	49
표 3-1.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56
표 3-2.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세계 및 대중국 수출·수입구조	58
표 3-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59
표 3-4.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2006년 기준)	60
표 3-5.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62
표 3-6.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64
표 3-7.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 지수 추이	68
표 3-8. 기술수준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71
표 3-9. 가공단계별 중국 내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72
표 3-10. 한·중 간 무역 패턴 분류	73
표 3-11. 업종별·무역방식별 산업내무역지수	73

표 3-12. 산업 분류별 무역결합표 .....	76
표 3-13.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	80
표 3-14. 중국의 업종별 ·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	82
표 3-15.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분포 .....	85
표 3-16. 업종별 · 가공단계별 한 · 중 간 교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TSI .....	86
표 3-17. 한국과 중국의 RCA 지수 .....	90
표 3-18. 한국과 중국의 MCA 지수 .....	93
표 3-19. 한 · 중 간 수출유사성지수 분석결과(1) .....	96
표 3-20. 한 · 중 간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결과(2) .....	98
표 3-21. FTA시 경쟁 · 보완 패턴과 시장보호요구 예상 강도 .....	103
표 3-22. 한 · 중 간 업종별 경쟁 및 보완 관련지수 .....	104
표 4-1. 한 · 중 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09
표 4-2. 중국과 한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	110
표 4-3.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2
표 4-4.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3
표 4-5.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4
표 4-6. 한국과 중국의 철강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5
표 4-7.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철강제품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6
표 4-8. 중국의 대한국 철강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	117
표 4-9. 한국과 중국의 비철금속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8
표 4-10.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19
표 4-11. 한국과 중국의 섬유 · 의류 업종의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20
표 4-12. 중국의 대한국 섬유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	121
표 4-13. 중국과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	122
표 4-14. 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 업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23
표 4-15. 중국의 대한국 전기전자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	125

표 4-16. 기계산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	126
표 4-17. 한국과 중국의 기계업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27
표 4-18. 중국의 대한국 기계산업의 무역방식별 수입 현황 .....	128
표 4-19. 중국의 기계산업 업종별 수입구조와 실질관세율 추정(2006년 기준) .....	129
표 4-20. 중국과 한국 석유화학 업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	130
표 4-21.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 업종의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31
표 4-22.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업종별 수입구조와 실질관세율 추정(2006년 기준) .....	132
표 4-23. 중국과 한국의 기타 제조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	133
표 4-24. 한국의 기타 제조업 관세율(2006년 기준) .....	134
표 4-25. 중국의 기타 제조업 관세율(2006년 기준) .....	134
표 4-26. 한국과 중국의 관세 Matrix 1(명목관세) .....	135
표 4-27. 한국과 중국의 관세 매트릭스(가중평균 관세) .....	136
표 4-28.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매트릭스 .....	137
표 4-29.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	138
표 5-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	145
표 5-2.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	146
표 5-3. 대중국 투자기업의 매입·매출 구조에 관한 연구결과 .....	147
표 5-4. 조사 대상기업 분포 .....	148
표 5-5.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53
표 5-6. 주요 업종별 매입·매출 구조 I (2005년 기준) .....	154
표 5-7. 주요 업종별 매입·매출 구성 II .....	155
표 5-8. 한·중 FTA 이후 매입 전략의 변화 가능성 .....	170
표 5-9. 한·중 FTA 이후 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	171
표 5-10. 한·중 FTA 이후 생산라인의 조정 가능성 .....	173
표 5-11. 대중 투자기업의 매입·매출 패턴 .....	182
표 5-12. 대중 투자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계수 .....	186

표 5-13.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추정 .....	187
표 5-14. 업종별 대중국 투자의 평균 수출입 유발계수 .....	188
표 6-1.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	193
표 6-2. 중국의 관세쿼터(tariff quota) 품목 .....	197
표 6-3. 자동차 관련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 현황 .....	199
표 6-4.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	208
표 6-5. 중국의 주요 수입규제 수단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 .....	216
표 6-6. 주요 수입규제 수단별 · 업종별 규제대상 품목수 .....	217
표 6-7. 수입관련 제(諸)세금 및 수입부담률 추정 .....	218
표 6-8. 주요 무역관련 애로사항 발생 현황과 심각성 .....	220
표 6-9. 업종별 주요 무역 애로발생 요인 .....	221
표 6-10.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발생 빈도 .....	222
표 7-1. 한·중 FTA 이후 대한민국 수출의 증가 가능성 .....	234
표 7-2. 한·중 FTA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	237
표 7-3. 한·중 FTA를 통한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	238



## 그림 차례

그림 2-1. 중·칠레 FTA의 관세삭감 계획 .....	48
그림 3-1. 한·중 무역관계의 발전과정 .....	54
그림 3-2. 제조업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2006년) .....	69
그림 3-3. 한·중 간 경쟁·보완 관계 구조 .....	102
그림 5-1. 중국 진출 제조업체의 매입구조 .....	149
그림 5-2. 중국 진출 제조업체의 매출구조 .....	150
그림 5-3. 중간재 제조업체의 매입·매출 구조 .....	151
그림 5-4. 최종재 제조업체의 매입·매출 구조 .....	152
그림 5-5. 자동차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56
그림 5-6. 완성차 업체의 부품 조달구조 .....	157
그림 5-7. 자동차부품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58
그림 5-8. 동반진출 부품업체의 매입과 매출 구조 .....	159
그림 5-9. 전기전자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0
그림 5-10. 전자부품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1
그림 5-11. 기계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2
그림 5-12. 화학관련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3
그림 5-13. 의류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5
그림 5-14. 철강·금속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6
그림 5-15. 기타 제조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	167
그림 5-16. 한·중 FTA가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출에 미칠 영향 .....	172
그림 5-17. 자동차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74

그림 5-18. 전기전자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76
그림 5-19. 기계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77
그림 5-20. 섬유/의류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78
그림 5-21. 철강·금속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79
그림 5-22. 화학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80
그림 5-23. 기타 제조업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181
그림 7-1.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민국 관세구조 ……	232
그림 7-2.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자계기업이 대한민국 수출에 미칠 영향 ……	235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1. 연구 배경과 목적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등 한·중 FTA 협상개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 의존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쪽에서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FTA 체결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잠재적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더욱이 중국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중 FTA의 신중한 추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이외에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한·중 FTA의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FTA라는 틀이 없이도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그 내재적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연구와 광범위한 국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대한 유리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진 후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이 농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대치보다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특히 대중 수출의 80%가 중간재이고, 55%가 중국 내에서 가공무역 후 재수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의해 유발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FTA 체결에 앞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FTA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 간 무역구조 및 결정요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중 FTA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전략 중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국과의 FTA 협정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중 간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중 간 교역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결정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중 간 교역,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가공단계로 구분하고, 중국 내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자를 구분함으로써 어떠한 목적에서 한국으로 대중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산업내무역지수(intra industry trade index),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등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여 한·중 간의 경쟁과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관세율 비교에 있어 명목관세율만을 비교하지 않고 한국의 대중국 교역 특성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섬유 의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금속 등 주요 업

중에서 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였다.

넷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의한 수출 및 수입유발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에 진출한 288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매출 전략, 한·중 FTA 이후 동 전략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FTA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FTA전략과 상품분야에서 관세인하 원칙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한·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 간 교역 특성을 업종별, 가공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업종별 및 가공단계별로 한·중 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쟁 및 보완관계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 무역결합도지수, 무역특화지수, 비교우위지수, 시장 비교우위지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관세율을 명목관세율,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관세율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주요 업종과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한 수출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계 기업의 중간재 조달구조와 제품판매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대해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사결과를 기초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중국 진출기업의 중간재 조달전략과 매출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동시에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국진출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 및 수입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조치의 주요 내용과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한·중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한·중 FTA 추진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상품 분야(특히 제조업에 국한하여)의 관세인하 추진 방향,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국내의 한·중 FTA 관련 연구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에는 임윤상(2002), 남영숙 외(2004), 신태용 외(2005),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 있다. 한·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기존 연구의 공통된 결과는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 한·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79.9% 수준으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최종재(특히 소비재)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수출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GE 분석 등을 통한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한·중 간의 무역구조와 실질관세율 등에 대한 구조 분석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중 간 교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중 FTA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한·중 FTA에 따른 무역효과 크기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한·중 FTA 효과 분석에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질관세율을 기초로 한 정량분석을 실시할 경우, 보다 현실에 근접한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중 FTA 추진에 대해 생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가져다 줄 소비자의 후생증대 측면은 고려하고 있지 못한 한계도 있다.

## 제2장

#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에는 남영숙 외(2004), 신태용 외(2005),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 있다. 한·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0.14~3.29%, 중국의 GDP는 0.04~1.50% 증대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양국의 GDP 증대 효과는 연구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는 CGE 분석에 사용된 산업 및 국가 분류와 시나리오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존 연구의 공통된 결과는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1.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GDP 증대 효과

(단위: %)

기존 연구	한국	중국
남영숙 외(2004)	0.14~2.30	0.07~0.78
신태용 외(2005)	0.18~1.08	0.04~0.18
Lee <i>et al.</i> (2005)	2.44~3.17	0.40~0.59
정인교(2006).	0.55~3.29	0.27~1.32

주: 각 기존 연구자료에서 정리.

남영숙 외(2004)의 연구에서 중국의 GDP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된 것은 중국의 데이터베이스가 1997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중국의 총교역에서 한

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비중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폭이 확대될수록 GDP 개선 정도가 중국에 비해 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고,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총수출대비 대한국 비중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중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예상하였다.

####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한편 기존 연구결과에서 수출입 효과에 대하여는 대부분 한·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연구에는 임윤상(2002), 남영숙 외(2004),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다.

표 2-2.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수출입 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기존 연구	한국의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입	무역수지
임윤상(2002)	1,740	1,220	520
남영숙 외(2004)	5,488~6,543	5,757~14,192	-269~-7,649
Lee <i>et al.</i> (2005)	13,998~14,501	14,220~14,546	-45~-222
정인교(2006)	32,620~33,319	7,583~9,279	25,037~24,041

주: 각 연구자료에서 정리.

남영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55억~65억 달러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중국 수입은 58억~142억 달러 증가함

으로써 대중국 무역수지가 3억~7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중 민간 FTA 공동연구 결과인 Lee *et al.*(2005)에 따르면 2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악화를 추산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 연구가 GTAP의 CGE 모델로 추산한 것과는 다르게 임운상(2002)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수입물량함수식 추정을 통해 산출한 가격탄력성과 각국의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시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동 연구의 결과 중국과의 FTA 체결시 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2006)는 240억~25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전망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 증대 효과의 추산 결과만을 살펴보면, 남영숙 외(2004)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52억 2,800만~61억 6,500만 달러,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5억 4,000만~36억 4,8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16억 3,300만~25억 9,7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Lee *et al.*(2005)에 따르면 제조업에서의 무역수지 증대 효과는 대중국 수출에서 138억~142억 달러, 대중국 수입에서 30억~31억 달러로 무역수지 증대 효과가 108억에서 최대 111억까지로 추산되었다. 정인교(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더욱 큰 무역수지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는 323억~327억 달러, 대중국 수입에서는 55억~56억까지로 나타나 무역수지 증대 효과가 268억~2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79.9% 수준으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최종재(특히 소비재) 비중은 3.3%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sup>1)</sup>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 내 가공

---

1) 본 보고서 제3장 2절 참고.

무역을 위한 수출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수출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GE 분석 등을 통한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 1) 중국의 FTA 현황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 무역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i) WTO에서보다 더 많은 특혜조치를 제공받고, (ii) 낮아진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비용이 낮아지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며, (iii)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원자재와 설비를 더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고, (iv) 중국의 고객들은 더 값싸고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ASEAN 10개국, 칠레 및 파키스탄과 FTA 협상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된 홍콩, 마카오를 합해 총 5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7개, 정부간 연구가 진행 중인 FTA는 3개이다. 공식협상 중인 주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GCC(걸프협력회의),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인도 등이다.

중·ASEAN FTA는 먼저 「상품무역협정」이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어 7,000여 가지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음 조치로서 2007년 1

월 1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ASEAN 10개국 경제부장이 중·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WTO 규정 내에서 건축, 환경, 교통, 스포츠,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26개 세부 부문에서 ASEAN 회원국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한편, ASEAN은 금융, 통신, 교육, 관광, 건축,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중·ASEAN 자유무역지대 「서비스무역협정」은 각기 자국의 법률 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sup>2)</sup>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하였으며, 뉴질랜드와는 2007년 12월 15차 협상을 진행하여 2008년 4월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중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MES를 인정하여 중국과의 FTA 협상에 조기에 착수하게 되었다.<sup>3)</sup>

중국의 지역무역협정은 크게 이웃경제와의 협정,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 공급이 가능한 원거리 국가들과의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간 및 원격 경제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중점은 이웃국가들에 있다. 특히 이장규 외(2006)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경제통합 속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3) 뉴질랜드는 2004년 4월, 호주는 2005년 4월에 각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표 2-3. 중국 FTA 추진 현황

연도	CEPA	ASEAN	칠레	파키스탄	한국	기타
2001		11월: 협상 개시				
2002	1월: 홍콩 CEPA 협상 개시	11월: 기본협정 체결				
2003	6월: 홍콩 10월: 마카오 CEPA I 체결					
2004	1월: 홍콩, 마카오 CEPA 발효	11월: 상품협상 체결	4월: 타당성 연구 개시	12월: 무역 특혜협정(PTA) 체결		6월: 남아공 협상 개시
	10월: 홍콩 CEPA II 체결		11월: 협상 개시			7월: GCC 기본협정 체결 12월: 뉴질랜드 협상 개시
2005	1월: 홍콩 CEPA II 발효	7월: 상품협상 발효	11월: 상품협상 체결	4월: 조기 자유화조치(EHP) 체결	3월: 민간공 동연구개시	4월: GCC 협상 개시
	10월: 홍콩 CEPA III 체결					5월: 호주 협상 개시 9월: GCC 3차 협상
2006	6월: 홍콩 CEPA IV 체결		7월1일: FTA 상품협정 발효	11월: FTA 협상 체결	12월: 민간공 동연구 완료	
2007	1월: 홍콩 CEPA IV 발효	1월: 서비스협정 체결	4월: 서비스 및 투자부문 FTA 2차 협상	7월 1일: FTA 협정 발효	1월: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3월: 아이슬란드 협상 개시
	6월: 홍콩 CEPA V 체결	7월: 서비스협정 발효				7월: 2차 산관학 공동연구
					11월: 3차 산관학 공동연구	11월: 호주 10차 협상 12월: 뉴질랜드 15차 협상

자료: 필자 작성.

## 2) 중국의 FTA 전략<sup>4)</sup>

### 가) 중국의 FTA 체결 동기

중국의 FTA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 FTA 체결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은 크게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의 FTA 추진 동기로는 △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등), △ 시장경제지위(MES) 승인 유도, △ 산업경쟁력 제고, △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 지역 리더십 강화, △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sup>5)</sup>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2005)<sup>6)</sup>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이며,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는 에너지·자원 확보, 시장 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4) 본 항은 이장규 외(2007)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음.

5) 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2005), 「“十一五” 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濟要參』, 北京, 第26期, pp. 2~9.

6) 于培偉(2005),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參』, 北京, 第37期, pp. 2~8.

## 나) 상품협상만을 포함한 FTA 체결 선호

중국의 기 체결 FTA인 중·ASEAN, 중-칠레 FTA에서 중국은 상품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은 향후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서비스나 투자 부문 등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다.

홍콩, 마카오 CEPA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서비스 개방을 허용하였으며, 2004년 7월에 중·ASEAN 상품분야 FTA가 체결된 후 2년 반이 경과한 2007년 1월에 중·ASEAN 서비스 FTA를 체결하였다. 서비스 개방폭의 정도는 WTO 가입 서비스 부문 양허안 → 중·ASEAN FTA 서비스협정 → 홍콩, 마카오 CEPA 서비스 협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8차까지 완료된 중·호주 FTA 협상에서 호주는 중국 측에 농업개방수준을 높일 것과 서비스, 투자 부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중 FTA 논의에서 중국은 낮은 수준의 FTA로 가지는 입장이지만,<sup>7)</sup> 한국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가면 피해가 심하고, 낮은 수준으로 가면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신중한 행보를 하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과 신중한 협상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FTA 협상 선례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 1) FTA별 관세삭감 Modality

7) 한·중 민간공동연구 및 중국 연구자의 견해를 반영한 것임.

중국은 기 체결 FTA인 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FTA 협정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15년 정도의 관세삭감 유예기간을 정했으며, 자국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를 고려하여 관세삭감 일반 규율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민감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하고 있다. 각 FTA별 상품협상에서의 관세삭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가) 중·ASEAN FTA의 관세삭감 Modality

2002년 중국과 ASEAN 간 체결한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에서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2010년까지 절대다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도록 하고 ASEAN의 4개 신규 가입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들은 2015년까지 경제발달 수준에 따라 다른 관세삭감 과도기간을 설정하였다.

중·ASEAN FTA 협정에 따르면 중·ASEAN 자유무역지구의 관세삭감은 조기자유화(EHP: Early Harvest Program)와 정상품목 및 민감품목의 3가지 분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HP는 중국이 ASEAN 측의 요구에 응하여 진행한 FTA 관련 특별조치로 2004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주로 농산품과 ‘특정제품’ 571개 관세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규정에 따르면 매년 관세삭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2003년 평균 최혜국세율이 14%, 2004년 평균세율은 6.4%, 2005년 평균세율은 1.96%, 2006년에는 영관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중·ASEAN 상품무역협정(货物贸易协议)」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정상제품은 전면적인 감세를 실시하였고, ASEAN 6개국과 신규 가입국 4개국을 구분하여 감세를 적용하는 모델을 채택하였다.

표 2-4. 중·ASEAN FTA 감세 일정표(정상품목)

	2005. 7. 1	2007. 7. 1	2010	2012	2015	2018
ASEAN 6개국	40% 제품 < 5%	60%제품 < 5% 이하	다수제품 관세철폐	모든제품 관세철폐		
신멤버 4개국			2009~2013년 국가별, 단계별로 5% 이하	다수제품 관세철폐	모든제품 관세철폐	

자료: 张琦 외 (2007.1.26.), 「如何对待敏感产业: 中国已签署自贸区协议对中日韩FTA的启示」, 国研报告.

또한 「상품무역협정(货物贸易协议)」에 따르면 중국과 ASEAN 6개국은 HS 6 단위 세목 400개에 대해 민감품목을 유지할 수 있고, 수입총액은 2001년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그 중 일반 민감품목은 2012년에 관세삭감이 20% 이하, 2018년에는 0~5% 수준까지 삭감되었다. 고도민감 리스트의 세목수량은 10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 종류의 제품은 2015년에 관세삭감을 50%로 하도록 하였다.

표 2-5. 중·ASEAN 관세삭감 일정(민감품목)

민감정도	국별	세목	2012	2015	2018	2020
일반	6개국	400개 세목, 2001년 수입총액의 10%를 초과 하지 않음	< 20%		0~5%	
	4개국	500개 세목을 초과하지 않음		< 20%		0~5%
고도	6개국	민감류 세목은 40% 혹은 100개 세목을 초과하지 않음		< 50%		
	4개국	민감류 세목은 40% 혹은 150개 세목을 초과하지 않음			< 50%	

자료: 张琦 외(2007. 1. 26), 「如何对待敏感产业: 中国已签署自贸区协议对中日韩FTA的启示」, 国研报告.

나) 중·칠레 FTA 협정에서의 관세삭감 Modality

중·칠레 FTA 협정에 따르면 2006년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관세 삭감을 시작하여 10년 후 양측은 97% 이상의 세목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중·칠레 FTA의 관세삭감 모델은 각각 정상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그 중 민감품목은 과도기 관세삭감과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외에 양측의 협상을 통해 모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삭감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

표 2-6. 중·칠레 FTA 협상 중, 중국제품의 관세삭감 계획

자유화 정도	8단위 세목	비중	중국수입액 (만 달러)	비중
즉각 자유화	2086	37.2%	333,832	90.9%
1년 과도기	1947	25.8%	17	0.005%
5년 과도기	973	12.9%	1,618	0.4%
10년 과도기	1610	21.3%	28,611	7.8%
예외	214	2.8%	3,065	0.8%
합계	7550	100%	367,204	100%

자료: 张琦 외(2007. 1. 26), 「如何对待敏感产业：中国已签署自贸区协议对中日韩FTA的启示」, 国研报告에서 인용.

정상제품군에서는 칠레의 경우 세목의 74%를 차지하는 제품(기계와 전기기구, 화공제품, 일부 방직품과 의복류 등)에 대해 협정발효 후 즉각 관세철폐를 실시하게 되며, 중국은 세목의 63%를 차지하고 수입액의 약 91%를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 협정발효 후 및 2년째까지 관세철폐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과도기제품은 중국 수입액의 8% 정도를 차지하는 민감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5~10년에 관세를 영관세로 하고, 양국은 각자 약세품목에 대하여 관세삭감 과도기를 두도록 하였다.

더불어 예외제품군을 두었는데, 중국 세목의 3% 이하, 수입액의 1% 이하 제품이 해당되며 원래 관세수준을 불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 다) 중·파키스탄 FTA 협정에서의 관세삭감 Modality

중·파키스탄 FTA 체결 이전 단계로 2006년 1월부터 EHP를 실시하여 중국은 HS 8단위 기준 769개 품목에 대해 파키스탄은 중국산 486개 품목에 대해 2년 내 3차례에 걸쳐 인하되며 2008년 1월 1일부터 모두 무관세로 조정되었다. 또한 EH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파키스탄산 1,671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관세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파키스탄은 중국산 575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 관세 우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평균 관세인하 폭은 27%에 달하고, 파키스탄은 22%에 달하였다.<sup>8)</sup>

중·파키스탄 FTA 협정에 따르면 중·파키스탄 양국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였다.<sup>9)</sup> 1단계에서는 협정 효력발생 후 5년 동안 세목 중 약 85%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며, 이 중 약 36%의 제품 관세는 3년 내에 무관세로 전환되며, 중국의 관세인하 품목은 주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파키스탄은 쇠고기, 양고기, 화공제품, 기계,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다.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5년 기한의 1단계와 기한과 내용 미정의 2단계를 설정하였으며, 1단계 내에서도 세부적인 관세삭감 유예방식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협정문 작성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 중신사(中新社, 2005. 12. 11), 「中国巴基斯坦明年启动降税计划 惠及三千余商品」.

9)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중·파키스탄 FTA 협정문 전문 및 관세양허목록 등을 얻을 수 있음. <http://www.commerce.gov.pk/PCFTA.asp>

표 2-7. 중국의 1단계 수입관세 양허표

범주	트랙	관세품목 개수	HS 8단위에서의 비중(%)
I	관세철폐(3년)	2,681	35.5
II	0~5%(5년)	2,604	34.5
III	관세양허율 50%까지(5년)	604	8
IV	관세양허율 20%까지(5년)	529	7
V	양허 없음	1,132	15

자료: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ex I.

표 2-8. 파키스탄의 1단계 수입관세 양허표

범주	트랙	관세품목 개수	HS 8단위에서의 비중(%)
I	관세철폐(3년)	2,423	35.6
II	0~5%(5년)	1,338	19.9
III	관세양허율 50%까지(5년)	157	2.0
IV	관세양허율 20%까지(5년)	1,768	26.1
V	양허 없음	1,025	15.0
VI	예외	92	1.4

자료: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ex I.

양측이 양허를 허용하지 않은 전체 세목 15%에 해당하는 품목은 고관세 민감품목에 해당하며, 협정 효력 발생 후 6년째부터 시작하는 2단계에서 양국은 지난 상황을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역상품 중 무관세 제품의 비율을 90% 이상(세목 개수와 무역액 비중 모두를 포함)으로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다.<sup>10)</sup> 중·파키스탄 FTA는 이전의 두 FTA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장기적

10) 신화망(2006. 11. 27), 中国和巴基斯坦签署自由贸易协定(중국과 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

인 관세삭감의 과도기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에 비하여, 미정의 2 단계를 설정하고 좀더 신속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민감품목 선정의 특징

중국의 기 체결 FTA 협정 내용으로 볼 때, 정상품목의 관세삭감 비중이 85%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감품목은 대부분 과도기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예외 품목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중국 기 체결 지역 FTA의 관세삭감 모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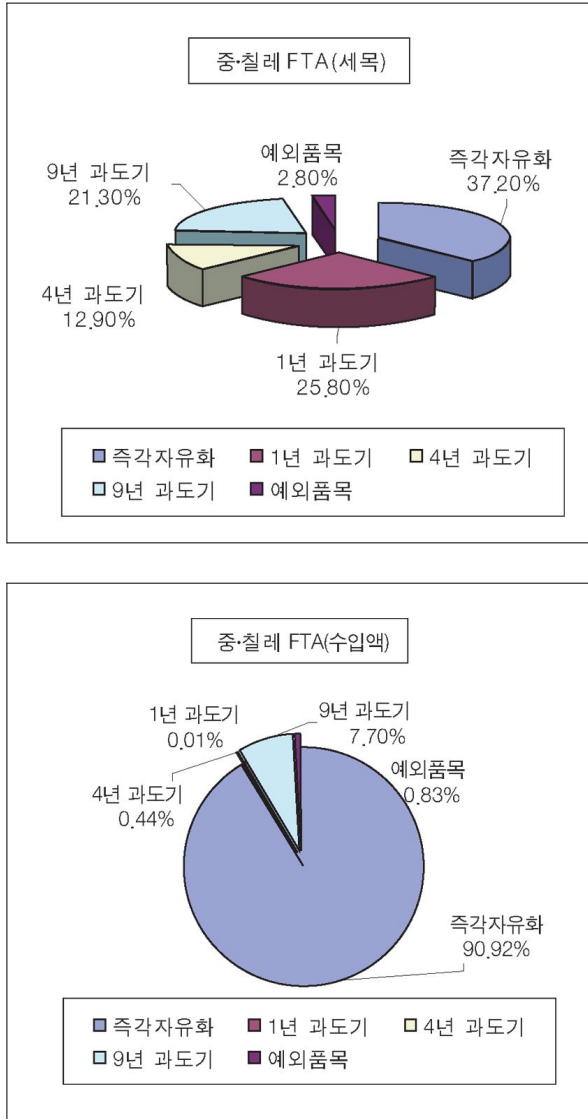
	조기자유화	정상품목	민감품목	
			과도기품목	예외품목
중·ASEAN FTA	유	90%	10%	극소, 연초류
중·칠레 FTA	무	90.90%	8.20%	0.80%
중·파키스탄 FTA	유	85%	미정	0%

자료: 张琦 외(2006)와 필자의 보충에 의해 작성.

민감제품에 대하여 중국과 ASEAN 6개국은 과도기를 최장 8년으로 하여 2010년까지로 하고, 관세는 2018년까지 0~5% 수준으로 삭감하도록 하였으며, 신멤버 4개국과는 과도기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그 중 보호정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더 긴 보호기를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농산품의 경우 절반 이상의 민감 농산품이 고도민감품목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과도기 설정 기간도 훨씬 길고, 최종 관세수준도 50% 이하 정도로 설정되었다.

중·칠레 FTA 협정 중, 대부분의 민감제품은 비교적 긴 9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4년과 9년의 과도기를 설정한 품목은 각각 세목총수의 12.9%와 21.3%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총액 중 각각 0.4%와 7.8%를 차지하였다.

그림 2-1. 중·칠레 FTA의 관세삭감 계획



자료: 张琦 외(2007. 1. 26), 「如何对待感产业:中国已签署自贸区协议对中日韩FTA的启示」, 国研报告中에서 인용.

중·칠레 FTA에서 중국측의 유예기간에 따른 제품구조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중·칠레 FTA의 중국측 과도기 제품 구성

	품목	1년 유예	5년 유예	10년 유예
HS 1~5	동물제품	0.0	20.7	3.5
HS 6~14	식물제품	0.1	2.1	22.4
HS 15	동·식물 유지	0.0	0.0	1.2
HS 16~24	식품·음료·담배	0.0	0.1	43.8
HS 25~27	광산업	//	0.0	0.0
HS 28~38	화학제품	0.0	14.8	24.7
HS 39~40	플라스틱 및 제품	25.1	0.0	0.3
HS 41~43	모피 및 제품	0.0	0.0	0.1
HS 44~46	목재	0.0	43.5	0.2
HS 47~49	제지품	//	//	0.0
HS 50~63	방직원료 및 제품	48.0	//	0.0
HS 64~67	신발·모자·우산	21.9	//	0.0
HS 68~70	광물재료 제품	0.7	0.0	0.0
HS 71	보석 및 귀금속	//	0.0	0.0
HS 72~83	철금속 및 제품	.0	18.6	3.61
HS 84~85	통신전자와 기계설비	4.0	0.0	0.03
HS 86~89	운수설비	0.2	0.0	0.0
HS 90~92	광학 계량기기	0.0	0.0	0.0
HS 94~96	잡류 제품	//	0.0	0.0
HS 97	예술품	0.0	0.1	0.0
HS 98	특수교역 및 미분류상품	//	0.0	0.0
합계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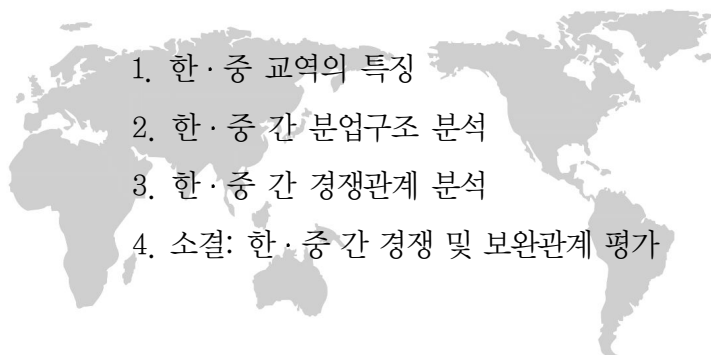
자료: 刘翔峰, 「中韩自贸区敏感产业安排的试分析」, 2007年 AMR-KIEP 共同研讨会 会议文集.

중·파키스탄 FTA는 EHP를 실시하고, 기존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하에서의 관세삭감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측 공히 전체 세목의 15%에 해당하는 양허없음(No concession)항목을 두고, 협상 발효 후 5년 후인 2단계에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협상 상대국에 따라 다양하게 관세삭감 modality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협상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을 다루는 방식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 체결 FTA 상대국들은 대부분 중국에 비해 제조업이 낙후된 국가들이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이 중국과의 FTA 관세철폐 협상시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로 인해 혜택 또는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산업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여 한·중 FTA 관세철폐 및 민감품목 설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제3장

# 한·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경쟁관계 분석



## 1. 한·중 교역의 특징

### 가. 한·중 교역의 확대과정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1,180억 달러로 18.5로 증가하였다. 수교 이후 한·중 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제1확대기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국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1992년 8월에는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동년 9월에는 한·중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교 정상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양국간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존재하던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차별관세 문제도 해소되었다. 1992년 5월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또한 1992년 2월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대외무역, 외국인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양국간 직교역액은 1991년 44억 달러 1997년에는 237억 달러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6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연평균 27.3%씩 증가하였다.

둘째 단계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한국은 1997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한국의 벤처 붐 등으로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을 포함한 총수출이 급증하였지만,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라 IT 부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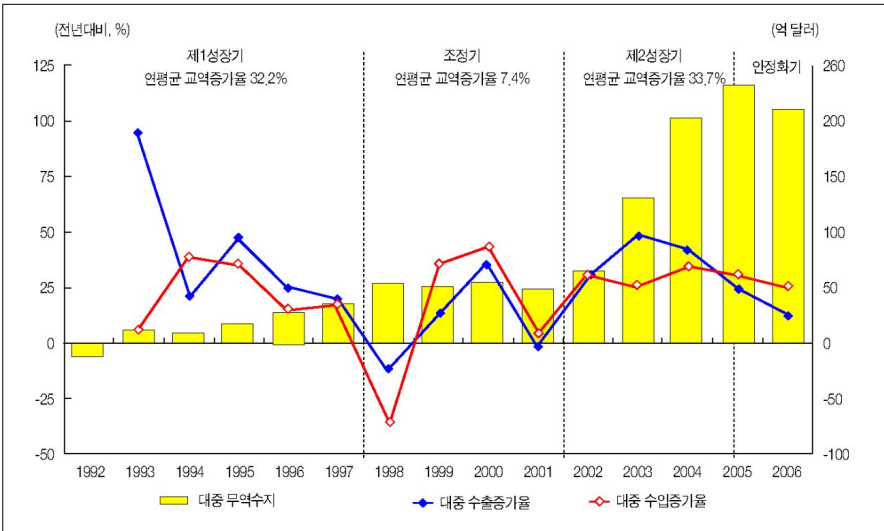
급속히 위축되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기간 중 양국간 직교역이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역시 29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0%, 대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9.4%를 차지하여 1997년에 비해 각각 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셋째 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의 발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교역상품구조에서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양국간 직교역액은 2001년 315억 달러에서 2005년 1,006억 달러로 연평균 33.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에 한국 총수출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넷째 단계는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한·중 교역이 안정화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한·중 양국무역의 급등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2~2004년 중 연평균 36.1%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2005년에는 26.7%로, 2006년에는 17.4%로 둔화되었다. 특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져 대중국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양국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

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중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주도해온 부품과 소재분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안정화(安定化)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1. 한·중 무역관계의 발전과정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를 이용하여 작성.

## 나. 교역구조의 변화

### 1) 교역품목의 변화

양국간 교역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무역구조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간 교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성원료 등의 일차상품과 직물, 섬유사,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중국에 직물 및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농산물, 직물, 요업제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을 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및 휴대폰 관련부품과 자동차부품이 중요한 교역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즉, 양국간 교역이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품류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제품 중심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먼저, 양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광물성원료와 철강제품, 석유화학 등 소재류 제품이다. 광물성원료의 경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석탄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한국은 중국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산업용 중간재로서 중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가전제품과 전자부품을 들 수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산업용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을 들 수 있다. 기술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단계에 속한 제품들이면서 자본재나 중간재에 속하는 것들이다. 중국이 전자산업의 세계적인 최종재 조립가공 기지로 등장하면서 관련설비 및 부품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셋째, 양국간 교역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으로는 섬유관련 품목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위축된 품목으로는 직물, 가죽 및 모피제품, 제지 원료 및 종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것들이다. 즉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들 상품이 한국의 주종 수출품이었지만, 해당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점차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표 3-1.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1992년		1997년		2001년		2006년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총 계	2,654	총 계	13,572	총 계	18,190	총 계	69,459
1	철강제품	802	석유화학	2,252	석유화학	3,337	전자부품	13,235
2	석유화학	460	광물성연료	1,549	광물성연료	1,671	석유화학	11,311
3	직 물	267	직 물	1,432	전자부품	1,636	산업용전자제품	10,136
4	가죽·모피	142	철강제품	949	직 물	1,595	광물성연료	5,047
5	섬유원료	130	가죽·모피	807	산업용전자제품	1,429	철강제품	3,540
6	산업기계	108	전자부품	583	철강제품	1,380	수송기계	3,509
7	제지원료·종이	90	산업기계	528	가죽·모피	676	기초산업기계	3,334
8	광물성연료	83	섬유사	508	가전제품	676	비철금속제품	2,746
9	전자부품	68	섬유원료	507	산업기계	615	가전제품	2,078
10	정밀화학제품	55	제지원료·종이	457	정밀화학제품	581	산업기계	2,042
	소 계	2,204	소 계	9,572	소 계	13,596	소 계	56,978

주: MTI 2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넷째, 한·중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sup>11)</sup>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국간 교역구조가

11) 일반적인 학술연구에서는 기술수준 분류에서 OECD(1997)의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OECD는 22개 제조업을 제품군별로 기술집약도지수(R&D 지출÷부가가치)에 따라 제품군을 저위기술(low tech), 중저위기술(medium low tech), 중고위기술(medium high tech), 고위기술(high tech)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OECD는 4단계 기술수준별 제품군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 기준을 따랐다. ① 고위기술산업: 항공·우주, 컴퓨터·사무용 기기, 전자·통신, 의약품, ② 중고위기술산업: 산업광학기기, 자동차, 전기기계, 일반기계, 화학, 기타 운송장비, ③ 중저위기술산업: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선, 비철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 석유정제, 철강, 기타 제조업, ④ 저위기술산업: 인쇄·제지, 섬유·의복, 음식료·담배, 목재·가구 등이다. Hatzichronoglou(1997) 참고.

점차 고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1990년대에는 중저위기술산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고위기술산업 비중이 중저위기술산업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고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4%에서 2006년에는 40.7%로 높아진 반면, 1992년 60.6%를 차지하였던 중저위기술산업은 2006년에는 26.6%로 낮아졌으며, 저위기술산업 비중도 17.4%에서 5.4%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고위기술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최종재 수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위기술산업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요 핵심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저위기술산업에서 고위기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국 수입에서 저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4%에서 2006년에는 19.1%로 하락한 반면, 고위기술산업 비중은 같은 1992년 6.0%에서 2000년 이후 저위기술산업 비중을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위기술산업 중심구조로 전환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으며,<sup>13)</sup> 고위기술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 중국의 수입상품구조를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최종재 수출이 고위기술산업 중심구조로 전환되면서 동 산업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고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7%에서 2006년에는 47.3%로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는 중국 내 부품과 소재 공급능력이 강화되어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예컨대 저위기술 산업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7.2%에서 2006년에는 7.3%로, 중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은 27.0%에서 20.6%로, 중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은 34.8%에서 25.8%로 낮아졌다. 양평섭(2007) 참고.

13) 중국의 수출구조를 기술수준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중국 산업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이테크기술이 체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고위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4.6%에서 2006년에는 37.1%로, 중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은 13.5%에서 18.2%로 높아진 반면, 중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은 16.3%에서 18.3%로, 저위기술산업 비중은 55.6%에서 26.4%로 낮아졌다. 양평섭(2007) 참고.

표 3-2.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세계 및 대중국 수출·수입구조

(단위: %)

구 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대 세 계	수출	고 위	27.8	31.1	38.4	36.9	35.6
		중고위	16.1	23.8	21.5	28.2	28.7
		중저위	30.7	28.0	27.0	28.3	29.8
		저 위	25.5	17.2	13.2	6.5	5.9
	수입	고 위	25.9	25.6	38.8	33.4	31.9
		중고위	35.3	33.5	24.8	26.0	25.3
		중저위	25.2	25.9	24.3	31.1	32.4
대 중 국	수출	고 위	7.4	9.0	21.6	42.1	40.7
		중고위	14.7	25.6	22.6	26.4	27.3
		중저위	60.6	42.7	38.3	25.7	26.6
		저 위	17.4	22.7	17.5	5.8	5.4
	수입	고 위	6.0	10.2	31.6	34.6	34.7
		중고위	13.1	12.8	16.8	17.9	17.8
		중저위	36.8	46.6	25.9	28.9	28.4
		저 위	44.0	30.4	25.8	18.5	19.1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 2) 가공무역(加工貿易)과 중간재 중심의 교역구조

제조업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공무역을 위한 대중국 수출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CGE 분석 등에 있어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4.6%(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중 비중)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세가공무역을 위한 수출

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중국에 수출할 때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품목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29.1%(일반무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단위: %)

무역방식 구분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무역	37.8	39.4	38.8	33.7	29.1	29.1	52.5	53.4	51.7	48.3	50.8	52.1
가공무역	53.7	50.7	48.3	51.5	56.8	54.6	46.1	44.9	46.0	49.3	46.6	45.1
내료가공(來料加工)	17.9	15.1	11.6	12.0	17.6	16.3	13.7	13.9	12.5	13.1	13.1	13.6
진료가공(進料加工)	35.6	35.5	36.5	39.4	39.1	38.2	32.4	31.0	33.5	36.2	33.5	31.5
가공무역 수입설비	0.2	0.2	0.2	0.1	0.1	0.2	-	-	-	-	-	-
투자용 설비 및 물품	4.3	4.1	4.0	4.5	3.4	2.4	-	-	-	-	-	-
보세가공무역	4.1	5.7	8.7	10.3	10.6	13.8	1.3	1.3	1.8	2.1	2.5	2.8
보세창고 입출경화물	2.2	1.8	1.6	2.5	3.9	5.7	0.7	1.0	1.3	1.4	1.5	1.5
보세창고 중개무역	1.9	3.9	7.1	7.8	6.5	7.5	0.6	0.3	0.5	0.7	1.0	1.3
수출가공구 수입설비	0.0	0.1	0.1	0.1	0.2	0.5	-	-	-	-	-	-
기 타	0.1	0.1	0.2	0.1	0.0	0.0	0.0	0.4	0.5	0.3	0.2	0.0

주: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국 수출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대중국 수입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자료: 중국해관통계.

업종별로 대중국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무역업종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내수업종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무역 업종(수출목적)은 농수산업, 섬유직물, 의류·섬유제품, 화학섬유, 고무·플라스틱, 피혁·모피, 비철금속,

14)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국 세관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하는 대중 수출액 비중은 67.3%(일반무역과 진료가공 포함)이며, 이 중 38.2%(進料加工)는 중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대중국 수출의 31.4%(來料加工 17.6%, 보세가공무역 13.8% 포함)은 통상 보세통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용 설비와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전기기계, 전자통신, 사무·계측·정밀기기, 신발, 기타제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무역 업종(중국 내수 목적)은 광업, 목재·가구, 석유제품, 석유화학, 의약품, 금속제품,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업종이 해당한다.

표 3-4.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2006년 기준)

(단위: %)

업종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가공무역			일반 무역	가공무역			일반 무역
	소계	래료가공	진료가공		소계	래료가공	진료가공	
전산업	52.8	15.8	37.0	28.3	42.2	12.7	29.5	48.9
농수산업	81.8	30.7	51.1	10.6	5.8	1.5	4.4	91.5
광업	9.5	3.2	6.3	88.2	4.0	2.1	1.9	92.7
음식료품·담배	43.8	1.7	42.1	47.8	12.8	1.7	11.1	78.1
목재·가구	13.4	2.2	11.3	75.8	11.5	1.7	9.8	69.6
종이·인쇄	47.3	25.8	21.5	27.9	51.9	37.4	14.5	33.2
비금속광물	47.3	5.1	42.1	27.8	15.3	1.0	14.3	80.7
섬유직물	88.6	54.3	34.3	10.7	28.6	11.4	17.2	71.1
의류·섬유제품	62.3	53.6	8.7	32.2	38.5	31.0	7.6	58.4
화학섬유	80.7	39.4	41.3	17.5	49.5	3.2	46.2	49.9
고무·플라스틱	60.3	23.0	37.3	28.0	53.8	9.2	44.7	41.4
피혁·모피	84.5	44.3	40.2	5.0	42.8	16.3	26.5	15.3
석유제품	2.3	0.2	2.1	54.5	77.3	9.4	68.0	16.0
석유화학	32.6	5.3	27.2	60.4	31.2	3.3	27.9	58.5
의약품	6.1	2.9	3.1	93.3	46.3	40.0	6.2	53.5
기타 화학제품	46.2	8.5	37.7	47.7	13.2	1.2	11.9	85.2
철강	44.3	7.6	36.7	34.2	8.1	3.0	5.1	87.7
비철금속	60.6	11.2	49.4	23.1	24.4	0.6	23.8	23.9
금속제품	29.0	8.5	20.5	55.2	40.0	13.6	26.4	59.0
전기기계	63.5	20.8	42.7	24.9	71.3	36.7	34.6	26.6
전자통신	71.1	20.4	50.7	12.0	84.8	22.7	62.1	9.1
일반기계*	11.1	0.5	10.6	45.6	33.6	5.5	28.1	62.4
사무계측정밀광학기	62.8	23.3	39.5	12.8	73.8	30.4	43.4	15.1
자동차	2.9	0.9	2.0	75.9	30.4	9.9	20.4	31.6
기타운송기기	1.7	1.0	0.7	90.4	71.6	7.1	64.5	22.2
신발	97.1	28.8	68.3	2.3	51.8	31.2	20.6	46.6
기타제조업	82.1	47.2	34.8	13.9	48.6	19.0	29.6	47.5

주: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국 수출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대중국 수입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 일반기계의 경우 중국 내수용 또는 대중국 투자용 설비(면세)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음.

자료: 중국해관통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공단계별<sup>15)</sup>로 한·중 간 교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88.8%에서 2006년에는 79.9%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구조와 전세계의 수출상품 구조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나치게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다.<sup>16)</sup>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는 반제품에서 부품과 부분품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4.0%에서 2006년에는 44.0%로 하락한 반면, 부품과 부분품 비중은 4.8%에서 35.9%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리잡으면서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특히 중간재 비중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높아진 것은 휴대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휴대폰과 완성차 등 최종재 수출이 관련부품 수출로 대체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5) UN의 BEC(Broad of Economic Categories) 분류는 HS 6단위(또는 SITC 3단위)의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제무역 데이터를 일차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S 상품분류 코드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HS 6단위를 사용하여 BEC 분류를 시도하였다.

16)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상품 구성은 중간재가 57.5%(이 중 반제품 31.5%, 부품 및 부분품 25.9%), 최종재가 42.4%(이 중 자본재 27.6%, 소비재 14.8%), 일차상품이 0.1%로 대중국 수출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17) 중국의 수입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중심의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일차상품 비중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입 중 중간재가 60.4%, 최종재가 23.3%, 일차상품이 1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반제품 산업의 성장으로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부품과 부분품, 일차상품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5.2%에서 2006년에는 29.8%로 낮아진 반면, 부품 및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4.4%에서 30.6%로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일차상품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6%에서 2006년에는 16.0%로 급상승하였다.

18) 2002년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한국산 휴대폰 완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휴대폰 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2001년 2억 7,600만 달러에서

표 3-5.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단위: %)

구 분		1992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중 수출	일차상품	0.5	0.3	0.4	0.4	0.5	0.5	0.6	0.6	0.1	
	중간 재	소 계	88.8	82.6	84.9	83.4	76.1	76.5	79.7	82.0	79.9
		반제품	84.0	72.3	65.2	64.0	52.0	46.2	43.9	42.0	44.0
		부품 및 부분품	4.8	10.3	19.7	19.5	24.1	30.3	35.8	40.0	35.9
	최종 재	소 계	10.7	17.1	14.7	16.2	23.4	23.0	19.7	17.3	20.0
		자본재	7.3	11.2	9.9	11.1	18.5	18.6	16.2	14.0	16.7
		소비재	3.5	5.9	4.8	5.1	4.9	4.4	3.5	3.3	3.3
	대중 수출	일차상품	0.5	0.3	0.4	0.4	0.5	0.5	0.6	0.6	0.1
		중간 재	소 계	88.8	82.6	84.9	83.4	76.1	76.5	79.7	82.0
반제품			84.0	72.3	65.2	64.0	52.0	46.2	43.9	42.0	44.0
부품 및 부분품			4.8	10.3	19.7	19.5	24.1	30.3	35.8	40.0	35.9
최종 재		소 계	10.7	17.1	14.7	16.2	23.4	23.0	19.7	17.3	20.0
		자본재	7.3	11.2	9.9	11.1	18.5	18.6	16.2	14.0	16.7
		소비재	3.5	5.9	4.8	5.1	4.9	4.4	3.5	3.3	3.3
대중 수입		일차상품	37.1	20.6	16.1	12.9	12.6	12.5	9.1	9.4	5.9
		중간 재	소 계	50.3	53.2	50.3	48.9	48.2	48.0	52.8	54.7
	반제품		48.6	44.4	34.4	32.0	31.4	29.9	34.2	35.3	36.9
	부품 및 부분품		1.6	8.9	16.0	16.9	16.8	18.1	18.6	19.4	20.9
	최종 재	소 계	12.6	26.2	33.6	38.2	39.1	39.4	38.1	35.8	36.2
		자본재	2.6	6.6	13.7	14.5	14.9	16.9	18.4	18.5	18.7
		소비재	10.0	19.5	19.8	23.6	24.3	22.5	19.8	17.3	17.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

2005년에는 34억 2,700만 달러로, 과거 4년간 연평균 88%씩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현대 자동차가 북경에 자동차 합작공장을 설립하면서 2001년 7,8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2002년에는 1억 6,900만 달러로, 2005년에는 26억 9,300만 달러로 증가하여 과거 4년간 연평균 140%를 넘어선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두 품목의 특수한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대중국 수입에 있어서도 중간재 비중은 상승세를, 소비재와 일차상품 비중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2002년에 비해 9.7%포인트 높아졌으며, 최종재 비중은 36.2%로 2.9%포인트 하락하였다.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와 대중국 의류 수입증가를 둔화로 일차상품과 소비재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자·통신 분야의 산업내분업 확대, 중국 소재 한국 기업의 역수입 등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sup>19)</sup>

### 3) 외자기업 중심의 교역구조

한·중 간 교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중 간 교역의 69.2%가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75.3%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56.8%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교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9.8%에서 2006년에는 75.3%로 높아졌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24.7%에서 56.8%로 높아졌다.

19)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를 가공단계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최종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자본재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출상품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수출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1995년 34.9%에서 2006년에는 40.4%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간재에서는 반제품 비중이 하락하고 부품과 부분품 비중은 1995년 7.2%에서 17.5%로 높아졌으며, 최종재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8.3%에서 2006년에는 31.3%로 하락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1.2%에서 26.8%로 높아졌다.

표 3-6.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중국의 對韓 수출입		외국인투자기업의 對韓 수출입		비 중(%)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D/B)
1995	66.9	102.9	16.5	61.6	24.7	59.8
2000	112.9	232.1	51.0	137.2	45.2	59.1
2001	125.4	234.0	61.5	139.6	49.0	59.7
2002	155.1	285.8	75.4	180.9	48.6	63.3
2003	201.0	431.6	102.3	291.8	50.9	67.6
2004	278.1	621.7	154.4	452.3	55.5	72.8
2005	351.2	768.7	194.4	587.0	55.4	76.4
2006	445.6	898.2	253.0	676.7	56.8	75.3

자료: 『中國外商投資報告 2006』, 중국상무부 사이트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입과 매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로부터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매입·매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수출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76.4%, 일본 72.9%, 대만 78.6%, 미국 53.1%, EU 49.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한·중 간 분업구조 분석

한·중 간 분업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내무역지수(IIT: intra industry trade)와 무역결합도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를 분석하였다. 각 지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은 2001~06년의 6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을 이같이 구분한 것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교역패턴과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무역거래 자료는 중국의 무역방식별(일반무역, 가공무역)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여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HS2002 version을 사용하였다.

###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 1) 분석방법

본 항에서는 한·중 간 교역에 있어 분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살펴보고, 산업내무역지수<sup>21)</sup>를 추정하였다. 특정

21) 산업내무역의 측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Grubel-Lloyd지수(GL지수)라고 할 수 있다. Grubel Lloyd(1975)는 산업내무역을 “개별산업의 수입액과 정확하게 중복되는 동일 산업의 수출액”으로 정의하고 특정  $i$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GL_i = \left(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right) = 1 - \frac{|X_i - M_i|}{(X_i + M_i)}$$

또한  $n$ 개의 세부 산업을 포함하는 대분류 산업 또는 전체 산업내무역지수는, 세부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

$$GL_{Total} = 1 - \frac{\sum_{i=1}^n |X_i - M_i|}{\sum_{i=1}^n (X_i + M_i)}$$

산업의 산업내무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식 3-1]의 조정된(adjusted) GL(Grubel-Lloyd)지수를 사용한다.

$$GL_{ij}^k = \sum_{k=1}^n \left( 1 - \left(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right) \right) * W_{ij}^k \tag{식 3-1}$$

$GL_{ij}^k$ :  $k$ 품목별  $i$ 국의  $j$ 국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

$X_{ij}^k$ :  $i$ 국의  $j$ 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

$M_{ij}^k$ :  $i$ 국의  $j$ 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입액

$W_{ij}^k$ :  $i$ 국의  $j$ 국에 대한 총교역 중  $k$ 품목의 비중

GL지수는 산업별·국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저조해지는 반면,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에서 무역특화 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GL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화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전되어 산업내무역이 저조하다. 즉 GL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의 값이 0이면 수출 또는 수입에

---

이 GL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 값이 0인 경우는 완전한 산업간무역을 나타내며, 수출 또는 수입 중 어느 하나가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무역액 중에서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하며, 이 지수가 1인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정확히 중복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Data는 한국 무역협회의 database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있어 HS 6단위를 기준의 공산품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내무역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품목을 고려하여 산업내무역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완전 특화된 경우이고, 1이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대칭적으로 같아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극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 2) 업종별 산업내무역지수

양국이 무역을 재개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국간 무역은 경제발전단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인근 국가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역구조를 나타냈다. 즉 한국이 농수산물, 석탄, 원유 등의 1차산품과 섬유직물 그리고 저급의 철강 및 화학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고급 철강제품,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 고급 직물 등의 수출용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또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를 일부 수출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 시기 양국간 무역은 대체로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무역에서 산업간무역의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한·중 간 무역구조를 산업간무역과 산업내무역으로 구분한 결과가 [표 3-7]에 나타나 있다. 한·중 간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얻을 수 있다.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 간 무역은 산업간무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내무역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한·중 간 공산품 교역에 있어 산업내무역지수는 1992년 11.9에서 2005년에는 34.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 지수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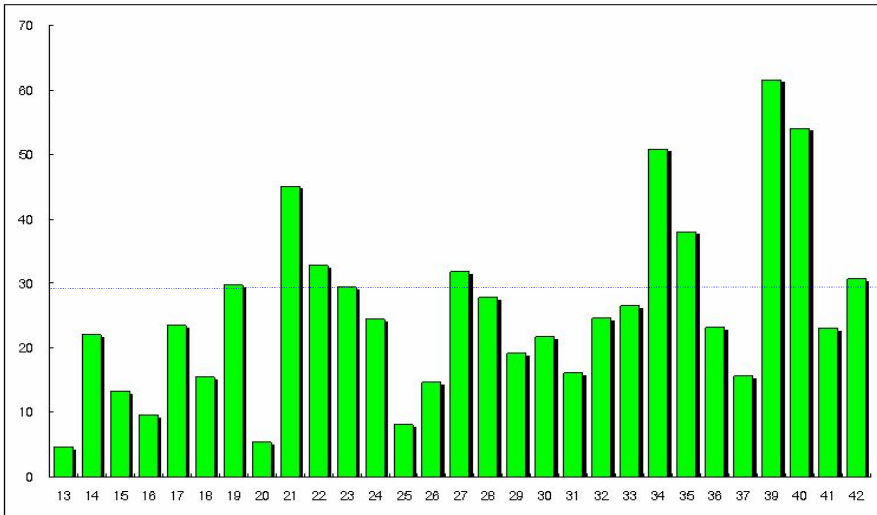
연도	제조업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석유화학	기타제조업
1992	11.90	11.47	22.37	4.52	9.39	7.37	2.30	17.56
1993	13.05	8.52	29.20	0.53	6.99	10.42	3.30	19.93
1994	18.49	18.43	35.33	3.26	7.41	12.54	5.22	25.40
1995	19.36	19.12	47.72	2.02	6.74	12.75	6.63	23.89
1996	20.74	17.32	56.07	2.93	9.10	13.26	5.26	21.07
1997	19.86	12.63	55.78	6.78	13.13	14.73	5.94	15.32
1998	18.37	7.58	44.90	2.24	10.04	16.73	2.63	16.34
1999	23.40	12.78	46.51	8.63	15.15	16.66	3.17	21.27
2000	26.02	12.77	52.53	14.73	15.48	15.91	3.40	22.15
2001	28.07	12.64	54.94	7.04	19.93	15.70	3.27	24.78
2002	27.90	15.00	45.22	7.42	18.47	18.68	3.76	25.01
2003	28.11	12.92	45.39	4.34	16.75	18.67	3.36	25.94
2004	28.73	20.95	47.00	4.85	18.74	19.03	3.13	23.73
2005	29.96	22.43	48.96	8.06	26.28	22.86	4.01	21.58
2006	34.15	22.06	55.37	16.33	32.33	22.81	7.73	24.8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산업내무역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업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서는 일방적 무역(one-way trade)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에서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동 업종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전자업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이동통신기기부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에서는 양국간 산업내무역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 업종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 철강,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 산업내무역지수는 전기전자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산업내무역을 활성화시킨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 가구, 종이, 의약품, 금속제품 업종에서 양국간 산업내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 제조업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2006년)



주: 13 농산물가공품, 14 식품, 15 음료, 16 담배, 17 섬유, 18 의류 및 섬유제품, 19 가죽모피, 20 목재가공, 21 가구, 22 종이, 23 인쇄, 24 문화,교육,스포츠용품, 25 석유가공 및 코크스, 26 화학원료 및 제품, 27 의약품, 28 화학섬유, 29 고무, 30 플라스틱, 31 비금속광물, 32 철강, 33 비철금속, 34 금속제품, 35 일반기계, 36 특수목적기계, 37 교통운송기기, 39 전기장비 및 기계, 40 전자통신, 41 사무용기기,의료,정밀,광학기기, 42 공예품 및 기타

자료: 필자 작성.

### 3) 기술수준별 산업내무역지수

한·중 간 산업내무역을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위기술산업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중저위 및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고위기술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2년 22.2에서 2001년에는 55.7까지 상승하였다. 2002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다시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42.4로 낮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에서 모두 고위기술산업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기술산업에서 산업내무역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중간재 조달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이후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고, 중국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내수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제품 구조가 고가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가 고급화되면서 중국 내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은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 내에서 조립된 최종재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 시장으로 수출됨으로써 한국으로의 역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6년에 다시 산업내무역지수가 상승한 것은 고위기술산업에서 중국산 부품의 대한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저위기술산업에서는 산업내무역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위기술산업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무역이, 저위기술산업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일방적 무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저위기술산업에서 중국산 부품과 소재의 경쟁력이 고위기술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산업의 상호직접투자가 부진한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3-8. 기술수준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단위: %)

구분	1992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 위	22.22	50.93	55.06	51.87	55.65	44.38	43.79	43.91	42.50	49.24
중고위	14.86	20.66	12.31	16.91	18.50	17.57	16.67	17.32	19.12	21.33
중저위	6.12	10.62	19.13	18.05	19.05	21.12	20.94	21.34	24.80	29.11
저 위	7.16	12.46	13.76	17.27	18.27	21.63	22.14	22.30	21.90	23.84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하여 작성.

#### 4) 가공단계별 산업내무역지수

가공단계별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를 살펴보면 부품과 자본재 교역에서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일차상품, 반제품, 소비재의 교역에서는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부품과 부분품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2년 26.8에서 2006년에는 49.6으로 높아졌으나,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부품 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류는 아날로그 가전의 생산에 필요한 중저가인 반면, 2002년 이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품은 반도체, 휴대폰 부품, 디지털 가전용 부품(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또한 2002년 자동차업체의 중국 진출 이후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부품산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하락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다시 급격히 상승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중저가 부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둘째, 반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반제

품 교역에서는 산업내무역지수가 낮고, 소비재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내무역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자본재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기계설비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자본재의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본재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 3-9. 가공단계별 중국 내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단위: %)

	1992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8.85	18.23	17.99	24.03	26.11	26.01	26.49	27.50	28.69	33.05
일차산업	0.14	2.71	1.76	1.70	2.25	2.03	1.82	2.34	1.96	2.61
중간재	11.25	19.46	17.88	24.19	28.00	28.55	27.09	26.44	28.02	33.38
반제품	10.52	16.61	12.29	15.20	16.44	16.85	16.80	17.23	18.50	21.62
부품	26.85	48.02	52.92	50.25	59.85	51.26	42.46	38.71	39.80	49.61
최종재	11.14	18.72	25.16	30.03	26.02	24.98	29.18	33.37	34.54	35.04
자본재	14.84	18.61	31.99	38.44	33.07	28.22	35.22	42.02	43.54	43.16
소비재	8.84	18.81	19.72	21.25	19.14	20.75	19.59	17.89	18.29	19.47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 작성.

### 5)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산업내무역지수

한·중 간 산업내무역은 일반무역 방식보다는 가공무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무역의 경우 한·중 교역에서 산업내무역지수는 0.19에 불과한 반면, 가공무역에 있어서는 0.3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은 플라스틱, 의약품, 일반기계, 가전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조선 업종 등이며,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은 비철금속, 기타 가전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등이다.

표 3-10. 한·중 간 무역 패턴 분류

무역패턴	전 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산업내무역	화학섬유, 무기화학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가전기기, 기타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공산품	화학섬유, 무기화학,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부품, 기타공산품, 조선, 고무	비철금속, 일반기계,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일방적 무역 (한국→중국)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고무,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정밀계측기기, AV기기, 자동차	섬유제품, 화학섬유, 무기화학,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기타화학제품, 철강, 정밀계측기기, 가전기기
일방적 무역 (중국→한국)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철강, 조선,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철강,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의약품, 화장품, 조선, 기타운송장비

표 3-11. 업종별·무역방식별 산업내무역지수

업 종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전산업	0.27	0.29	0.12	0.19	0.28	0.33
농수산업	0.09	0.09	0.03	0.03	0.14	0.10
농산물	0.05	0.05	0.02	0.02	0.14	0.12
수산물	0.14	0.16	0.01	0.00	0.22	0.14
농산물가공품	0.04	0.06	0.03	0.03	0.04	0.11
음식료품, 담배	0.15	0.09	0.14	0.08	0.09	0.03
광산물	0.02	0.02	0.02	0.01	0.12	0.05
제조업	0.29	0.30	0.13	0.21	0.28	0.33

표 3-11. 계속

업 종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섬유 및 의류	0.18	0.23	0.04	0.12	0.13	0.19
섬유직물	0.29	0.36	0.04	0.26	0.13	0.20
화학섬유	0.20	0.36	0.07	0.24	0.16	0.22
의류	0.03	0.06	0.02	0.04	0.03	0.09
기타 섬유제품	0.19	0.21	0.09	0.12	0.16	0.31
화학	0.17	0.20	0.13	0.15	0.12	0.17
석유제품 및 코크스	0.27	0.14	0.17	0.02	0.09	0.11
무기화학	0.21	0.36	0.13	0.21	0.17	0.21
유기화학	0.12	0.20	0.10	0.16	0.23	0.31
의약품	0.48	0.46	0.48	0.32	0.11	0.12
화장품	0.83	0.67	0.82	0.29	0.46	0.15
합성수지	0.02	0.06	0.01	0.05	0.02	0.05
플라스틱제품	0.21	0.36	0.19	0.54	0.20	0.29
고무	0.17	0.27	0.20	0.29	0.13	0.19
기타화학제품	0.34	0.37	0.30	0.32	0.23	0.24
철강금속	0.22	0.32	0.12	0.19	0.15	0.28
비철금속	0.19	0.40	0.08	0.28	0.17	0.39
철강	0.23	0.26	0.14	0.17	0.13	0.17
기계산업	0.25	0.24	0.30	0.36	0.42	0.21
일반기계	0.21	0.40	0.33	0.48	0.28	0.44
정밀계측기기	0.35	0.16	0.18	0.14	0.55	0.18
전기전자	0.56	0.40	0.18	0.37	0.48	0.42
가전기기	0.50	0.51	0.31	0.47	0.64	0.27
기타 전기기기	0.51	0.56	0.47	0.58	0.38	0.55
컴퓨터	0.90	0.45	0.15	0.68	0.70	0.46
통신기기	0.41	0.56	0.27	0.76	0.45	0.48
AV기기	0.79	0.55	0.06	0.15	0.44	0.55
전자부품	0.46	0.35	0.15	0.33	0.46	0.40
운송장비	0.06	0.24	0.11	0.12	0.01	0.20
자동차	0.15	0.27	0.17	0.09	0.23	0.71
조선	0.13	0.23	0.00	0.76	0.00	0.00
기타운송장비	0.01	0.06	0.01	0.07	0.01	0.03
기타 제조업	0.25	0.30	0.13	0.15	0.22	0.34
가죽 및 모피	0.20	0.38	0.10	0.11	0.15	0.34
목재 및 종이제품	0.13	0.31	0.07	0.18	0.05	0.34
비금속광물제품	0.27	0.23	0.20	0.12	0.22	0.34
기타공산품	0.47	0.31	0.15	0.19	0.47	0.3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 나. 무역결합도 분석

### 1) 분석방법

무역결합도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는 어떤 품목에 대한 국가간 보완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식 3-2]와 같이 정의된다.<sup>22)</sup>

TII는 교역상대에 대한 수출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에 있어서 특정시장과의 긴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TII는 해당국의 총수출·입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역내 무역의존도와 달리 해당국의 무역규모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준화(normalization)함으로써 국가간 무역결합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즉 TII는  $i$ 국의 총수출에서  $j$ 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j$ 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 전체의  $j$ 국 시장점유율에 대한  $i$ 국의  $j$ 국 시장점유율의 비율로 계산한다.

$$TII_{ij} = \frac{X_{ij} / M_j}{X_i / M_w} \quad (\text{식 3-2})$$

$TII_{ij}$ :  $i$ 국가의  $j$ 국 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

$X_{ij}$ :  $i$ 국가의  $j$ 국에 대한 수출액,  $X_i$ :  $i$ 국가의 총 수출액

$M_i$ :  $j$ 국 시장의 총 수입액,  $M_w$ : 세계의 총 수입액

22) TII가 1보다 크면 세계 전체의 총수입에서 교역상대국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해당국이 교역상대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을 의미하므로 양국간 교역의 결합도가 전세계 시장과의 평균적인 결합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TII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의 무역에 관해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1보다 작으면 상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TII는 무역구조상 상호보완성이 강할수록,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는 양국간에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분석 결과

한·중 교역의 무역결합도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간에는 매우 높은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TII는 광산물, 조선, 기타 운송장비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와 화장품의 경우 TII가 1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음식료품, 기타 섬유제품,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통신기기, 자동차, 가죽 및 모피 업종에서는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민국 TII는 한국의 대중국 TII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정밀계측기기, 조선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산물, 수산물, 음식료품, 의약품, 합성수지, 통신기기 업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2. 산업 분류별 무역결합도

업종	한국의 대중국 TII					중국의 대한민국 TI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3.0	3.0	3.2	3.1	3.3	2.0	2.0	1.9	1.9	1.8
농수산업	1.7	2.0	2.0	2.0	2.0	4.7	5.0	5.9	4.7	5.2
농산물	1.0	1.6	1.8	1.3	1.5	3.9	4.8	5.7	3.3	5.2
수산물	1.7	1.4	2.0	2.6	2.0	5.9	5.2	5.2	5.1	4.5
농산물가공품	2.5	2.6	1.5	1.5	1.9	4.6	4.6	4.8	4.4	4.1
음식료품·담배	4.9	7.2	8.3	8.8	9.0	3.0	2.8	4.0	4.5	5.0
광산물	1.5	1.1	1.3	1.2	0.7	3.1	2.9	3.0	2.7	3.0
제조업	2.9	2.9	3.1	3.1	3.2	1.7	1.7	1.6	1.7	1.6
섬유 및 의류	3.4	3.6	4.1	4.4	5.1	3.7	3.7	3.6	3.3	2.6
섬유직물	2.0	2.2	2.3	2.3	2.1	2.7	2.4	2.3	2.3	2.0
화학섬유	1.4	1.4	1.6	1.7	1.8	3.8	3.2	2.7	2.2	2.0
의류	5.7	9.3	11.6	12.8	23.5	6.0	5.8	5.3	4.9	3.5
기타 섬유제품	7.3	6.6	7.6	7.3	8.7	2.1	2.4	2.5	2.6	2.3
화학	6.4	6.1	6.3	5.8	5.4	1.5	1.6	1.6	1.6	1.6

표 3-12. 계속

업 종	한국의 대중국 TH					중국의 대한국 TH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석유제품 및 코크스	7.0	5.7	6.8	5.4	4.4	1.7	1.6	1.5	1.7	2.0
무기화학	5.9	5.9	5.8	4.5	5.3	2.4	2.5	2.5	2.1	2.1
유기화학	7.7	7.3	6.4	5.5	5.3	2.8	2.8	2.6	2.5	2.5
의약품	4.6	5.7	6.4	5.7	5.3	4.4	4.9	4.9	5.4	4.8
화장품	96.1	90.9	54.5	64.1	33.7	0.6	0.5	0.6	0.6	0.4
합성수지	2.3	2.1	2.1	2.2	2.1	3.8	3.6	4.5	4.9	4.1
플라스틱제품	4.3	4.2	3.8	3.7	3.8	0.8	0.9	0.9	1.0	1.0
고 무	2.2	2.1	1.9	1.8	2.2	2.3	4.0	2.9	2.8	2.6
기타화학제품	4.0	3.8	4.2	4.4	4.4	2.0	2.1	2.2	1.9	1.7
철강금속	3.1	3.2	3.6	3.8	3.4	2.2	2.3	2.7	2.7	2.8
비철금속	3.1	3.3	3.8	3.7	3.7	2.2	2.6	3.1	2.5	2.4
철강	3.0	3.1	3.3	3.8	3.3	2.3	2.1	2.4	2.9	3.0
기계산업	2.8	3.0	3.4	3.4	3.3	0.8	0.9	1.2	1.0	1.0
일반기계	3.1	3.2	3.7	3.3	3.0	1.0	1.0	1.0	1.0	1.1
정밀계측기기	1.7	2.0	2.7	3.6	3.1	0.6	0.8	1.3	1.0	0.8
전기전자	1.5	1.8	1.9	1.9	2.1	1.4	1.2	1.1	1.4	1.3
가전기기	1.6	1.9	2.4	3.3	4.3	1.0	1.3	1.2	1.3	1.3
기타 전기기기	2.5	2.4	2.5	2.4	2.1	2.2	2.1	1.8	1.2	1.3
컴퓨터	1.6	2.4	3.5	4.0	4.3	1.4	1.0	1.3	1.9	1.5
통신기기	2.6	4.7	5.8	5.4	6.9	2.0	2.3	3.6	3.0	4.2
AV기기	1.8	2.7	1.9	1.2	1.2	3.6	2.6	1.5	2.4	1.8
전자부품	1.3	1.4	1.4	1.5	1.6	1.6	1.4	1.4	1.7	1.6
운송장비	0.6	0.8	1.9	2.6	3.0	9.6	7.2	5.1	5.4	4.0
자동차	1.6	1.9	3.4	4.0	5.8	2.7	3.1	3.4	3.4	3.8
조선	0.0	0.0	0.1	0.9	0.1	0.4	0.6	0.3	1.0	0.7
기타운송장비	0.3	0.4	0.4	0.6	0.7	7.7	7.0	5.3	4.5	3.1
기타 제조업	8.3	6.6	5.3	4.9	7.1	1.6	1.8	1.7	1.6	1.8
가죽 및 모피	7.4	3.1	4.1	4.0	6.3	1.4	3.2	3.0	3.0	2.8
목재 및 종이제품	5.4	5.9	4.7	4.5	3.1	2.8	3.0	2.8	2.5	2.5
비금속광물제품	7.1	7.8	8.3	5.8	5.0	2.4	3.0	2.9	2.5	1.9
기타공산품	14.1	15.0	9.9	9.0	16.0	1.2	1.2	1.0	1.0	1.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

### 3. 한·중 간 경쟁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한·중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수출유사성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등을 분석하였다.

#### 가. 무역특화지수

##### 1) 분석 방법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sup>23)</sup>는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 총액)로 나눈 값이다. 이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다. TSI는 [식 3-3]과 같이 정의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동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TSI를 비교함으로써 무역당사자국과의 수출입 특화품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23) 중국의 대한국 TSI는 한국의 대중국 TSI에 -1을 곱한 값과 같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과 같고,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과 같기 때문이다.

$$TSI_{KC} = \frac{KCX - KCM}{KCX + KCM} = \frac{CKM - CKX}{CKM + CKX} = \frac{-(CKX - CKM)}{CKX + CKM} = -TSI_{CK}$$

여기서  $TSI_{KC}$ : 한국의 대중국 TSI,  $TSI_{CK}$ : 중국의 대한국 TSI

$KCX$ (한국의 대중국 수출) =  $CKM$ (중국의 대한국 수입)

$KCM$ (한국의 대중국 수입) =  $CKX$ (중국의 대한국 수출)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text{식 3-3})$$

$TSI_{ij}$ 는  $i$ 국가  $j$ 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_{ij}$ 는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M_{ij}$ 는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2) 분석 결과

한·중 간 경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대세계 교역에서 한국은 조선, 자동차, 합성수지, AV기기, 고무 업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으며, 중국은 의류, 조선, 가전기기, AV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 및 담배, 화장품, 가죽 및 모피, 컴퓨터, 통신기기 업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sup>24)</sup> 자동차, 정밀계측기기, 전자부품, 유기화학, 합성수지 업종의 경우 한국은 강한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입특화되어 있으며, 비금속광물, 음식료품·담배, 의류, 가죽 및 모피, 화장품, 무기화학,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 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업종에서는 한국이 수입특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수출특화되어 있다. 대세계 시장에서 TSI를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업종<sup>25)</sup>에는 조선, 가전기기, AV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섬유직물을 들 수 있다.

24)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임.

25) 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0.3 이상인 품목임.

표 3-13.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업 종	한국의 TSI						중국 TS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0.03	0.02	0.03	0.05	0.05	0.03	0.05	0.05	0.03	0.03	0.07	0.10
농수산업	-0.59	-0.62	-0.62	-0.61	-0.62	-0.66	0.06	0.08	-0.03	-0.17	-0.12	-0.12
농산물	-0.82	-0.86	-0.87	-0.87	-0.86	-0.88	-0.20	-0.14	-0.26	-0.48	-0.42	-0.46
수산물	-0.25	-0.36	-0.38	-0.36	-0.42	-0.51	0.32	0.30	0.28	0.27	0.20	0.20
농산물가공품	-0.78	-0.77	-0.76	-0.80	-0.80	-0.82	0.21	0.05	-0.07	-0.13	-0.01	0.00
음식료품·담배	-0.24	-0.24	-0.18	-0.15	-0.18	-0.22	0.55	0.61	0.59	0.57	0.59	0.57
광산물	-0.94	-0.95	-0.95	-0.95	-0.94	-0.95	0.01	-0.06	-0.19	-0.34	-0.49	-0.58
제조업	0.08	0.07	0.08	0.10	0.09	0.07	0.05	0.05	0.04	0.05	0.10	0.13
섬유 및 의류	0.53	0.41	0.39	0.35	0.36	0.25	0.54	0.58	0.63	0.67	0.71	0.76
섬유직물	0.56	0.38	0.39	0.37	0.53	0.48	0.07	0.16	0.24	0.27	0.35	0.39
화학섬유	0.56	0.56	0.57	0.55	0.52	0.47	-0.19	-0.12	-0.02	0.09	0.19	0.29
의류	0.43	0.28	0.18	0.10	-0.06	-0.28	0.93	0.93	0.94	0.95	0.96	0.96
기타 섬유제품	0.55	0.45	0.39	0.35	0.21	0.07	0.95	0.94	0.94	0.94	0.95	0.94
화 학	-0.33	-0.33	-0.34	-0.29	-0.29	-0.32	-0.35	-0.37	-0.39	-0.44	-0.39	-0.41
석유제품 및 코크스	-0.60	-0.64	-0.68	-0.63	-0.60	-0.59	-0.61	-0.63	-0.66	-0.77	-0.72	-0.77
무기화학	-0.48	-0.50	-0.48	-0.53	-0.51	-0.49	0.46	0.42	0.44	0.42	0.51	0.40
유기화학	-0.02	0.00	0.04	0.11	0.12	0.19	-0.44	-0.45	-0.50	-0.54	-0.48	-0.39
의약품	-0.57	-0.58	-0.59	-0.59	-0.60	-0.62	0.03	0.02	-0.04	-0.10	-0.13	-0.14
화장품	-0.57	-0.59	-0.51	-0.36	-0.38	-0.42	0.59	0.69	0.68	0.58	0.57	0.56
합성수지	0.71	0.72	0.76	0.78	0.77	0.76	-0.93	-0.92	-0.89	-0.89	-0.82	-0.76
플라스틱제품	0.11	0.08	0.05	0.04	0.03	0.01	0.14	0.14	0.12	0.09	0.11	0.11
고 무	0.56	0.55	0.58	0.58	0.61	0.55	0.05	0.06	0.00	0.08	0.19	0.15
기타화학제품	-0.41	-0.42	-0.44	-0.43	-0.43	-0.40	-0.25	-0.34	-0.29	-0.19	-0.19	-0.18
철강금속	-0.03	-0.08	-0.07	-0.13	-0.11	-0.09	-0.15	-0.16	-0.22	-0.05	0.00	0.18
비철금속	-0.24	-0.24	-0.23	-0.24	-0.24	-0.22	-0.06	-0.05	-0.06	-0.04	-0.04	0.01
철 강	0.09	0.01	0.00	-0.07	-0.05	-0.01	-0.22	-0.25	-0.33	-0.06	0.03	0.32
기계산업	-0.25	-0.27	-0.24	-0.19	-0.07	0.02	-0.35	-0.35	-0.39	-0.38	-0.27	-0.21

표 3-13. 계속

업 종	한국의 TSI						중국 TS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기계	-0.15	-0.17	-0.15	-0.13	-0.09	-0.07	-0.46	-0.40	-0.41	-0.38	-0.25	-0.16
정밀계측기기	-0.49	-0.55	-0.44	-0.31	-0.05	0.12	-0.20	-0.28	-0.38	-0.41	-0.31	-0.28
전기전자	0.22	0.25	0.27	0.31	0.29	0.27	0.06	0.07	0.10	0.13	0.16	0.18
가전기기	0.65	0.65	0.61	0.61	0.56	0.49	0.78	0.77	0.78	0.79	0.79	0.79
기타 전기기기	-0.26	-0.21	-0.17	-0.24	-0.06	0.13	-0.02	-0.01	-0.03	-0.07	0.03	0.09
컴퓨터	0.42	0.51	0.55	0.58	0.43	0.38	0.28	0.34	0.43	0.49	0.51	0.53
통신기기	0.02	-0.05	-0.04	0.05	0.05	0.03	0.08	0.31	0.38	0.41	0.49	0.51
AV기기	0.76	0.78	0.80	0.80	0.77	0.68	0.53	0.49	0.50	0.66	0.71	0.71
전자부품	-0.05	-0.05	-0.03	0.06	0.11	0.14	-0.39	-0.42	-0.44	-0.42	-0.40	-0.36
운송장비	0.78	0.76	0.78	0.79	0.78	0.76	-0.02	-0.05	-0.06	0.04	0.18	0.13
자동차	0.80	0.75	0.77	0.81	0.81	0.79	-0.45	-0.48	-0.60	-0.41	-0.15	-0.13
조선	0.93	0.93	0.92	0.88	0.88	0.91	0.47	0.52	0.58	0.51	0.81	0.88
기타운송장비	-0.17	-0.29	-0.10	-0.28	-0.49	-0.49	0.10	0.16	0.30	0.38	0.33	0.16
기타 제조업	-0.02	-0.24	-0.21	-0.20	-0.19	-0.26	0.50	0.53	0.53	0.54	0.59	0.61
가죽 및 모피	0.32	-0.08	-0.23	-0.28	0.24	-0.13	0.53	0.55	0.58	0.57	0.60	0.54
목재 및 종이제품	-0.20	-0.47	-0.45	-0.41	-0.18	-0.27	-0.29	-0.24	-0.20	-0.13	-0.03	0.08
비금속광물제품	-0.28	-0.41	-0.42	-0.40	-0.45	-0.49	0.38	0.45	0.45	0.48	0.57	0.59
기타공산품	0.05	-0.07	-0.05	-0.06	-0.15	-0.18	0.85	0.85	0.83	0.81	0.82	0.8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중국의 수출특화지수를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산물·가공품, 의류, 기타 섬유제품, 가전기기, AV기기 업종의 경우 일반무역과 가공무역 모두에서 수출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료품 및 담배, 의약품, 고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가공무역에서는 높은 수출특화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무역에서는 수출특화지수가 낮거나 수입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산물, 섬유직물,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 화학섬

유, 비금속광물제품, 철강 업종의 경우 일반무역에서는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공무역에서는 수출특화지수가 낮거나 수입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중국의 업종별 ·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업종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산업	0.00	0.03	-0.01	-0.01	0.06	0.14	0.22	0.19	0.20	0.19	0.20	0.21
농수산업	0.12	0.16	0.04	-0.13	-0.06	-0.05	-0.01	0.01	-0.11	-0.12	-0.13	-0.12
농산물	-0.08	0.02	-0.12	-0.38	-0.29	-0.31	-0.70	-0.72	-0.80	-0.82	-0.83	-0.84
수산물	0.77	0.78	0.80	0.80	0.75	0.70	0.00	0.01	0.00	-0.02	0.01	0.03
농산물가공품	0.15	-0.02	-0.10	-0.18	-0.06	-0.04	0.62	0.69	0.73	0.73	0.71	0.74
음식료품·담배	0.48	0.58	0.57	0.54	0.59	0.58	0.72	0.76	0.77	0.81	0.73	0.75
광산물	0.09	0.01	-0.13	-0.29	-0.45	-0.22	-0.89	-0.86	-0.90	-0.88	-0.83	-0.79
제조업	-0.03	0.02	-0.02	0.02	0.10	0.17	0.24	0.20	0.21	0.21	0.21	0.22
섬유 및 의류	0.92	0.91	0.92	0.92	0.93	0.94	0.21	0.20	0.23	0.27	0.32	0.37
섬유직물	0.90	0.93	0.93	0.92	0.92	0.91	-0.38	-0.35	-0.29	-0.23	-0.18	-0.12
화학섬유	0.48	0.47	0.51	0.58	0.63	0.71	-0.49	-0.51	-0.51	-0.46	-0.40	-0.31
의류	0.99	0.99	0.99	0.99	0.98	0.99	0.86	0.85	0.87	0.88	0.89	0.91
기타 섬유제품	0.96	0.96	0.95	0.96	0.96	0.96	0.92	0.89	0.90	0.91	0.90	0.89
화학	-0.38	-0.38	-0.42	-0.49	-0.45	-0.48	-0.24	-0.28	-0.26	-0.23	-0.18	-0.17
석유제품 및 코스	-0.67	-0.69	-0.72	-0.87	-0.84	-0.91	-0.11	-0.15	-0.15	-0.15	-0.12	-0.21
무기화학	0.67	0.64	0.64	0.64	0.70	0.63	-0.29	-0.27	-0.36	-0.33	-0.21	-0.30
유기화학	-0.42	-0.43	-0.47	-0.52	-0.45	-0.35	-0.39	-0.41	-0.41	-0.38	-0.43	-0.39
의약품	0.05	0.13	0.05	0.04	-0.01	-0.10	0.35	0.08	0.09	-0.03	-0.01	0.59
화장품	0.44	0.61	0.57	0.50	0.55	0.58	0.82	0.88	0.89	0.82	0.84	0.81
합성수지	-0.97	-0.95	-0.94	-0.94	-0.90	-0.82	-0.90	-0.90	-0.87	-0.87	-0.77	-0.70
플라스틱제품	0.07	0.11	0.08	0.07	0.25	0.29	0.20	0.18	0.16	0.13	0.14	0.18
고무	-0.39	-0.35	-0.45	-0.39	-0.28	-0.34	0.31	0.33	0.37	0.43	0.49	0.51

표 3-14. 계속

업 종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타화학제품	-0.08	-0.16	-0.10	-0.06	-0.08	-0.05	-0.34	-0.45	-0.45	-0.30	-0.24	-0.32
철강금속	-0.03	-0.07	-0.17	0.09	0.18	0.42	-0.20	-0.20	-0.21	-0.19	-0.20	-0.26
비철금속	0.12	0.12	0.12	0.12	0.12	0.24	-0.15	-0.10	-0.08	-0.09	-0.13	-0.24
철 강	-0.14	-0.18	-0.30	0.08	0.20	0.53	-0.25	-0.29	-0.34	-0.30	-0.27	-0.28
기계산업	-0.40	-0.34	-0.36	-0.32	-0.19	-0.11	0.35	0.19	0.01	-0.07	-0.09	-0.05
일반기계	-0.36	-0.32	-0.34	-0.28	-0.14	-0.06	0.40	0.44	0.45	0.43	0.43	0.44
정밀계측기기	-0.58	-0.48	-0.51	-0.48	-0.40	-0.34	0.32	0.04	-0.18	-0.25	-0.26	-0.23
전기전자	-0.42	-0.35	-0.30	-0.18	-0.03	0.09	0.27	0.23	0.26	0.27	0.27	0.28
가전기기	0.81	0.80	0.80	0.82	0.84	0.86	0.81	0.80	0.80	0.79	0.77	0.75
기타 전기기기	0.00	0.01	0.03	-0.02	0.12	0.15	0.11	0.11	0.11	0.11	0.14	0.21
컴퓨터	-0.94	-0.92	-0.87	-0.81	-0.73	-0.64	0.61	0.59	0.66	0.70	0.71	0.73
통신기기	-0.73	-0.40	-0.17	-0.03	0.22	0.32	0.68	0.67	0.65	0.64	0.65	0.63
AV기기	-0.25	-0.37	-0.33	0.10	0.31	0.52	0.69	0.69	0.70	0.75	0.78	0.78
전자부품	-0.69	-0.63	-0.60	-0.51	-0.38	-0.27	-0.27	-0.35	-0.37	-0.37	-0.37	-0.32
운송장비	-0.35	-0.33	-0.36	-0.22	-0.02	-0.07	0.91	0.91	0.94	0.93	0.92	0.93
자동차	-0.50	-0.48	-0.61	-0.43	-0.23	-0.29	0.81	0.80	0.80	0.83	0.80	0.80
조 선	-0.65	-0.76	-0.79	-0.80	-0.10	0.11	0.98	0.98	0.99	0.99	0.99	0.99
기타운송장비	-0.16	-0.11	0.07	0.22	0.31	0.34	0.89	0.90	0.93	0.93	0.91	0.91
기타 제조업	0.53	0.59	0.59	0.61	0.66	0.67	0.50	0.50	0.49	0.49	0.51	0.52
가죽 및 모피	0.93	0.94	0.93	0.92	0.91	0.87	0.32	0.28	0.26	0.25	0.22	0.16
목재 및 종이제품	-0.23	-0.15	-0.14	-0.08	-0.01	0.08	-0.28	-0.28	-0.22	-0.16	-0.06	0.05
비금속광물제품	0.62	0.67	0.66	0.72	0.81	0.83	-0.03	-0.01	0.00	-0.01	0.00	0.06
기타공산품	0.92	0.92	0.87	0.86	0.86	0.86	0.82	0.82	0.81	0.79	0.79	0.7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한·중 간 교역에서는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수산물,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비금속광물, 의약품, 조선, 기타운송장비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기계,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고무,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업종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의 업종에서는 한·중 간에 산업내무역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무기화학, 목재 및 종이제품, 가죽 및 모피, 철강, 비철금속, 가전기기, 통신기기, AV기기 업종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직물, 화장품, 컴퓨터, 화학섬유, 기타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기 업종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간 무역특화지수를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전자부품, 유기화학, 정밀계측기기, 합성수지 업종에서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에서 모두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석유제품 및 코크스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무역에서는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공무역에서는 높은 수입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와 고무 업종에서는 일반무역에서만 높은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농산물가공품, 의류, 기타섬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에서 모두 높은 대한국 수출특화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5.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분포

구 분	가공무역	일반무역	전 체
수출특화	섬유직물, 기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유기화학, 전자부품, 정밀계측기기, 철강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화장품, 합성수지, 고무, 정밀계측기기, AV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수입특화	농산물가공품, 광산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화장품, 통신기기, 조선, 기타운송장비	수산물,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섬유직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무기화학, 의약품, 철강, 기타운송장비,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의류, 기타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의약품,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산업내 무역	의약품, 농산물, 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화학섬유, 무기화학, 고무, 비철금속, 일반기계,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AV기기, 자동차,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공산품	가전기기, 화학섬유,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조선	섬유직물, 화학섬유, 무기화학,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가전기기, 기타 전기기기, 컴퓨터, AV기기, 통신기기,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주: 수출특화업종은 대중국 TSI > 0.5, 수입특화 업종은 TSI < -0.5이하, 산업내무역 업종은 -0.5 < TSI < 0.5인 업종으로 구분함.

한국이 대세계 및 대중국 교역에서 모두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섬유직물, 화학섬유, 컴퓨터, 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이 대세계 및 대중국 교역에서 모두 수입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농수산업, 광산물, 철강금속 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무기화학, 의약품, 의류,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운송장비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대세계 및 대한민국 교역에서 모두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철강금속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비금속광물제품, 무기화학, 의류, 가죽 및 모피, 철강, 비철금속, AV기기, 통신기기, 조선, 기타 운송장비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이 대세계 및 대한민국 교역에서 모두 수입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과 기계산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합성수지, 기타화학제품, 전자부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자동차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표 3-16. 업종별·가공단계별 한·중 간 교역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TSI

업종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0.30	-0.30	-0.36	-0.38	-0.37	-0.34	-0.15	-0.15	-0.23	-0.22	-0.12	-0.08	-0.36	-0.35	-0.38	-0.40	-0.45	-0.44
농수산업	0.86	0.88	0.89	0.82	0.83	0.85	0.97	0.97	0.97	0.94	0.95	0.95	-0.03	0.09	0.09	0.09	0.10	0.23
농산물	0.92	0.93	0.94	0.88	0.93	0.92	0.98	0.98	0.99	0.97	0.98	0.98	-0.27	-0.53	-0.55	-0.37	-0.34	-0.07
수산물	0.86	0.89	0.87	0.83	0.76	0.84	0.99	0.99	0.99	1.00	1.00	1.00	-0.22	0.03	0.06	-0.05	-0.12	0.08
농산물가공품	0.92	0.93	0.92	0.90	0.91	0.93	0.96	0.96	0.96	0.94	0.96	0.96	0.31	0.73	0.70	0.61	0.66	0.64
음식료품·담배	0.60	0.59	0.65	0.64	0.68	0.73	0.82	0.76	0.79	0.73	0.75	0.81	0.17	0.26	0.27	0.36	0.39	0.39
광산업	0.96	0.97	0.95	0.94	0.94	0.91	0.96	0.97	0.96	0.94	0.95	0.91	-0.29	-0.15	-0.35	0.43	0.78	0.84
제조업	-0.40	-0.39	-0.45	-0.44	-0.43	-0.38	-0.37	-0.34	-0.41	-0.35	-0.25	-0.18	-0.37	-0.35	-0.39	-0.40	-0.46	-0.44
섬유 및 의류	-0.03	0.13	0.16	0.18	0.18	0.32	0.85	0.82	0.78	0.76	0.72	0.80	-0.40	-0.30	-0.27	-0.22	-0.22	-0.11
섬유직물	-0.41	-0.33	-0.33	-0.31	-0.24	-0.15	0.91	0.90	0.83	0.71	0.69	0.69	-0.81	-0.78	-0.69	-0.63	-0.59	-0.50
화학섬유	-0.49	-0.46	-0.50	-0.47	-0.38	-0.26	0.19	0.02	-0.08	-0.04	0.05	0.26	-0.58	-0.56	-0.61	-0.60	-0.54	-0.47
의류	0.94	0.94	0.94	0.94	0.92	0.93	0.98	0.98	0.98	0.96	0.94	0.96	0.88	0.88	0.87	0.91	0.88	0.89
기타 섬유제품	0.74	0.78	0.73	0.74	0.73	0.74	0.89	0.89	0.82	0.80	0.80	0.85	0.53	0.63	0.63	0.67	0.64	0.60
화 학	-0.70	-0.66	-0.68	-0.71	-0.66	-0.66	-0.63	-0.62	-0.66	-0.58	-0.60	-0.69	-0.72	-0.79	-0.75	-0.72	-0.72	-0.66
석유제품·코크스	-0.67	-0.58	-0.62	-0.73	-0.57	-0.67	-0.76	-0.70	-0.68	-0.75	-0.50	-0.67	0.89	0.86	0.13	0.10	0.85	0.52
무기화학	0.41	0.42	0.42	0.46	0.50	0.37	0.57	0.56	0.56	0.58	0.61	0.57	-0.55	-0.44	-0.62	-0.34	-0.28	-0.45
유기화학	-0.77	-0.76	-0.78	-0.81	-0.79	-0.73	-0.79	-0.77	-0.77	-0.81	-0.79	-0.75	-0.56	-0.59	-0.63	-0.56	-0.73	-0.60
의약품	0.27	0.33	0.39	0.54	0.51	0.53	0.25	0.30	0.40	0.59	0.61	0.56	0.41	0.67	0.22	0.27	0.05	0.41

표 3-16. 계속

업 종	전 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화장품	0.05	-0.04	0.19	0.04	-0.35	-0.19	0.02	-0.06	-0.06	-0.32	-0.64	-0.60	0.54	0.48	0.78	0.76	0.71	0.85
합성수지	-0.98	-0.98	-0.98	-0.98	-0.96	-0.94	-0.99	-0.98	-0.98	-0.98	-0.96	-0.93	-0.98	-0.98	-0.98	-0.98	-0.96	-0.95
플라스틱제품	-0.75	-0.69	-0.70	-0.65	-0.65	-0.60	-0.62	-0.47	-0.51	-0.53	-0.40	-0.36	-0.79	-0.76	-0.78	-0.71	-0.73	-0.68
고 무	-0.65	-0.40	-0.58	-0.55	-0.58	-0.56	-0.77	-0.48	-0.66	-0.65	-0.70	-0.67	-0.56	-0.31	-0.51	-0.47	-0.46	-0.47
기타화학제품	-0.30	-0.30	-0.27	-0.27	-0.31	-0.31	0.09	-0.01	0.04	0.05	-0.01	-0.02	-0.65	-0.61	-0.66	-0.69	-0.67	-0.66
철강금속	-0.45	-0.34	-0.35	-0.17	-0.07	0.11	-0.34	-0.26	-0.32	-0.04	0.15	0.40	-0.53	-0.42	-0.37	-0.36	-0.35	-0.51
비철금속	-0.21	-0.06	-0.01	-0.05	-0.08	0.03	0.14	0.14	-0.08	-0.12	-0.26	0.03	-0.37	-0.14	0.04	-0.04	-0.04	-0.36
철 강	-0.56	-0.51	-0.53	-0.22	-0.06	0.15	-0.48	-0.38	-0.39	-0.02	0.24	0.50	-0.64	-0.67	-0.72	-0.62	-0.56	-0.66
기계산업	-0.71	-0.72	-0.78	-0.83	-0.79	-0.73	-0.59	-0.53	-0.65	-0.65	-0.57	-0.55	-0.28	-0.59	-0.70	-0.81	-0.81	-0.72
일반기계	-0.76	-0.71	-0.75	-0.74	-0.62	-0.53	-0.58	-0.52	-0.64	-0.63	-0.50	-0.42	-0.37	-0.37	-0.30	-0.22	-0.02	-0.03
정밀기계기	-0.57	-0.73	-0.81	-0.88	-0.86	-0.82	-0.65	-0.58	-0.68	-0.73	-0.72	-0.78	-0.19	-0.66	-0.74	-0.86	-0.87	-0.80
전기전자	-0.33	-0.46	-0.48	-0.40	-0.46	-0.46	-0.71	-0.83	-0.81	-0.67	-0.54	-0.49	-0.22	-0.25	-0.28	-0.27	-0.39	-0.39
가전기기	0.33	0.39	0.28	0.26	0.11	0.12	0.43	0.53	0.33	0.33	0.28	0.44	0.36	0.36	0.34	0.28	-0.03	-0.11
기타 전기기기	0.03	-0.03	-0.17	-0.37	-0.25	-0.27	0.02	-0.20	-0.43	-0.57	-0.33	-0.23	0.20	0.15	0.08	-0.15	-0.13	-0.20
컴퓨터	0.00	-0.31	-0.19	-0.02	-0.08	-0.22	-0.85	-0.86	-0.74	-0.43	-0.18	0.17	0.30	-0.04	0.16	0.29	0.30	0.07
통신기기	-0.16	-0.05	0.13	0.10	0.41	0.44	-0.73	-0.51	-0.43	-0.53	-0.24	0.12	0.00	0.06	0.27	0.24	0.52	0.52
AV기기	-0.11	-0.57	-0.65	-0.08	0.05	0.01	-0.90	-0.98	-0.96	-0.93	-0.79	-0.85	0.17	0.21	0.00	0.37	0.35	0.34
전자부품	-0.52	-0.55	-0.61	-0.59	-0.66	-0.62	-0.85	-0.84	-0.85	-0.73	-0.67	-0.66	-0.46	-0.47	-0.50	-0.52	-0.65	-0.59
운송장비	0.40	0.17	-0.40	-0.41	-0.47	-0.37	-0.25	-0.27	-0.83	-0.84	-0.79	-0.73	0.98	0.98	0.92	0.88	0.86	0.80
자동차	-0.85	-0.81	-0.91	-0.90	-0.86	-0.73	-0.83	-0.83	-0.95	-0.94	-0.92	-0.91	0.77	0.67	0.35	0.14	0.12	0.29
조 선	0.14	0.07	-0.32	0.13	0.46	0.77	-0.02	-0.27	-0.90	-0.78	-0.33	0.24	1.00	1.00	1.00	1.00	1.00	1.00
기타운송장비	0.98	0.98	0.97	0.97	0.97	0.93	0.99	0.96	0.94	0.95	0.94	0.92	0.99	0.99	0.98	0.99	0.99	0.97
기타 제조업	-0.32	-0.09	0.01	0.07	0.22	0.34	0.26	0.45	0.52	0.55	0.66	0.73	-0.54	-0.38	-0.31	-0.25	-0.18	-0.04
가죽 및 모피	-0.58	-0.43	-0.32	-0.24	-0.11	0.00	0.81	0.87	0.80	0.69	0.70	0.76	-0.71	-0.59	-0.52	-0.43	-0.47	-0.37
목재 및 종이제품	-0.58	-0.39	-0.34	-0.33	-0.08	0.17	-0.15	0.12	0.28	0.27	0.41	0.52	-0.88	-0.79	-0.78	-0.74	-0.48	-0.18
비금속광물제품	0.03	0.32	0.34	0.38	0.50	0.56	0.34	0.47	0.53	0.59	0.75	0.82	-0.60	-0.17	-0.26	-0.22	-0.15	0.08
기타공산품	0.15	0.26	0.31	0.36	0.43	0.52	0.82	0.83	0.66	0.65	0.70	0.74	0.00	0.09	0.16	0.21	0.21	0.27

주: 중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중국의 대한국 TSI(A)와 한국의 대중국 TSI(B)는 반비례 관계(A = -B)임.

##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 1) 분석방법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 3-4]와 같이 정의된다. RCA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하여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RCA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 또는 순수출(수출 - 수입)의 무역 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로서,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j$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CA_{ij} = \frac{X_{ij}/X_{wj}}{X_i/X_w} \quad (\text{식 3-4})$$

$RCA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X_{wj}$ : 전세계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X_i$ :  $i$ 국가 총 수출액,  $X_w$ : 전세계 총 수출액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세계가 아닌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 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MCA_{ij}^k = \frac{X_{ij}^k / X_{ij}}{M_{jw}^k / M_{jw}} \quad (\text{식 3-5})$$

여기서  $X_{ij}^k$ 는  $i$ 국가  $k$ 산업의  $j$ 국가에 대한 수출액을,  $X_{ij}$ 는  $i$ 국가의  $j$ 국가에 대한 총수출액을,  $M_{jw}^k$ 는  $j$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을,  $M_{jw}$ 는  $j$ 국가의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 2) 분석결과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 전기전자, 철강 금속 업종에서 양국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기타전기, 섬유직물, 화학섬유, 철강 업종에서 양국이 모두 RCA지수가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RCA가 1 이상인 반면 한국은 1 미만으로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수산물, 의류, 통신기기, 기타섬유제품, 무기화학, 플라스틱제품,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기타 공산품 업종 등이다. 반면 합성수지, 조선, 자동차, 유기화학, 고무, 정밀계측기기 업종에서는 중국의 RCA는 1보다 작은 반면, 한국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업, 광산물, 기계산업, 화학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석유제품 및 코크스, 화장품,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자동차, 조선 제외) 업종에서 양국 모두 RCA지수가 1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7. 한국과 중국의 RCA 지수

업종	중 국					한 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수산업	0.74	0.68	0.60	0.50	0.49	0.23	0.21	0.19	0.17	0.16
농산물	0.73	0.68	0.61	0.42	0.42	0.11	0.09	0.08	0.07	0.07
수산물	1.51	1.38	1.25	1.23	1.09	0.91	0.78	0.68	0.66	0.56
농산물가공품	0.58	0.53	0.45	0.43	0.42	0.07	0.07	0.06	0.05	0.05
음식료품·담배	0.67	0.60	0.51	0.49	0.48	0.34	0.35	0.33	0.30	0.29
광산물	1.82	1.45	1.36	1.39	0.91	0.10	0.08	0.07	0.07	0.08
제조업	1.04	1.05	1.06	1.06	1.08	1.11	1.11	1.12	1.11	1.12
섬유 및 의류	3.38	3.19	3.03	2.96	3.08	1.84	1.46	1.19	0.97	1.02
섬유직물	2.40	2.46	2.35	2.26	2.37	2.93	1.83	1.53	1.31	2.00
화학섬유	1.90	1.86	1.95	2.05	2.13	4.00	3.78	3.32	2.69	2.47
의류	4.17	3.79	3.54	3.41	3.54	0.89	0.77	0.60	0.46	0.34
기타 섬유제품	3.91	3.68	3.42	3.41	3.55	0.90	0.85	0.65	0.53	0.47
화학	0.47	0.43	0.39	0.36	0.37	0.76	0.71	0.67	0.69	0.73
석유제품 및 코크스	0.19	0.17	0.16	0.12	0.13	0.65	0.54	0.44	0.49	0.54
무기화학	1.88	1.68	1.54	1.49	1.63	0.55	0.53	0.57	0.49	0.49
유기화학	0.59	0.55	0.51	0.48	0.52	1.24	1.24	1.27	1.39	1.48
의약품	0.32	0.26	0.23	0.19	0.18	0.09	0.08	0.08	0.07	0.07
화장품	0.26	0.27	0.31	0.28	0.30	0.21	0.23	0.22	0.25	0.24
합성수지	0.13	0.14	0.15	0.13	0.20	2.48	2.62	2.69	2.52	2.55
플라스틱제품	1.19	1.13	1.02	0.99	1.02	0.76	0.76	0.74	0.72	0.76
고무	0.70	0.69	0.65	0.70	0.81	1.51	1.46	1.40	1.29	1.47
기타화학제품	0.63	0.56	0.54	0.57	0.56	0.45	0.45	0.42	0.40	0.44
철강금속	0.96	0.92	0.89	0.99	1.00	1.09	1.07	1.11	1.04	1.10
비철금속	1.03	1.03	1.03	1.06	1.01	0.69	0.72	0.75	0.73	0.74
철강	0.91	0.83	0.78	0.95	1.00	1.43	1.34	1.37	1.25	1.35

표 3-17. 계속

업 종	중 국					한 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계산업	0.55	0.59	0.60	0.61	0.68	0.52	0.55	0.60	0.65	0.84
일반기계	0.43	0.51	0.51	0.52	0.55	0.59	0.63	0.65	0.65	0.70
정밀계측기기	0.77	0.74	0.76	0.81	0.94	0.35	0.33	0.46	0.61	1.11
전기전자	1.37	1.55	1.78	1.90	1.93	1.69	1.92	2.00	1.97	1.81
가전기기	2.86	2.51	2.53	2.49	2.51	1.79	1.88	1.78	1.54	1.44
기타 전기기기	1.17	1.21	1.18	1.16	1.21	0.62	0.75	0.85	0.86	1.15
컴퓨터	1.44	1.95	2.67	2.93	2.91	1.58	1.93	1.84	1.74	1.28
통신기기	1.34	1.58	1.67	1.65	1.67	0.66	0.60	0.61	0.61	0.69
AV기기	2.02	2.16	2.30	2.52	2.54	3.16	3.51	3.83	3.53	2.82
전자부품	0.85	0.90	0.96	1.06	1.11	1.76	1.86	1.97	2.07	2.13
운송장비	0.29	0.25	0.29	0.30	0.33	1.40	1.41	1.49	1.61	1.70
자동차	0.07	0.07	0.07	0.10	0.13	1.13	1.15	1.29	1.41	1.52
조선	0.98	0.79	0.94	0.74	0.89	8.78	9.07	7.97	8.56	8.71
기타운송장비	0.88	0.76	0.98	0.99	0.94	0.20	0.14	0.18	0.14	0.11
기타 제조업	1.71	1.67	1.55	1.48	1.53	0.57	0.38	0.42	0.39	0.33
가죽 및 모피	4.23	4.02	3.81	3.53	3.32	1.48	0.31	0.22	0.18	0.57
목재 및 종이제품	0.52	0.52	0.50	0.52	0.58	0.39	0.21	0.20	0.18	0.31
비금속광물제품	1.40	1.47	1.40	1.42	1.58	0.50	0.46	0.45	0.43	0.43
기타공산품	2.22	2.16	1.98	1.85	1.88	0.58	0.49	0.60	0.55	0.2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력지수를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농수산업, 섬유 및 의류, 전기전자, 철강금속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표 3-18 참고).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비금속광물, 섬유직물, 화학섬유, 의류, 가죽 및 모피, 기타섬유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기타 전기기기, 철강, 비철금속, 무기화학, 고무 업종에서 1 이상의 MCA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계, 화학, 운송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며, 업종별로는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정밀기계, 유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섬유 및 의류,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기계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업, 광산물, 운송장비(자동차 제외) 등의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직물, 화학섬유, 유기화학, 고무, 합성수지, 정밀계측기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 가죽 및 모피 업종에서는 비교우위(MCA지수가 1이상)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 및 담배, 비금속광물, 의류, 석유제품 및 코크스, 무기화학,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통신기기, 컴퓨터, 비철금속, 조선, 기타운송장비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참고).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섬유, 무기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 철강, 정밀계측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업종에서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모두의 경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무역에서는 비교열위이나 일반무역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직물, 의류, 무기화학, 화장품, 가전기기 등이다. 농수산업, 광산물,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의약품, 비철금속, 일반기계, 컴퓨터, 통신기기, 가죽 및 모피,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업종의 경우에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모두에서 비교열위에 있다.

표 3-18. 한국과 중국의 MCA 지수

업 종	중국의 대한국 MCA		한국의 대중국 MCA					
	전 체		전 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수산업	1.65	1.11	0.09	0.05	0.03	0.03	0.22	0.12
농산물	1.27	0.76	0.03	0.01	0.01	0.01	0.07	0.04
수산물	4.42	2.48	0.34	0.22	0.18	0.04	0.31	0.20
농산물가공품	1.28	1.04	0.04	0.02	0.03	0.02	0.27	0.25
음식료품·담배	0.92	1.07	0.38	0.34	0.17	0.35	1.04	1.04
광산물	2.36	0.85	0.05	0.02	0.05	0.06	0.05	0.02
제조업	0.89	1.00	1.09	1.10	1.14	1.14	1.04	1.03
섬유 및 의류	4.70	3.91	1.94	1.26	1.24	1.45	1.49	1.00
섬유직물	3.15	2.91	1.87	1.26	0.88	1.81	1.41	0.96
화학섬유	3.50	2.56	2.34	1.43	1.41	1.45	1.86	1.19
의류	7.71	5.08	0.44	0.61	1.39	1.24	0.30	0.38
기타 섬유제품	3.30	4.03	0.80	1.15	0.50	0.87	1.08	1.62
화학	0.32	0.26	1.46	1.05	1.84	1.17	1.02	1.04
석유제품 및 코크스	0.13	0.07	1.16	0.59	1.25	0.52	0.09	0.14
무기화학	2.14	1.65	0.95	0.82	1.51	1.33	0.56	0.53
유기화학	0.72	0.84	2.43	2.20	3.39	3.21	1.15	1.37
의약품	0.60	0.37	0.24	0.08	0.36	0.11	0.11	0.35
화장품	0.08	0.12	0.48	0.50	0.47	1.59	0.28	0.03
합성수지	0.30	0.66	2.15	1.84	3.76	2.90	1.29	1.39
플라스틱제품	0.59	0.80	1.11	1.10	0.88	1.15	1.02	1.23
고 무	0.73	1.05	1.28	1.14	1.35	1.25	1.14	1.30
기타 화학제품	0.61	0.55	0.64	0.64	0.57	0.69	0.77	0.78
철강금속	1.08	1.67	1.30	1.16	1.39	1.26	1.31	1.15
비철금속	1.14	1.16	0.88	0.92	0.59	0.90	1.05	0.90
철강	1.04	2.03	1.58	1.45	1.81	1.60	1.55	1.50

표 3-18. 계속

업 종	중국의 대한국 MCA		한국의 대중국 MCA					
	전 체		전 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기계산업	0.37	0.46	0.55	1.18	0.51	1.03	0.43	1.28
일반기계	0.27	0.43	0.60	0.63	0.59	0.80	0.67	0.57
정밀계측기기	0.52	0.51	0.39	1.74	0.27	1.56	0.32	1.40
전기전자	1.21	1.82	0.90	1.21	0.80	1.31	0.83	1.01
가전기기	1.76	2.20	0.42	1.01	0.76	1.39	0.22	0.75
기타 전기기기	1.62	1.73	0.57	0.86	0.50	0.87	0.45	0.93
컴퓨터	1.82	3.49	0.44	0.78	0.43	0.24	0.37	0.59
통신기기	1.49	3.18	0.51	0.61	0.28	0.33	1.30	0.69
AV기기	2.43	2.32	1.73	1.03	2.32	2.94	1.27	0.63
전자부품	0.86	1.30	1.08	1.37	1.00	1.66	0.92	1.11
운송장비	0.31	0.40	0.19	0.64	0.17	1.16	0.09	0.61
자동차	0.07	0.38	0.41	1.12	0.32	1.47	0.11	1.72
조선	0.79	0.49	0.16	0.55	0.14	0.82	0.00	0.00
기타 운송장비	0.51	0.39	0.01	0.01	0.00	0.02	0.09	0.06
기타 제조업	1.43	1.82	1.39	0.49	0.77	0.32	1.39	0.47
가죽 및 모피	2.49	2.84	3.25	1.08	0.76	0.62	2.48	0.82
목재 및 종이제품	0.72	0.97	0.89	0.27	0.64	0.18	0.91	0.28
비금속광물제품	1.88	2.03	1.23	0.63	1.69	0.81	0.88	0.40
기타 공산품	1.56	2.07	1.33	0.46	0.40	0.50	1.18	0.4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 다. 수출유사성지수

### 1) 분석방법

수출상품구조, 즉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이 양국간에 유사할수록 경합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역상대국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 또는 경합성을 파

악하고자 수출유사성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였다. 수출유사성지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가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별로 계산한 후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을 지수화한 것이다(식 3-6 참고). 따라서 양국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수록 세계시장에서의 양국간 수출경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양국의 수출구조가 전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수출유사성지수는 0이 되며,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면 수출유사성지수는 1이 된다.

$$ESI_{ij} = \sum_{k=1}^n \text{Min}\left(\frac{X_i^k}{X_i}, \frac{X_j^k}{X_j}\right) \quad (\text{식 3-6})$$

$ESI_{ij}$ :  $i$ 국과  $j$ 국의 수출유사성지수

$X_j^k$ :  $i$ 국  $k$ 품목의 총 수출액

$X_i$ :  $i$ 국의 총 수출액

## 2)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의 한·중 간 수출유사성지수는 2001년 0.44에서 2006년에는 0.4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기전자, 기계, 철강금속 업종에서 양국간의 수출경쟁력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선, 고무, 컴퓨터, 고무,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의약품, AV기기, 전자부품, 가전기기, 기타전기기기, 통신기기, 섬유직물, 의류, 화학섬유,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 철강, 조선 업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부품, 가전기기, 화학섬유, 철강, 자동차 업종의 경우 한·중 간 수출유사성지수가 최근 5년간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컴퓨터, 음식료품 및 담배, 기타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등 중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업종에서 양국간 ESI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3-19. 한·중 간 수출유사성지수 분석결과(1)

업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0.43	0.44	0.43	0.44	0.44	0.45
농수산업	0.44	0.42	0.39	0.41	0.41	0.40
농산물	0.27	0.28	0.26	0.32	0.29	0.34
수산물	0.60	0.57	0.53	0.52	0.52	0.56
농산물가공품	0.35	0.36	0.35	0.35	0.40	0.44
음식료품·담배	0.57	0.55	0.51	0.47	0.47	0.40
광산물	0.14	0.17	0.18	0.18	0.25	0.23
제조업	0.44	0.44	0.44	0.44	0.44	0.45
섬유 및 의류	0.39	0.42	0.42	0.42	0.38	0.35
섬유직물	0.42	0.39	0.39	0.43	0.52	0.51
화학섬유	0.48	0.59	0.62	0.60	0.63	0.64
의류	0.69	0.68	0.68	0.65	0.60	0.59
기타 섬유제품	0.41	0.43	0.43	0.42	0.39	0.38
화학	0.36	0.38	0.40	0.39	0.40	0.39
석유제품 및 코크스	0.54	0.60	0.66	0.69	0.66	0.67
무기화학	0.39	0.38	0.40	0.39	0.40	0.47
유기화학	0.34	0.32	0.33	0.29	0.31	0.29
의약품	0.54	0.51	0.50	0.55	0.54	0.55
화장품	0.77	0.79	0.79	0.74	0.76	0.75
합성수지	0.54	0.53	0.50	0.53	0.50	0.48
플라스틱제품	0.43	0.46	0.46	0.51	0.51	0.53
고무	0.81	0.79	0.79	0.80	0.76	0.76
기타화학제품	0.49	0.49	0.48	0.48	0.51	0.54
철강금속	0.38	0.40	0.36	0.39	0.42	0.50
비철금속	0.45	0.43	0.42	0.41	0.43	0.45
철강	0.34	0.35	0.32	0.38	0.42	0.55
기계산업	0.53	0.51	0.54	0.59	0.58	0.56
일반기계	0.56	0.52	0.51	0.52	0.54	0.57
정밀계측기기	0.55	0.54	0.62	0.67	0.63	0.59
전기전자	0.66	0.66	0.62	0.63	0.61	0.63

표 3-19. 계속

업 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전기기	0.55	0.59	0.60	0.63	0.62	0.62
기타 전기기기	0.73	0.73	0.68	0.70	0.60	0.53
컴퓨터	0.95	0.91	0.84	0.77	0.81	0.75
통신기기	0.78	0.83	0.77	0.77	0.74	0.69
AV기기	0.69	0.65	0.66	0.71	0.71	0.74
전자부품	0.50	0.56	0.60	0.67	0.66	0.71
운송장비	0.31	0.28	0.33	0.30	0.37	0.43
자동차	0.23	0.22	0.26	0.29	0.37	0.40
조선	0.90	0.91	0.91	0.81	0.89	0.91
기타운송장비	0.38	0.38	0.30	0.36	0.44	0.32
기타 제조업	0.34	0.34	0.29	0.29	0.33	0.33
가죽 및 모피	0.35	0.68	0.61	0.59	0.25	0.25
목재 및 종이제품	0.30	0.40	0.42	0.41	0.32	0.33
비금속광물제품	0.39	0.39	0.38	0.37	0.39	0.39
기타공산품	0.36	0.34	0.27	0.27	0.39	0.3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중국의 수출을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으로 구분하여 한·중 간 수출유사성지수를 분석하여 보면, 중국의 가공무역과 한국의 수출간 유사성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과 중국 일반무역 수출간 유사성지수는 0.24인 반면, 중국 가공무역 수출과의 유사성지수는 0.44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에 있어 경쟁관계는 중국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일반무역과의 ESI는 컴퓨터, 전자부품, AV기기, 자동차 업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 화학섬유, 의류, 의약품, 일반기계, 가전기기 및 기타 가전기기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가공무역과의 ESI는 석유제품 및 코크스, 화장품, 고무, 정밀계측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전자부품, 조선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섬유직물, 의류, 화학섬유, 의약품, 기타 전기기기 업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0. 한·중 간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결과(2)

업종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0.20	0.21	0.21	0.23	0.23	0.24	0.43	0.44	0.43	0.44	0.45	0.44
농수산업	0.26	0.25	0.22	0.24	0.24	0.26	0.43	0.42	0.38	0.35	0.34	0.31
농산물	0.21	0.20	0.14	0.19	0.16	0.19	0.31	0.29	0.30	0.30	0.25	0.26
수산물	0.60	0.50	0.47	0.48	0.48	0.63	0.31	0.28	0.26	0.24	0.23	0.25
농산물가공품	0.22	0.38	0.20	0.21	0.27	0.29	0.34	0.35	0.33	0.31	0.34	0.35
음식료품·담배	0.31	0.28	0.31	0.31	0.32	0.29	0.61	0.59	0.54	0.48	0.49	0.45
광산물	0.13	0.16	0.16	0.10	0.12	0.11	0.55	0.45	0.48	0.47	0.30	0.21
제조업	0.21	0.22	0.23	0.24	0.24	0.25	0.43	0.44	0.43	0.45	0.45	0.44
섬유 및 의류	0.20	0.27	0.29	0.30	0.32	0.31	0.38	0.37	0.37	0.36	0.36	0.35
섬유직물	0.27	0.32	0.36	0.42	0.46	0.47	0.58	0.33	0.31	0.33	0.57	0.55
화학섬유	0.51	0.49	0.44	0.44	0.51	0.58	0.38	0.40	0.45	0.53	0.58	0.56
의류	0.44	0.50	0.52	0.52	0.64	0.61	0.62	0.62	0.63	0.62	0.55	0.53
기타 섬유제품	0.32	0.39	0.40	0.31	0.31	0.31	0.50	0.53	0.51	0.49	0.47	0.47
화 학	0.23	0.23	0.25	0.20	0.22	0.19	0.36	0.39	0.40	0.42	0.45	0.44
석유제품 및 코크스	0.44	0.49	0.56	0.40	0.32	0.08	0.98	0.99	0.95	0.97	0.97	0.96
무기화학	0.25	0.26	0.27	0.30	0.38	0.39	0.26	0.24	0.20	0.25	0.28	0.29
유기화학	0.23	0.21	0.23	0.21	0.22	0.21	0.35	0.35	0.34	0.34	0.34	0.34
의약품	0.52	0.53	0.54	0.54	0.61	0.57	0.51	0.46	0.43	0.45	0.56	0.52
화장품	0.42	0.45	0.46	0.39	0.41	0.42	0.86	0.87	0.88	0.84	0.88	0.85
합성수지	0.46	0.39	0.40	0.44	0.39	0.38	0.54	0.53	0.49	0.51	0.46	0.45
플라스틱제품	0.31	0.35	0.38	0.44	0.41	0.43	0.43	0.45	0.46	0.50	0.48	0.49
고 무	0.31	0.40	0.35	0.30	0.28	0.22	0.80	0.80	0.78	0.76	0.72	0.73
기타화학제품	0.29	0.29	0.28	0.28	0.30	0.33	0.59	0.56	0.55	0.52	0.55	0.66
철강금속	0.20	0.21	0.20	0.28	0.28	0.30	0.33	0.33	0.30	0.30	0.32	0.40
비철금속	0.21	0.23	0.24	0.25	0.25	0.22	0.42	0.40	0.39	0.39	0.39	0.46
철강	0.22	0.20	0.18	0.29	0.29	0.36	0.28	0.29	0.26	0.27	0.31	0.40
기계산업	0.42	0.40	0.39	0.38	0.33	0.33	0.42	0.39	0.43	0.48	0.59	0.63
일반기계	0.43	0.41	0.42	0.47	0.49	0.50	0.48	0.41	0.41	0.41	0.42	0.45
정밀계측기기	0.39	0.36	0.30	0.22	0.18	0.21	0.52	0.52	0.64	0.71	0.76	0.73
전기전자	0.32	0.32	0.35	0.40	0.39	0.42	0.66	0.65	0.61	0.62	0.61	0.61

표 3-20. 계속

업 종	일반무역						가공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전기기	0.37	0.48	0.62	0.55	0.47	0.54	0.58	0.60	0.60	0.61	0.63	0.64
기타 전기기기	0.47	0.56	0.55	0.53	0.55	0.51	0.69	0.68	0.63	0.69	0.61	0.53
컴퓨터	0.74	1.00	0.92	0.88	0.97	0.93	0.95	0.91	0.84	0.76	0.80	0.75
통신기기	0.65	0.62	0.49	0.42	0.36	0.41	0.78	0.82	0.76	0.76	0.73	0.67
AV기기	0.24	0.28	0.41	0.62	0.59	0.59	0.70	0.65	0.66	0.72	0.71	0.69
전자부품	0.55	0.57	0.64	0.75	0.73	0.75	0.50	0.57	0.60	0.64	0.66	0.73
운송장비	0.27	0.36	0.33	0.42	0.39	0.37	0.39	0.36	0.38	0.35	0.37	0.44
자동차	0.31	0.37	0.69	0.87	0.80	0.73	0.18	0.19	0.20	0.19	0.39	0.49
조선	0.31	0.81	0.72	0.42	0.92	0.29	0.89	0.91	0.91	0.81	0.89	0.92
기타운송장비	0.14	0.17	0.22	0.31	0.28	0.12	0.21	0.21	0.18	0.21	0.23	0.18
기타 제조업	0.16	0.23	0.25	0.27	0.22	0.23	0.34	0.34	0.30	0.30	0.34	0.32
가죽 및 모피	0.09	0.32	0.24	0.27	0.09	0.12	0.39	0.68	0.64	0.61	0.39	0.38
목재 및 종이제품	0.20	0.23	0.26	0.29	0.21	0.23	0.32	0.45	0.51	0.51	0.42	0.48
비금속광물제품	0.16	0.18	0.18	0.23	0.24	0.25	0.41	0.42	0.37	0.40	0.45	0.45
기타공산품	0.23	0.27	0.32	0.32	0.27	0.26	0.35	0.33	0.27	0.26	0.34	0.3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 4. 소결: 한·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 가. 한·중 교역의 특수성

한·중 간 교역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후에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둘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sup>26)</sup> 이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 간 분업과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고, 특히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한·중 양국간의 보완 및 경합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업종에서 한·중 간에 상호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를 기준으로 양국의 민감 품목, 일반인하 품목, 우선인하 품목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해당 업종에서 한·중 간에 경합적인지, 비(非)경합적인지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양국간의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SI가 0.5 이상인 경우 경

26)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수출하는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의 거래대상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복수응답허용 응답수 439개)의 45.6%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또는 한국계기업이 주 고객이며, 42.8%는 중국계 기업이, 11.6%는 중국 내 제3국의 외자기업이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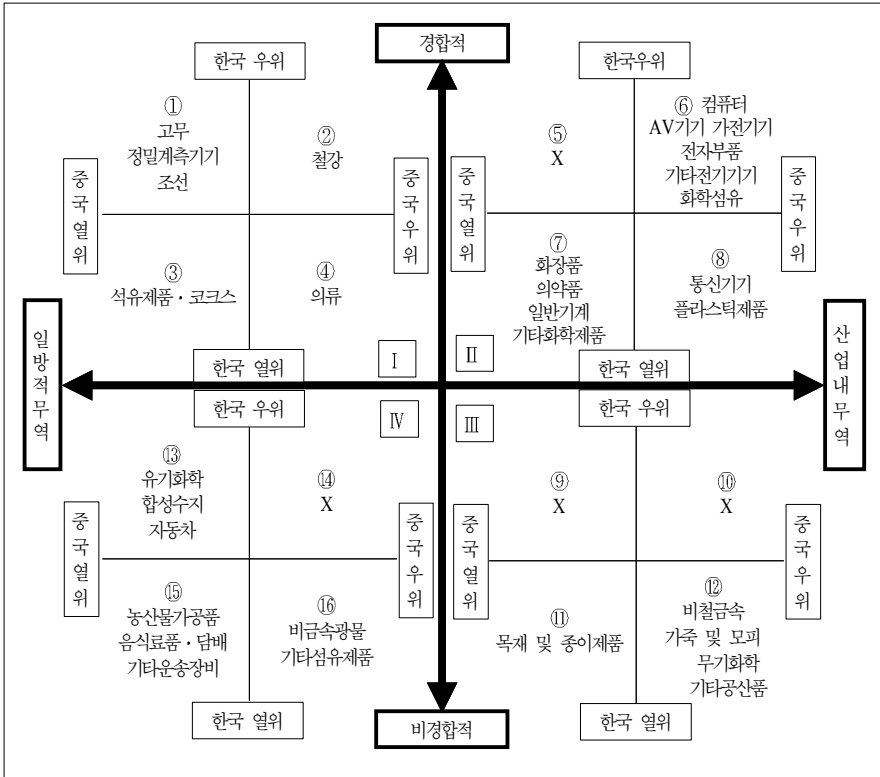
합적인 업종으로 구분하고, 0.5 이하인 경우 비경합적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업종에서 한·중 간에 보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내무역지수(IIT)를 이용하여 IIT가 0.3 이상(한·중 간의 제조업 평균치인)인 경우 산업내무역으로, 0.3 미만인 경우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국간의 경쟁 관계에 있어 RCA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이 비교우위인 업종과 비교열위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RCA지수가 1이상인 경우 비교우위 업종으로, 1 미만인 경우 비교열위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보완 및 경합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업종에서 한·중 간에 상호 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3]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과 보완관계를 기준으로 총 1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에 따라 한·중 FTA 추진시 시장보호요구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양국간의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Ⅱ사분면, Ⅲ사분면)에서는 경쟁관계에 관계없이 시장보호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완적·비경쟁적 품목(Ⅲ사분면) 중에서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양국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 시장보호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중 일방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국가로부터의 시장보호요구가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무역관계가 강하고, 양국간 경쟁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에 대해서 우선 관세인하를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무역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에서 한국은 모두 비교열위에 있으나, 중국은 비교우위에 있어, FTA로 무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 한·중 간 경쟁·보완 관계 구조



자료: [표 3-2]를 기준으로 작성.

셋째, 양국간 무역이 일방적 무역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시장보호 요구가 경쟁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쌍무적 FTA에 있어 시장보호요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방적 무역·경쟁적 품목(I사분면) 중에서 양국이 모두 일방이 비교열위인 품목(①과 ④), 일방적 무역·비경쟁적 품목(IV사분면) 중에서 일방이 비교열위인 품목(⑬과 ⑯)에 대해서는 시장보호 요구 강도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중 FTA 추진시 시장보호 예상

강도를 정리하면 [표 3-21]과 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류, 비금속광물, 기타 섬유제품에서 국내시장의 보호요구 강도가 강한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무제품, 정밀계측기기, 조선,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업종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1. FTA시 경쟁·보완 패턴과 시장보호요구 예상 강도

분업관계	기 준		영역	보호요구 예상강도	해당 업종
	경쟁관계	우위관계			
산업내 무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10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11	소	목재 및 종이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9(한국)	중	없음
	12(중국)		중	비철금속,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 기타공산품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6	소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화학섬유
		양국 모두 비교열위	7	소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5(한국)	중	없음	
	8(중국)	중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일방적 무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2	소	철강
		양국 모두 비교열위	3	소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일방이 비교우위	1(한국)	대	고무, 정밀계측기기, 조선
	4(중국)		대	의류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14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15	소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기타운송장비
일방이 비교우위		13(한국)	대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16(중국)	대	비금속광물, 기타섬유제품		

주: ( ) 안의 국가는 비교우위 유지 국가.

자료: 필자 작성.

표 3-22. 한·중 간 업종별 경쟁 및 보완 관련지수

업종	ESI(2006)	TSI(2006)		RCA(2005)		IIT(2006)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전산업	0.45	0.03	0.10	1.00	1.00	0.29
농수산업	0.40	-0.66	-0.12	0.16	0.49	0.09
농산물	0.34	-0.88	-0.46	0.07	0.42	0.05
수산물	0.56	-0.51	0.20	0.56	1.09	0.16
농산물가공품	0.44	-0.82	0.00	0.05	0.42	0.06
음식료품·담배	0.40	-0.22	0.57	0.29	0.48	0.09
광산물	0.23	-0.95	-0.58	0.08	0.91	0.02
제조업	0.45	0.07	0.13	1.12	1.08	0.30
섬유 및 의류	0.35	0.25	0.76	1.02	3.08	0.23
섬유직물	0.51	0.48	0.39	2.00	2.37	0.36
화학섬유	0.64	0.47	0.29	2.47	2.13	0.36
의류	0.59	-0.28	0.96	0.34	3.54	0.06
기타 섬유제품	0.38	0.07	0.94	0.47	3.55	0.21
화학	0.39	-0.32	-0.41	0.73	0.37	0.20
석유제품 및 코크스	0.67	-0.59	-0.77	0.54	0.13	0.14
무기화학	0.47	-0.49	0.40	0.49	1.63	0.36
유기화학	0.29	0.19	-0.39	1.48	0.52	0.20
의약품	0.55	-0.62	-0.14	0.07	0.18	0.46
화장품	0.75	-0.42	0.56	0.24	0.30	0.67
합성수지	0.48	0.76	-0.76	2.55	0.20	0.06
플라스틱제품	0.53	0.01	0.11	0.76	1.02	0.36
고무	0.76	0.55	0.15	1.47	0.81	0.27
기타 화학제품	0.54	-0.40	-0.18	0.44	0.56	0.37
철강금속	0.50	-0.09	0.18	1.10	1.00	0.32
비철금속	0.45	-0.22	0.01	0.74	1.01	0.40
철강	0.55	-0.01	0.32	1.35	1.00	0.26
기계산업	0.56	0.02	-0.21	0.84	0.68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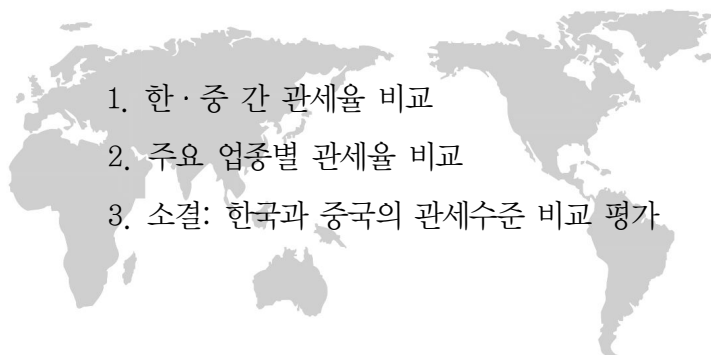
표 3-22. 계속

업 종	ESI(2006)	TSI(2006)		RCA(2005)		IIT(2006)
		한 국	중 국	한 국	중 국	
일반기계	0.57	-0.07	-0.16	0.70	0.55	0.40
정밀계측기기	0.59	0.12	-0.28	1.11	0.94	0.16
전기전자	0.63	0.27	0.18	1.81	1.93	0.40
가전기기	0.62	0.49	0.79	1.44	2.51	0.51
기타 전기기기	0.53	0.13	0.09	1.15	1.21	0.56
컴퓨터	0.75	0.38	0.53	1.28	2.91	0.45
통신기기	0.69	0.03	0.51	0.69	1.67	0.56
AV기기	0.74	0.68	0.71	2.82	2.54	0.55
전자부품	0.71	0.14	-0.36	2.13	1.11	0.35
운송장비	0.43	0.76	0.13	1.70	0.33	0.24
자동차	0.40	0.79	-0.13	1.52	0.13	0.27
조선	0.91	0.91	0.88	8.71	0.89	0.23
기타운송장비	0.32	-0.49	0.16	0.11	0.94	0.06
기타 제조업	0.33	-0.26	0.61	0.33	1.53	0.30
가죽 및 모피	0.25	-0.13	0.54	0.57	3.32	0.38
목재 및 종이제품	0.33	-0.27	0.08	0.31	0.58	0.31
비금속광물제품	0.39	-0.49	0.59	0.43	1.58	0.23
기타공산품	0.36	-0.18	0.82	0.28	1.88	0.3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이용하여 분석함.

## 제4장

#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각국의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양국의 명목관세율 분석에 있어 명목관세율, 각국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과 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한·중 간 교역이 중간재 중심, 가공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sup>27)</sup>을 별도로 추산하였다.

## 1. 한·중 간 관세율 비교

###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sup>28)</sup>

2006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중국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로 한국(11.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세계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도 중국은 4.62%로 한국(6.06%)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HS 1~24 기준)의 경우 중국은 단순평균 관세율 14.5%로 한국(4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에서도 중국은 9.3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1.0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HS 25~97 기준)의 경우 중국

27) 중국은 가공무역용 수입, 투자용 설비 수입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관세율은 단순 평균 관세율에 해당품목의 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실질관세율 =  $Ti^* (GMik/Mik)$ ,  $Ti$ 는 중국의 명목관세율,  $GMik$ 는  $i$ 제품의 대한국 일반무역 수입액,  $Mik$ 는  $i$ 제품의 대한국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28) 중국의 경우 HS 8단위 기준 MFN 실행(MFN applied) 관세율로서 중국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HS 10단위를 기준 MFN 실행관세율로서 WTO/IDB 자료를 이용하였다. 쿼터 대상품목의 경우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은 단순평균 관세율은 9.0%로 한국(6.7%)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 평균 관세율도 4.56%로 한국(4.0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 한·중 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중 국			한 국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체	9.8	4.62	4.54	11.9	6.06	7.29
농산물 (HS 1~24)	14.5	9.35	24.59	41.5	51.06	52.54
광산물 (HS 25~26)	2.9	0.55	2.34	2.8	1.18	2.19
공산품 (HS 27~97)	9.0	4.56	4.49	6.7	4.08	4.62
대상품목 수	7,550개 품목(HS 8단위 기준)			11,26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주: 단순평균은 기본단위(한국은 HS 10단위, 중국은 8단위) 기준이며, 가중 평균은 각국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계산함.

자료: WTO/IDB,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함.

한·중 간의 교역구조를 반영한 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4.54%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7.29%)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24.59%인 반면,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52.54%에 달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4.49%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4.62%)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교역에 있어 한국은 중국에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관세율이 높은 일차상품과 소비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한·중 교역에 있어 중국보다도 한국에서 관세에 의한 수입시장 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나. 관세율별 구성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분포를 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무관세품목 비중이 높고, 한국의 관세율은 5~10%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5~15%에 집중되어 있다. 5% 미만(무관세 품목 포함)의 저관세 품목 비중에서 한국은 19.6%, 중국은 18.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관세 품목 비중에서는 한국은 14.0%로 중국(9.1%)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율은 5~10%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63.1%, 무관세 품목이 14.0%, 10~15% 품목이 8.6%, 5% 미만 품목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5~10% 품목이 34.6%, 10~15% 품목이 27.9%, 무관세 품목과 5% 미만 품목이 각각 9.1%를 차지하고 있다. 3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2.2%로 한국(3.3%)에 비해 작은 편이다.

표 4-2. 중국과 한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단위: 품목, %)

구 분	중 국				한 국 (2006년)	구 성(2006년)	
	2005년	2006년 1월	2006년 7월	2007년		중 국	한 국
무관세 품목	687	687	687	687	1,575	9.1	14.0
5% 미만	688	688	688	688	630	9.1	5.6
5%이상 10%미만	2,596	2,610	2,610	2,613	7,108	34.6	63.1
10%이상 15%미만	2,100	2,106	2,108	2,105	971	27.9	8.6
15%이상 20%미만	690	674	672	672	101	8.9	0.9
20%이상 30%미만	593	620	620	620	463	8.2	4.1
30%이상 50%미만	161	131	131	131	264	1.7	2.3
50% 이상	35	34	34	34	149	0.5	1.3
합 계	7,550	7,550	7,550	7,550	11,261	100.0	100.0

주: 중국의 경우 HS 8단위 기준 MFN 실행(MFN applied) 관세율로서 중국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HS 10단위를 기준 MFN 실행관세율로서 WTO/IDB 자료를 이용함.

자료: WTO/IDB 및 『中華人民共和國 海關 進出口 稅則』를 이용하여 작성함.

##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가공단계별로 경시관세(tariff escalation)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부품에 대해 7.7%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재에 대해서는 15%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sup>29)</sup> 이는 한·중 FTA 추진 시 관세인하에 있어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단, 한국의 경우에도 소비재에 대해 중국보다 높은 19.62%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중평균 관세율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반제품, 자본재, 소비재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을 상회하고, 일차상품과 부품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을 상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간재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4.21%로 한국의 대중 관세율(4.4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반제품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6.87%)이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5.17%)보다 높은 수준이나, 부품과 부분품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3.11%)이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1.6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최종재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5.75%로 한국의 대중 관세율(7.3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본재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4.62%)이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

29) 가공단계별로 중국의 관세율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일차상품, 반제품, 소비재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품과 자본재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18%)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비재에서도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15.75%)이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11.8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3.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구 분	중 국			한 국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체	9.7	4.62	4.54	11.9	6.06	7.29
일차상품	8.4(6.7)	3.45(1.18)	3.87(3.63)	26.2	9.78	35.07
중 간 재	8.0	4.42	4.21	8.5	3.84	4.42
반 제 품	8.1	6.57	6.87	8.9	4.25	5.17
부품 및 부분품	7.7	2.37	1.68	5.9	3.03	3.11
최종재	12.3	5.85	5.75	14.3	7.25	7.38
자본재	8.0	4.32	4.62	5.9	3.94	3.18
소비재	15.0	13.18	15.75	19.6	13.06	11.87

주: 양국의 세관 기본코드(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의 MFN 실행세율을 기초로 산술평균함.  
 자료: WTO/IDB 및 『中華人民共和國 海關 進出口 稅則』,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 계산.

## 2. 주요 업종별<sup>30)</sup> 관세율 비교

### 가. 자동차<sup>31)</sup>

#### 1) 명목관세율 비교

한국과 중국 모두 자동차산업의 관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관세화가

30) 산업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범위를 감안하여 농수산업, 제조업은 석유 및 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철강 및 동 제품,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비철금속, 고무, 화장품, 종이 및 판지 등 10개 산업으로 분류함.

31) 자동차산업은 HS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09, 8716을 대상으로 분석함.

이루어질 경우 교역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단순평균관세율(이하 관세율로 함)은 8.1%로 한국의 제조업(hs 27~97 평균, 이하 동일) 평균관세율(6.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관세율도 7.9%로 제조업 평균(4.0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동차산업의 관세율은 13.8%로 제조업 평균치 9.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관세율도 16.1%로 제조업 평균치(4.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중 평균치가 높은 것은 중국의 완성차 관세율이 2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보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14.1%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4-4.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합계 (개)	관세율 범위	평균관세율
중 국	0	3	29	87	6	51	176	3~25	13.8 (16.1/14.1)
(구성, %)	0.0	1.7	16.5	49.4	3.4	29.0	100.0		
한 국	4	0	134	27	0	0	165	0~10	8.1 (8.1/8.0)
(구성, %)	2.4	0.0	81.2	16.4	0.0	0.0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 안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 2) 무역구조를 감안한 중국의 대한민국 실질관세율 추정

중국 자동차분야의 대한민국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의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일반무역이 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무역용 수입은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28.4%는 보세무역 또는 중계무역용 수입으로서 역시 수입관세 면세 대상이다.<sup>32)</sup> 가공무역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관

세율은 10.1%로 자동차의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대부분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중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와 동반진출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향한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S4 단위를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 평균 관세율은 10.1%로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승합차(HS 8702) 22%, 승용차(HS 8703) 25%, 화물자동차(HS 9704) 17%, 엔진을 갖춘 사시(HS 8706)는 12.8%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부품(HS 8708)의 경우 명목 관세율은 10%이나,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 관세율은 6.8%로 한국(8%)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5.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

HS 코드	품 목	대한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			한국 관세율
		가공 무역	일반 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8701	트랙터	0.0	0.0	7.5	4.2	0.0	4.6
8702	10인 이상 승합차	0.0	100.0	22.0	20.8	22.0	10.0
8703	승용차	0.0	99.5	25.0	24.3	24.9	8.0
8704	화물자동차	6.5	93.5	18.2	17.1	17.0	9.6
8705	특수용도 차량	0.0	34.7	10.9	9.5	3.8	8.0
8706	엔진을 갖춘 사시	1.3	98.7	13.0	10.9	12.8	8.0
8707	차체	0.0	99.0	10.0	9.5	9.9	8.0
8708	부품(8701~8705용)	3.8	67.6	10.0	6.2	6.8	8.0
8709	하역용 운반차량	0.0	32.0	9.9	5.1	3.2	8.0
8716	트레일러 및 기타차량	72.6	6.8	10.0	1.1	0.7	8.0
전 체		8.4	63.2	13.8	10.9	10.1	8.0

32)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자동차부품(HS 8708 기준) 수입을 살펴보면 전체 15.36억 달러 중에서 일반무역이 10.38억 달러로 67.6%, 가공무역용 수입이 5,780만 달러, 보세구의 중계무역용 수입이 1,137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 나. 철강

### 1) 명목관세율 비교

철강산업에서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7.29%로 제조업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2.3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경우 전체 철강품목(HS 8단위 기준 359개 품목) 중 67.7%가 10%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을 감안한 대한국 가중평균관세율도 6.05%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이 5.48%에 이르고 있어, 한·중 FTA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러시아,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철강제품(HS 10단위 기준 407개) 중 64.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역액을 감안한 대세계 및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도 각각 1.15%와 1.1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한국과 중국의 철강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 계 (개)	관세율 범위	평 균
중 국 (구성, %)	4	112	136	80	6	20	1	359	0~30	7.29 (5.48/6.05)
	1.1	31.2	37.9	22.3	1.7	5.6	0.3	100.0		
한 국 (구성, %)	264	23	120	0	0	0	0	407	0~8	2.38 (1.15/1.12)
	64.9	5.7	29.5	0.0	0.0	0.0	0.0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 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품목별로는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과 철강제품에 있어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한국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8.18%, 대한민국 가중평균관세율은 7.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평균관세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중평균관세율도 7.62%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4%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 및 비합금강과 기타 합금강 및 봉의 경우 한국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각각 5.54%와 3.70%를 유지하고 있어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소폭이나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철강 일차재료의 경우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산의 대한민국 경쟁력이 오히려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7.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철강제품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중 국			한 국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세계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철강산업 평균	7.29	5.48	6.05	2.38	1.15	1.12
철강 일차재료	2.09	0.78	0.38	3.41	2.01	3.67
철강 및 비합금강	5.30	5.56	5.54	0.00	0.00	0.00
스테인레스강	8.18	7.91	7.52	0.00	0.00	0.00
기타 합금강 및 봉	4.37	3.84	3.70	0.00	0.00	0.00
철강제품	10.02	6.82	7.62	4.29	4.57	4.53

주: ( ) 안은 쿼터대상품목의 경우 쿼터내 관세율 적용시 관세율임.  
 자료: WTO/IDB,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 계산.

## 2) 무역구조를 감안한 대한국 실질관세율 추정

그러나 철강산업에서 한·중 간 교역구조를 감안할 경우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산업에서 한·중 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내수용보다는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철강산업 수입액 중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일반무역 수입은 39.9%, 가공무역용 수입이 5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여 중국의 대한국 실질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을 추정하여 보면 우리의 대중국 수입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 역시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일반무역 수입액을 가중치로 평가한 중국의 대한국 철강산업 가중평균관세율은 2.91%로, 무역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6.05%)보다 3.54%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2.38%)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4-8. 중국의 대한국 철강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

품 목	대한국 수입 구성		대한국 관세율		한국의 관세율
	가공무역	일반무역	명목	실질	
일차재료	3.3	96.7	2.09	2.02	3.41
철과 비합금강	55.5	41.8	5.30	2.22	0.00
스테인레스강	66.5	30.0	8.18	2.45	0.00
기타 합금강 및 봉	33.6	60.1	4.37	2.63	0.00
철강제품	49.1	42.3	10.02	4.24	4.29
합계	56.0	39.9	7.29	2.91	2.38

### 3) 비철금속 관세율

비철금속산업에서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6.27%로 제조업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6.6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상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철금속(HS 10단위 기준 304개 품목) 전체가 10% 미만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품목의 13.4%에 해당하는 품목이 1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관세율은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인 4.48%로 한·중 FTA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러시아,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9. 한국과 중국의 비철금속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 계 (개)	관세율 범위	평균
한국 (구성, %)	10	36	258	-	-	-	-	304	0~8	6.27 (3.89/4.48)
	3.3	11.8	84.9	-	-	-	-	100.0		
중국 (구성, %)	-	75	129	15	11	4	1	235	1~30	6.61 (3.74/4.69)
	-	31.9	54.9	6.4	4.7	1.7	0.4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그러나 비철금속의 대중국 수출 구성에 있어 가공무역이 57.2%, 일반무역이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비철금속 산업에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무관세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다. 섬유 및 의류

### 1) 명목관세율 비교

섬유산업에서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산업의 단순평균관세율은 중국이 11.70%로 한국(9.9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는 한국이 10.49%로 중국(9.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국 수입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11.19%로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 9.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섬유산업에서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0.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계	관세율 범위	평균
중 국	0	1	218	603	229	31	4	1,086	3~40	11.70 (9.12/9.55)
(구성, %)	0.0	0.1	20.1	55.5	21.1	2.9	0.4	100.0		
한 국	4	24	529	735	0	0	0	1,292	0~13	9.96 (10.49/11.19)
(구성, %)	0.3	1.9	40.9	56.9	0.0	0.0	0.0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 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중국의 경우 전체 섬유 및 의류품목(HS 8단위 기준 1,086개 품목) 중 79.8%가 1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한·중 FTA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섬유 및 의류품목(HS 10단

위 기준 1,292개) 중 97.8% 품목에 대해 5~1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입증가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양국이 모두 1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의류, 편직물, 섬유제품의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단순평균 관세율이 각각 12.71%와 15.9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편직물은 양국이 모두 10% 내외의 관세율을, 섬유제품의 경우에도 각각 10.44%와 14.46%를 유지하고 있다. 섬유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화학섬유의 경우에도 양국이 모두 8%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경쟁국(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1. 한국과 중국의 섬유·의류 업종의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업종	수입액 (백만 달러)			관세율 (%)			
		대세계	대한민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금액	구성(%)		점유율(%)	대세계	대한민국			
중국	섬유직물	8,269	1,008	36.7	12.2	9.37	9.01	10.08
	편직물	2,153	482	17.5	22.4	10.20	10.03	10.02
	화학섬유	6,624	1,077	39.2	16.3	8.16	7.32	8.04
	의류	1,585	109	4.0	6.9	15.99	15.44	15.58
	기타 섬유제품	548	71	2.6	13.0	14.46	10.80	12.66
	섬유의류 전체	19,180	2,747	100.0	14.3	11.70	9.12	9.55
한국		대세계	대중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금액	구성(%)	점유율(%)	대세계		대중국	
	섬유직물	2,128	992	20.6	46.6	8.76	8.68	8.79
	편직물	84	29	0.6	34.7	10.00	10.00	10.00
	화학섬유	1,470	590	12.3	40.1	8.69	7.99	8.45
	의류	3,493	2,785	57.9	79.7	12.71	12.86	12.89
기타 섬유제품	656	413	8.6	63.0	10.44	9.35	9.49	
섬유의류 전체	7,831	4,809	100.0	61.4	9.96	10.49	11.19	

자료: WTO/IDB,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여 KIEP 계산.

## 2) 무역구조를 감안한 대한국 실질관세율 추정

섬유 및 의류의 경우 대표적인 가공무역 업종으로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경우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섬유 및 의류 수입액은 27.54억 달러이며, 이 중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이 23.36억 달러로 전체 섬유류 수입의 84.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수출되는 일반무역액은 13.9%에 불과한데, 이는 현재 우리의 대중국 섬유류 수출이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감안하여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류(실질관세율 7.15%)와 기타 섬유제품(동 4.66%)을 제외하면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일반무역 수입액을 가중치로 평가한 중국의 대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대한국 가중실질관세율은 1.63%로, 무역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9.55%)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표 4-12. 중국의 대한국 섬유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

구 분	대한국 수입 구성		대한국 수입관세율			한국 관세율
	가공무역	일반무역	명목	가중평균	실질	
섬유직물	88.3	10.9	9.37	10.08	1.02	8.79
편직물	98.6	2.3	10.20	10.02	0.24	10.00
화학섬유	80.7	17.5	8.16	8.04	1.43	8.45
의 류	51.0	44.7	15.99	15.58	7.15	12.89
기타 섬유제품	66.0	32.3	14.46	12.66	4.66	9.49
섬유의류	84.8	13.9	11.70	9.55	1.63	11.19

## 라. 전기전자

### 1) 명목관세율 비교

중국의 전기전자 업종 단순평균관세율은 8.80%로 한국(5.38%)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전분야 수입이 주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73%로 한국(2.12%)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1.16%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수입관세율(2.76%)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3. 중국과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계 (개)	관세율 범위	관세율
중 국 (구성, %)	203	9	108	150	47	41	41	599	0~35	8.80 (1.73/1.16)
	33.9	1.5	18.0	25.0	7.8	6.8	6.8	100.0		
한 국 (구성, %)	271	11	566	2	0	0	0	850	0~13	5.38 (2.12/2.76)
	31.9	1.3	66.6	0.2	0.0	0.0	0.0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 안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품목별로는 양국 모두 컴퓨터와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해서는 ITA 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31.9%의 품목에 대해, 중국은 3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35%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전기기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은 15.76%로 한국(7.38%)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가중평균관세율도 9.16%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7.0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전 완제품에 대해 최고 35%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은 4.97%로 한국(5.16%)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도 1.57%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3.44%)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 4-14. 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 업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업 종	수입액(백만 달러)				관세율(%)		
	대세계 (A)	대한민국			단순 평균	가중평균	
		금액(B)	구성(%)	점유율 (%)		대세계	대한민국
전기전자 전체	257,631	35,445	100.0	13.8	8.80	1.73	1.16
가전기기	14,151	1,201	3.4	8.5	15.76	11.72	9.16
중국	냉장고	1,031	83	0.2	8.0	14.52	10.23
	세탁기	597	70	0.2	11.8	15.05	12.24
	에어컨	542	59	0.2	10.9	15.00	12.78
	AV기기	9,266	709	2.0	7.7	17.12	12.22
	조명기구	1,832	294	0.8	16.0	11.54	8.81
	기타 가전	1,425	45	0.1	3.2	18.00	13.04
	기타 전기제품 및 부품	20,521	2,061	5.8	10.0	8.33	7.90
컴퓨터	37,860	3,409	9.6	9.0	0.00	0.00	
통신기기	8,616	1,035	2.9	12.0	1.14	0.41	
전자부품	170,528	27,429	77.4	16.1	4.09	0.65	
반도체	120,354	19,817	55.9	16.5	0.00	0.00	
전자부품(반도체 제외)	50,174	7,612	21.5	15.2	4.97	2.22	
기타 전자제품	5,954	310	0.9	5.2	3.82	0.71	

표 4-14. 계속

업 종	수입액(백만 달러)				관세율(%)			
	대세계 (A)	대한국			단순 평균	가중평균		
		금액(B)	구성(%)	점유율 (%)		대세계	대한국	
전기전자 전체	61,027	17,482	100.0	28.6	5.38	2.12	2.76	
가전기기	5,730	2,061	11.8	36.0	7.38	5.53	7.05	
냉장고	154	32	0.2	20.5	8.00	8.00	8.00	
세탁기	41	18	0.1	43.0	8.00	8.00	8.00	
에어컨	265	121	0.7	45.9	8.00	8.00	8.00	
AV기기	3,541	1,281	7.3	36.2	6.68	4.02	6.48	
조명기구	1,121	277	1.6	24.7	7.90	7.97	8.00	
기타 가전	609	333	1.9	54.7	8.00	8.00	8.00	
기타 전기제품 및 부품	6,228	2,728	15.6	43.8	6.38	5.44	4.86	
컴퓨터	7,647	4,231	24.2	55.3	0.00	0.00	0.00	
통신기기	3,047	967	5.5	31.7	2.26	1.18	0.65	
전자부품	33,390	5,358	30.6	16.0	3.98	0.99	1.76	
반도체	24,476	2,623	15.0	10.7	0.00	0.00	0.00	
전자부품(반도체 제외)	8,915	2,735	15.6	30.7	5.16	3.70	3.44	
기타 전자제품	4,986	2,136	12.2	42.8	5.74	3.64	2.10	

주: 점유율은 각국의 수입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 2) 무역구조를 감안한 대한국 실질관세율 추정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대부분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중국의 대한국 전기전자산업 수입액(356억 달러) 중에서 가공무역용 수입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용인 일반무역 수입액은 45억 달러로 12.8%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는 일반무역

의 비중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은 1.12%에 불과하며, 일반무역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중국의 대한국 전기전자산업의 대한국 실질가중 평균 관세율은 0.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중국의 대한국 전기전자산업 실질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

업 종	무역구성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			대중 가중평균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가중평균	실질		
전기전자 전체	70.6	12.8	8.80	1.16	1.12	2.76	
가전 기기	전기기 전체	50.3	38.2	15.76	9.16	6.02	7.05
	냉장고	12.7	68.3	14.52	10.23	9.92	8.00
	세탁기	46.7	50.8	15.05	10.73	7.65	8.00
	에어컨	8.1	75.7	15.00	11.61	11.35	8.00
	AV기기	46.3	41.2	17.12	8.96	7.05	6.48
	조명기구	95.0	3.4	11.54	8.51	0.39	8.00
기타 가전기기	71.4	16.5	18.00	12.10	2.97	8.00	
기타 전기제품 및 부품	61.9	23.1	8.33	8.62	1.92	4.86	
컴퓨터	47.2	3.9	0.00	0.00	0.00	0.00	
통신기기	74.3	15.8	1.14	0.19	0.18	0.65	
전자 부품	전체	75.5	11.3	4.09	0.44	0.46	1.76
	반도체	79.2	10.7	0.00	0.00	0.00	0.00
	기타 전자부품	66.4	12.9	4.97	1.57	0.64	3.44
기타 전자제품	3.7	86.8	3.82	0.52	3.32	2.10	

## 마. 기계

### 1) 명목관세율 비교

기계산업에서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산업의 단순평균관세율은 중국이

8.32%로 한국(6.19%)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중 평균 관세율에 있어서는 각각 5.73%와 5.69%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국 수입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6.99%로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 5.3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기계류 대중국 수출 중 중국이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투자용 설비 수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16. 기계산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계 (개)	관세율 범위	관세율
중 국 (구성, %)	99	92	442	326	78	32	2	1,071	0~35	8.32 (5.73/5.35)
	9.2	8.6	41.3	30.4	7.3	3.0	0.2	100.0		
한 국 (구성, %)	323	23	1,228	1	0	0	0	1,575	0~13	6.19 (5.69/6.99)
	20.5	1.5	78.0	0.1	0.0	0.0	0.0	100.0		

주: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 안은 전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단순평균 관세율에 있어서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교역액을 감안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는 건설광산기계, 섬유기계, 운반하역기계, 시계 업종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 및 펌프, 성형압연기기, 광학기기, 시험계측기기, 의료기기 업종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7. 한국과 중국의 기계업종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업종	중국 수입(2006, 달러)				중국 관세율(2006)		
	대세계	대한국 수입			단순 평균	가중평균	
		수입액	구성 (%)	점유율 (%)		대세계	대한국
기계산업 전체	126,522	17,093	100.0	13.5	8.32	5.73	5.35
일반기계	66,841	4,801	28.1	7.2	7.92	6.04	5.65
원동기 및 펌프	13,420	1,085	6.3	8.1	7.35	6.81	6.96
건설광산기계	3,054	471	2.8	15.4	5.92	6.34	6.26
금속공작기계	8,596	619	3.6	7.2	9.22	7.63	7.75
성형압연설비	4,312	278	1.6	6.4	8.58	5.66	4.57
섬유기계	4,543	203	1.2	4.5	9.34	9.07	9.71
운반하역기계	2,453	150	0.9	6.1	7.26	6.29	5.77
기타 기계	30,464	1,997	11.7	6.6	7.69	4.81	3.87
정밀·계측·의료기기	59,681	12,292	71.9	20.6	9.36	5.39	5.23
광학기기	44,640	11,566	67.7	25.9	10.71	5.64	5.23
시험계측기기	10,879	648	3.8	6.0	6.27	3.81	5.24
의료기기	3,102	71	0.4	2.3	4.76	4.49	5.53
시계	1,060	6	0.0	0.6	15.56	13.48	11.59
기계산업 전체	37,907	2,708	100.0	7.1	6.19	5.69	6.99
일반기계	23,694	1,545	57.1	6.5	6.16	6.06	6.69
원동기 및 펌프	5,565	330	12.2	5.9	6.99	7.49	7.98
건설광산기계	507	133	4.9	26.2	0.19	0.80	1.27
금속공작기계	3,493	61	2.3	1.7	7.17	4.70	7.90
성형압연기계	709	36	1.3	5.1	8.00	8.00	8.00
섬유기계	336	55	2.0	16.4	7.42	7.29	7.88
운반하역기계	1,051	131	4.8	12.5	1.23	0.45	0.39
기타 기계	12,032	799	29.5	6.6	6.18	6.35	7.86
정밀·계측·의료기기	14,213	1,163	42.9	8.2	6.23	5.07	7.39
광학기기	6,209	848	31.3	13.7	6.65	5.22	7.74
시험계측기기	5,915	178	6.6	3.0	5.41	4.47	6.38
의료기기	1,867	69	2.6	3.7	6.16	6.11	5.21
시계	222	67	2.5	30.4	7.82	7.83	7.91

## 2)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추정

기계산업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계 기업의 투자용 설비로서 수출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중국 기계류 수출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에 불과하며, 이 중 일반기계의 경우 일반무역 비중이 45.1%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가공무역이 6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8. 중국의 대한국 기계산업의 무역방식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무역방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중(%)
기계 산업 전체	총수입	2,043	3,283	7,985	13,781	15,960	17,195	100.0
	가공무역	284	981	3,252	7,006	9,091	8,276	48.1
	내료가공	22	69	306	927	2,012	2,895	16.8
	진료가공	263	912	2,946	6,079	7,079	5,381	31.3
	일반무역	688	906	1,755	2,464	2,875	3,799	22.1
	기타무역	1,070	1,396	2,978	4,311	3,994	5,120	29.8
일반 기계	총수입	1,615	2,000	3,264	4,586	4,570	4,898	100.0
	가공무역	144	206	249	371	385	543	11.1
	내료가공	10	9	9	16	25	26	0.5
	진료가공	134	197	240	355	360	516	10.5
	일반무역	570	753	1,443	1,947	1,979	2,241	45.8
	기타무역	901	1,042	1,571	2,269	2,206	2,114	43.2
정밀· 광학· 의료기기	총수입	428	1,283	4,722	9,195	11,390	12,297	100.0
	가공무역	140	776	3,003	6,636	8,706	7,734	62.9
	내료가공	11	60	296	911	1,987	2,869	23.3
	진료가공	129	716	2,706	5,724	6,719	4,865	39.6
	일반무역	118	153	312	517	896	1,558	12.7
	기타무역	170	355	1,407	2,042	1,787	3,005	24.4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감안한 기계산업에서 대한민국 실질관세율은 1.84%로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6.19%)의 1/3에도 미치지 않으며, 건설광산기계와 시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낮은 실질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66.5%에 달하는 광학기기의 경우 대한민국 실질관세율은 1.09%로 한국 관세율(6.65%)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중국의 기계산업 업종별 수입구조와 실질관세율 추정(2006년 기준)

업종	대한민국 수입구성(%)		중국 관세율			한국 단순평균 관세율
	일반 무역	가공 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기계산업 전체	22.09	48.13	8.32	2.84	1.84	6.19
일반기계	45.76	11.08	7.92	3.84	3.62	6.16
원동기 및 펌프	60.57	30.22	7.35	4.66	4.45	6.99
건설광산기계	77.91	3.98	5.92	3.40	4.61	0.19
금속공작기계	19.11	0.30	9.22	2.64	1.76	7.17
성형압연기계	41.43	0.04	8.58	3.58	3.56	8.00
섬유기계	52.55	1.92	9.34	4.92	4.91	7.42
운반하역기계	19.09	6.85	7.26	2.94	1.39	1.23
기타 기계	37.47	7.44	7.69	3.46	2.88	6.18
정밀·광학·의료기기	12.67	62.89	9.36	1.66	1.19	6.23
광학기기	10.16	66.52	10.71	0.77	1.09	6.65
시협계측기기	49.53	5.59	6.27	2.96	3.11	5.41
의료기기	79.21	3.73	4.76	2.94	3.77	6.16
시계	54.61	11.56	15.56	3.15	8.50	7.82

## 바. 석유화학

### 1) 명목관세율 비교

중국의 석유화학 업종 단순평균 관세율은 6.95%로 한국(6.13%)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4.65%로 한국(4.44%)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6.95%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수입관세율(5.69%)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20. 중국과 한국 석유화학 업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 이상	합계 (개)	관세율 범위 <sup>2)</sup>	관세율
중 국 (구성, %)	51 3.4	174 11.7	1,010 67.9	169 11.4	41 2.8	38 2.6	2 0.1	3 0.2	1,488 100.0	0~50	6.95 (4.65/6.95)
한 국 (구성, %)	195 7.1	27 1.0	2,499 91.2	1 0.0	0 0.0	6 0.2	4 0.1	9 0.3	2,741 100.0	0~50	6.13 (4.44/5.69)

주: 1)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 기준임. ( )은 가중평균 관세율/상대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임.

2) 한국의 관세율 중 시장접근불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은 350510의 경우 385.7%, 350510의 경우 201.2%, 3301905420은 754.3%임.

단순평균 관세율에서는 석유제품 및 코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국의 교역액을 감안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도 유기화학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1.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 업종의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업종	중국 수입(2006, 백만 달러)			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수입액	구성(%)		점유율	대세계	대한민국
주 요 업 종	석유화학 전체	185,814	22,079	100.0	11.9	6.95	4.65	6.95
	석유제품 및 코크스	87,169	5,819	26.4	6.7	5.91	1.54	7.13
	무기화학	6,265	307	1.4	4.9	5.50	6.53	5.13
	유기화학	18,088	4,379	19.8	24.2	5.79	4.52	3.39
	합섬원료	11,264	2,993	13.6	26.6	6.40	7.51	8.17
	의약품	3,110	43	0.2	1.4	4.73	4.53	5.41
	농약 및 비료	2,697	5	0.0	0.2	8.48	18.65	6.51
	화장품	336	19	0.1	5.7	11.09	11.89	12.14
	합성수지	22,631	4,732	21.4	20.9	8.37	8.17	8.45
	플라스틱제품	14,536	1,845	8.4	12.7	8.47	8.12	8.21
	고무	5,418	698	3.2	12.9	11.21	8.80	8.68
	기타 화학제품	14,299	1,238	5.6	8.7	8.46	7.22	7.50
	한 국	석유화학 전체	112,051	4,578	100.0	4.1	6.13	4.44
석유제품 및 코크스		81,384	914	20.0	1.1	5.73	4.02	3.59
무기화학		2,803	723	15.8	25.8	5.25	4.17	5.56
유기화학		7,718	1,068	23.3	13.8	5.76	4.63	5.52
합섬원료		771	52	1.1	6.8	6.06	5.87	6.46
의약품		2,867	154	3.4	5.4	5.01	5.74	5.33
농약 및 비료		467	83	1.8	17.8	5.93	5.16	6.49
화장품		737	14	0.3	1.9	7.91	7.96	7.81
합성수지		1,453	150	3.3	10.3	6.60	6.52	6.57
플라스틱제품		4,636	581	12.7	12.5	6.81	6.87	7.31
고무		1,142	188	4.1	16.4	7.61	7.60	7.88
기타 화학제품		8,073	651	14.2	8.1	7.05	5.37	6.65

주: 원유 및 석탄제품은 광산품으로 분류하여 제외함.(HS 2701~2706)

자료: WTO/IDB,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여 KIEP 계산.

## 2) 무역구조를 감안한 대한국 실질관세를 추정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일반무역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중국의 대한국 석유화학산업 수입액(221억 달러) 중에서 중국 내수용인 일반무역 수입액은 121억 달러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무역용 수입은 63억 달러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석유화학 수입 중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중 가중평균관세율(5.69%)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감안하여도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기타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표 4-22.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업종별 수입구조와 실질관세를 추정(2006년 기준)

(단위: %)

업종	무역 구성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가중평균	실질	
석유화학 전체	54.6	28.4	6.95	6.95	1.98	5.69
고무	42.0	54.4	11.21	8.68	6.10	7.88
기타화학제품	42.7	52.8	8.46	7.50	4.47	6.65
농약 및 비료	95.6	4.0	8.48	6.51	0.34	6.49
무기화학	55.1	38.2	5.50	5.13	2.10	5.56
석유제품 및 코크스	54.5	2.3	5.91	7.13	0.13	3.59
유기화학	78.4	12.9	5.79	3.39	0.75	5.52
의약품	77.8	20.6	4.73	5.41	0.97	5.33
플라스틱제품	24.4	62.5	8.47	8.21	5.30	7.31
합성수지	62.3	15.5	8.37	8.45	1.30	6.57
화장품	85.8	1.6	11.09	12.14	0.18	7.81

## 사. 기타 제조업

기타 제조업에서는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기타 제조업 업종 단순평균관세율은 10.32%로 한국(5.9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전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5.36%로 한국(5.22%)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8.93%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수입관세율(7.04%)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23. 중국과 한국의 기타 제조업의 관세구조와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품목 수, %)

	무관세 품목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합계 (개)	관세율 범위	평균
중국 (구성, %)	163	58	234	189	78	144	14	880	0-35	10.32
	18.5	6.6	26.6	21.5	8.9	16.4	1.6	100.0		(5.36/8.93)
한국 (구성, %)	357	44	924	93	23	0	0	1441	0-16	5.99
	24.8	3.1	64.1	6.5	1.6	0.0	0.0	100.0		(5.22/7.04)

단순평균 관세율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국의 교역액을 감안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는 가죽 및 모피 업종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타 제품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4. 한국의 기타 제조업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

업종	한국수입(2006년) (백만 달러)		단순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전체	16,157	4,637	5.99	5.22	7.04
가죽 및 모피	1,253	557	9.39	7.66	8.29
목재, 가구, 종이	5,508	1,462	2.73	2.41	3.69
비금속광물제품	3,878	1,237	7.91	7.96	7.98
기타 제품	5,517	1,381	6.72	5.56	9.22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타 제조업 중에서는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한국산에 대한 실질관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1.91%에 불과하며, 이것은 한국의 대중 가중평균관세율(7.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표 4-25. 중국의 기타 제조업 관세율(2006년 기준)

(단위: %)

업종	중국수입(2006) (백만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대세계		대한국	
	대세계	대한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	실질관세
전체	30,438	1,663	68.8	18.5	10.32	5.36	8.93	1.91
가죽 및 모피	4,671	574	84.1	5.4	12.79	7.80	7.84	0.69
목재, 가구, 종이	14,968	516	64.0	17.8	4.73	2.10	5.20	0.84
비금속광물제품	3,786	246	52.1	26.1	13.58	11.12	10.99	3.54
기타 제품	7,013	328	91.1	7.8	13.79	7.60	15.16	1.08

###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한·중 간 관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의 단순평균 관세율에서는 중국(9%)이 한국(6.7%)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 화학섬유, 철강 및 일차재료, 통신기기, 기타전자제품 업종에서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 업종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종에서 중국의 관세율은 한국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표 4-26. 한국과 중국의 관세 Matrix 1(명목관세)

		한국관세 <sup>2)</sup>		
		10%이상	5%이상 10%미만	5%미만
중국 관세 <sup>1)</sup>	10%이상	편직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완성차, 자동차부품, 가죽 및 모피, 비금속광물, 화장품 고무, 가전기기 기타공산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철강제품
	5%이상 10%미만	-	섬유직물, 화학섬유 농약 및 비료 유기화학,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기타화학제품 일반기계, 정밀광학계측기기	석유제품 및 코크스 무기화학 스테인레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전자제품
	5%미만	-	의약품	목재 및 종이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부품 철강 일차재료, 기타 합금강 및 봉

주: 1) 중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2)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3) 음영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임.

둘째, 양국의 대세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 있어서는 전체 제조업 관세율에 있어 한국은 6.06%로 중국의 4.6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제품 및 코크스, 유기화학, 의약품, 화학섬유, 비철금속 업종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이 7.29%로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4.5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저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중 간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의 양국간 무역구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편직물 업종에서 양국은 모두 10% 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직물, 의류 이외의 기타 섬유제품, 완성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비금속광물, 철강관련 제품 등이다.

표 4-27. 한국과 중국의 관세 매트릭스(가중평균 관세)

		한국 관세 <sup>2)</sup>		
		10% 이상	5% 이상 10% 미만	5% 미만
중국 관세 <sup>1)</sup>	10% 이상	의류 편직물	섬유직물, 기타 섬유제품, 완성차, 자동차부품 비금속광물 화장품, 기타 공산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5% 이상 10% 미만	-	화학섬유, 가죽 및 모피 고무, 정밀광학계측기기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의약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스테인레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5% 미만	-	유기화학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부품, 기타전자제품 철강 일차재료, 합금강 및 봉

주: 1) 중국의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  
 2)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넷째, 한·중 간의 교역 특성(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을 감안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양국간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용 수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섬유, 의류, 가죽 및 모피제품은 물론 일반기계, 합성수지, 화장품, 정밀계측기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8.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매트릭스

		한국 관세 <sup>2)</sup>		
		10% 이상	5% 이상 10%미만	5% 미만
중국 관세 <sup>1)</sup>	10% 이상	-	완성차	-
	5% 이상 10% 미만	의류	자동차부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
	5% 미만	편직물	섬유직물, 화학섬유, 기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비금속광물 정밀광학계측기기, 일반기계, 화장품 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기타 공산품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철강 일차재료, 스테인레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 합금강 및 봉 석유제품 및 코크스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전자제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주: 1)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2)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표 4-29.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업종	중 국				한 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대한 실질관세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산업	9.7	4.62	4.54	2.7	11.9	6.06	7.29
섬유 및 의류	11.70	9.12	9.55	1.63	9.96	10.49	11.19
섬유직물	9.37	9.01	10.08	1.02	8.76	8.68	8.79
편 직 물	10.20	10.03	10.02	0.24	10.00	10.00	10.00
화학섬유	8.16	7.32	8.04	1.43	8.69	7.99	8.45
의 류	15.99	15.44	15.58	7.15	12.71	12.86	12.89
기타 섬유제품	14.46	10.80	12.66	4.66	10.44	9.35	9.49
석유 및 화학	6.95	4.65	6.95	1.98	6.13	4.44	5.69
석유제품 및 코크스	5.91	1.54	7.13	0.13	5.73	4.02	3.59
무기화학	5.50	6.53	5.13	2.10	5.25	4.17	5.56
유기화학	5.79	4.52	3.39	0.75	5.76	4.63	5.52
합성원료	6.40	7.51	8.17		6.06	5.87	6.46
의약품	4.73	4.53	5.41	0.97	5.01	5.74	5.33
농약 및 비료	8.48	18.65	6.51	0.34	5.93	5.16	6.49
화장품	11.09	11.89	12.14	0.18	7.91	7.96	7.81
합성수지	8.37	8.17	8.45	1.30	6.60	6.52	6.57
플라스틱제품	8.47	8.12	8.21	5.30	6.81	6.87	7.31
고무	11.21	8.80	8.68	6.10	7.61	7.60	7.88
기타 화학제품	8.46	7.22	7.50	4.47	7.05	5.37	6.65
철 강	7.29	5.48	6.05	2.91	2.38	1.15	1.12
철강 일차재료	2.09	0.78	0.38	2.02	3.41	2.01	3.67
철강 및 비합금강	5.30	5.56	5.54	2.22	0.00	0.00	0.00
스테인레스강	8.18	7.91	7.52	2.45	0.00	0.00	0.00
기타 합금강 및 봉	4.37	3.84	3.70	2.63	0.00	0.00	0.00
철강제품	10.02	6.82	7.62	4.24	4.29	4.57	4.53

표 4-29. 계속

업 종	중 국				한 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대한 실질관세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비철금속	6.61	3.74	4.69	1.75	6.27	3.89	4.48
기 계	8.32	5.73	5.35	1.84	6.19	5.69	6.99
일반기계	7.92	6.04	5.65	3.62	6.16	6.06	6.69
정밀광학계측기기	9.36	5.39	5.23	1.19	6.23	5.07	7.39
전기전자	8.80	1.73	1.16	2.76	5.38	2.12	2.76
가전기기	15.76	11.72	9.16	7.05	7.38	5.53	7.05
기타 전기기기·부품	18.00	13.04	12.10	1.92	6.38	5.44	4.86
컴퓨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신기기	1.14	0.41	0.19	0.18	2.36	1.18	0.65
전자부품	4.09	0.65	0.44	0.46	3.98	0.99	1.76
기타 전자제품	4.97	2.22	1.57	3.32	5.74	3.64	2.10
자동차	13.8	16.1	14.1	10.1	8.1	8.1	8.0
완성차	17.5	23.9	24.3	25.0	8.2	7.8	8.0
자동차부품	10.2	10.0	10.1	6.8	8.0	8.0	8.0
기타 제조업	10.32	5.36	8.93	1.91	5.99	5.22	7.04
가죽 및 모피	12.79	7.80	7.84	0.69	9.39	7.66	8.29
목재 및 종이	4.73	2.10	5.20	0.84	2.73	2.41	3.69
비금속광물	13.58	11.12	10.99	3.54	7.91	7.96	7.98
기타 공산품	13.79	7.60	15.16	1.08	6.72	5.56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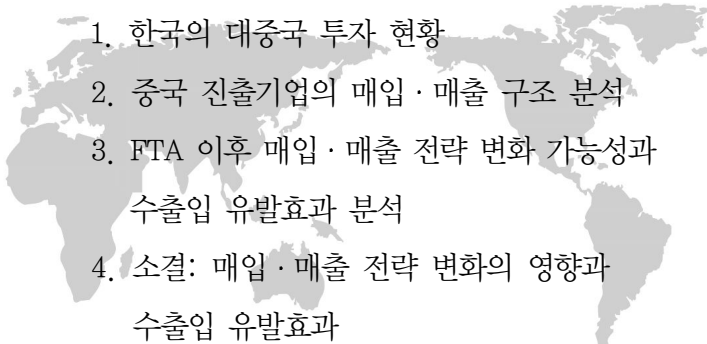
자료: WTO/IDB, 중국관세율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여 KIEP 계산.

다섯째, 제품의 가공단계별로 양국의 관세구조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재와 반제품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과 부분품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상품 분야의 관세인하 협상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효과와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경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한국산으로 전환 되는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5장

#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전략 분석

-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4. 소결: 매입·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 가. 대중국 투자 현황

1988년부터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2년 8월 한·중 간 국교 정상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2001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1988년 최초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대중국 투자는 크게 4단계에 걸쳐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 1) 탐색기(1989~91년)

첫 번째 단계는 한·중 간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1년까지의 기간인 초기 탐색기로서, 이 시기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는 서울 올림픽과 북경 아시안 게임 등을 계기로 양국 간에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홍콩, 일본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투자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은 중국 내에서 강력한 치리정돈(治理整頓)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개방 역시 제한되던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 간 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투자보장협정 등 대중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전무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홍콩을 경유한 간접투자의 형식을 띠고 있었으며,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한국으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투자지역도 한국에 인접한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이 기간 중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01건에 6,500만 달러의 투자가 이

루어졌다. 투자업종은 농산물 가공, 의류, 가죽 및 피혁제품, 기타 제조업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과 한국 내에서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는 일부 전자부품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2) 초기 발전단계(1992~97년)

제2단계는 초기 발전단계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인 지역개방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성장한 시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중국정부는 지역개방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방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발표 등을 통해 선별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 시기이며, 수출 중심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실시한 시기이다.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고임금을 극복하고자 노동집약적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단순조립가공의 저위기술 제품 중심구조에서 가전 등 전기전자 분야로 투자업종이 다양화되었으며, 부동산, 요식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진출과 더불어 일부 자동차부품 업체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3) 조정단계(1998~2001년)

제3단계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 대중국 투자의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중국정부 역시 외국인투자의 구조조정을 위해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지

역적으로는 중국정부가 ‘서부대개발전략(西部大開發戰略)’을 통해 연해지역은 물론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외환위기 여파로 전반적인 한국 해외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1998~2001년 기간 중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건수는 2,545건, 투자액은 24억 6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내의 경기불안과 경영애로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투자가 지속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투자업종에 있어서는 전자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의류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 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제2의 성장단계(2002년~현재)

제4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대폭 증가한 시기이다.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도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았으며, IT 관련 산업의 호황을 유지하면서 해외투자 역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2~05년의 4년간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7,442건으로 한국의 전체 대중국 투자건수의 55%, 투자액은 75.34억 달러로 전체 대중국 투자액의 56%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중에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의 동반진출로 환발해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전체 대중국 투자에서 환발해만 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투자건수로 57.5%, 투자액으로는 49.7%를 차지하였다. 대중국 투자 업종으로는 전자·통신, 자동차 및 철강 분야, 그리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5-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대세계 투자		대중국 투자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988	171	215,834	1	(0.6)	10	(0.0)
1989	269	570,795	7	(2.6)	6,360	(1.1)
1990	341	963,117	24	(7.0)	16,174	(1.7)
1991	444	1,109,702	69	(15.5)	42,468	(3.8)
1992	497	1,216,651	170	(34.2)	141,127	(11.6)
1993	689	1,264,179	382	(55.4)	264,032	(20.9)
1994	1,487	2,303,822	840	(56.5)	635,847	(27.6)
1995	1,332	3,101,518	751	(56.4)	842,088	(27.2)
1996	1,472	4,458,348	740	(50.3)	930,154	(20.9)
1997	1,330	3,709,912	631	(47.4)	741,788	(20.0)
1998	617	4,812,422	266	(43.1)	696,066	(14.5)
1999	1,095	3,329,344	459	(41.9)	365,959	(11.0)
2000	2,082	5,068,531	774	(37.2)	711,168	(14.0)
2001	2,153	5,163,667	1,049	(48.7)	638,807	(12.4)
2002	2,490	3,697,107	1,385	(55.6)	1,027,903	(27.8)
2003	2,809	4,061,534	1,679	(59.8)	1,666,221	(41.0)
2004	3,764	5,988,587	2,142	(56.9)	2,298,450	(38.4)
2005	4,389	6,557,190	2,240	(51.0)	2,646,652	(40.4)
2006	5,185	10,731,047	2,300	(44.4)	3,309,540	(30.8)
누계	33,346	69,461,794	15,909	(47.7)	16,980,814	(24.4)

주: 비중은 대세계 투자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대중국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대중국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83.7%,

투자액으로는 84.2%이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전자통신, 섬유, 의류, 신발, 가죽·모피 업종이 각각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액에 있어서는 전자통신 업종이 19.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장비 업종이 10.3%, 그리고 섬유 업종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 붐 시기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철강, 교통운송기기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철강업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502만 달러로 가장 크고, 화학섬유와 고무, 비철금속,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 의류, 가죽·모피, 목재 등 경공업 업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고).

표 5-2.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업종	1989~97년		1998~2001년		2002~06년		2006년 말 현재 누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제조업 전체	3,152	2,937	2,216	2,024	7,303	9,354	12,671	14,314
음식료품	269	166	157	69	485	431	911	666
섬유·의복	741	541	441	168	1,190	830	2,372	1,539
신발·가죽	216	162	189	83	307	217	712	462
목재·가구	161	47	72	15	192	57	425	120
종이·인쇄	74	53	43	20	133	81	250	154
석유화학	270	265	183	247	677	1,030	1,130	1,543
비금속광물	150	218	63	222	186	401	399	841
일차금속	79	156	41	48	168	718	288	923
조립금속	158	76	89	46	351	347	598	469
기계장비	270	224	213	124	961	800	1,444	1,148
전자통신장비	286	591	281	718	1,208	2,527	1,775	3,835
수송기계	108	221	76	167	492	1,492	676	1,880
기타 제조업	370	215	368	97	953	423	1,691	7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분석

###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분석

#### 1) 선행 연구와 조사 개요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설문 또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sup>33)</sup>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sup>34)</sup> 수출입은행(2005, 2006, 2007)<sup>35)</sup> 등이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1998년 이후 매년 투자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대중국 투자규모 100만 달러 이상 인 기업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표 5-3. 대중국 투자기업의 매입·매출 구조에 관한 연구결과

(단위: %)

		본조사 (2006년)	양평섭 (2005년)	무역연구소 (2003년)	KIEP (2003년)	수출입은행		
						2004년	2005년	2006년
매입	중 국	53.3	47.1	44.3	49.7	40.8 (38.9)	40.7 (44.5)	43.9(41.9)
	한 국	33.3	46.4	35.5	41.8	48.8 (51.3)	42.9 (39.9)	40.9(42.4)
	제3국	13.4	6.3	17.2	8.5	10.4 (9.9)	15.3 (15.6)	15.1(15.7)
매출	중 국	54.7	52.2	40.6	38.1	49.4 (48.0)	51.0 (54.4)	50.2(47.6)
	한 국	16.4	31.1	15.8	26.7	14.5(14.9)	12.6 (14.8)	16.5(17.2)
	제3국	28.9	16.6	43.6	35.2	36.2 (37.1)	36.3 (30.7)	33.4(35.2)
조사대상 기업수		211개 (제조업)	472개	1,180개	300개	464개 (420개)	598개 (539개)	943개 (825개)

주: 각 기관의 연도는 조사 대상 실적 연도이며, ( ) 안은 제조업 기준임.

자료: 무역연구소(2004); 지만수 외(2004); 수출입은행(2005, 2006, 2007); 양평섭(2007).

3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수출입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무역협회.

34) 지만수 외(2004),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5) 한국수출입은행(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본 연구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288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9~10월에 걸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중국 내 매입과 매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조달과 현지 판매구조를 중국 내 한국계 기업(협력사, 기타 한국계로 구분), 중국계 기업, 중국 내 제3국 외자계 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기업 288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70개, 화학·고무·플라스틱 업종이 34개, 기계 업종이 30개, 철강금속 업종이 25개, 자동차 업종이 25개, 섬유·의류 업종이 22개, 기타 제조업이 68개, 비제조업 기업이 28개였다. 지역별로는 산동성 진출기업이 98개, 화동지역(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진출기업이 80개, 화북지역(북경시, 천진시, 허북성) 진출기업이 32개, 동북지역(길림성, 요녕성) 진출기업이 19개, 기타 지역 진출기업이 2개 포함되었다. 현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166개,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109개,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3개 기업이었다.

표 5-4. 조사 대상기업 분포

지역별		업종별		제품 성질별	
산동성	98 개	전기전자	70 개	중간재	166 개
상해/강소/절강	80 개	기계	30 개	(그 중 부품 118개)	
길림/요녕	19 개	철강금속	25 개	최종재	109 개
북경/천진/허북	32 개	섬유/의류	22 개	(그 중 소비재 93개)	
기타	2 개	화학/플라스틱	34 개	기 타	13 개
		자동차	25 개		
		기타 제조업	68 개		
		비제조업	29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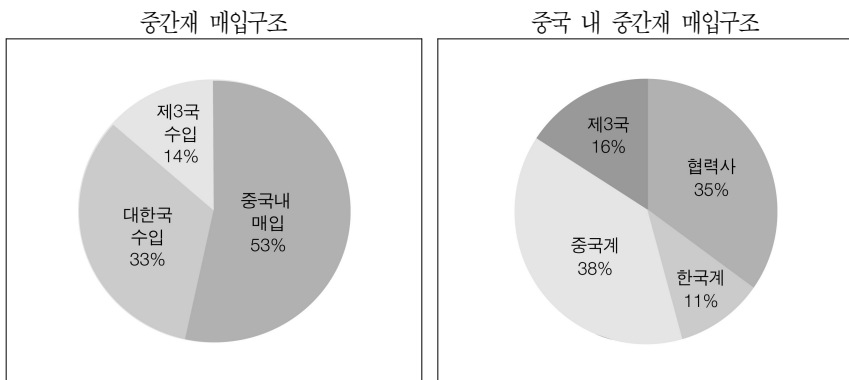
## 2) 제조기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조사 결과, 중국 내 한국계 기업들의 매입·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조달에 있어서는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에서 수입, 제3국에서 수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재 판매에 있어서는 중국 내수 판매, 제3국에 대한 수출, 대 한국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 대상기업 288개 중에서 매입과 매출 구조에 대한 응답을 한 211개 제조기업의 매입구조와 매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조달에 있어서는 전체 조달액의 53.3%를 중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33.3%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13.4%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제조업 기업 중 중국 내에서 중간재 조달구조가 파악된 1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조달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조달의 46%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협력사 35%, 기타 한국계 11%)에서 조달하였으며, 중국계 기업과 제3국계 외자기업에서 조달한 비율은 각각 38%와 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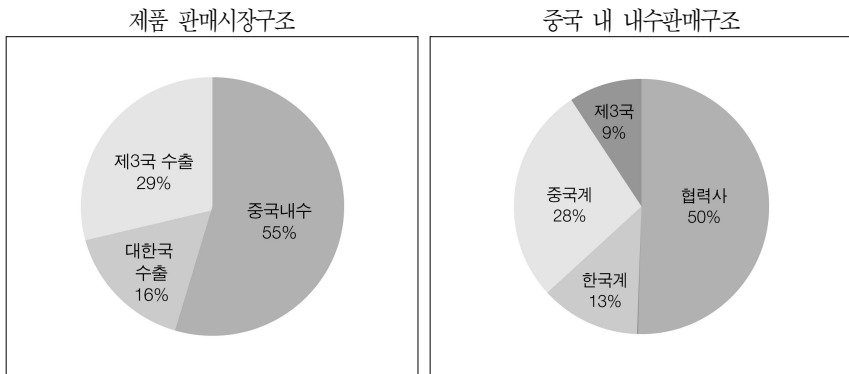
그림 5-1. 중국 진출 제조업체의 매입구조



자료: 실사결과.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전체 매출의 54.7%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28.9%는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16.4%는 한국에 역수입(buy-back)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내수판매 구조가 파악된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수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수의 63%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동반진출기업 50%, 기타 한국계 13%)에 대한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에 대한 판매 비율과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에 대한 판매 비율은 각각 28%와 9%를 차지하였다.

그림 5-2. 중국 진출 제조업체의 매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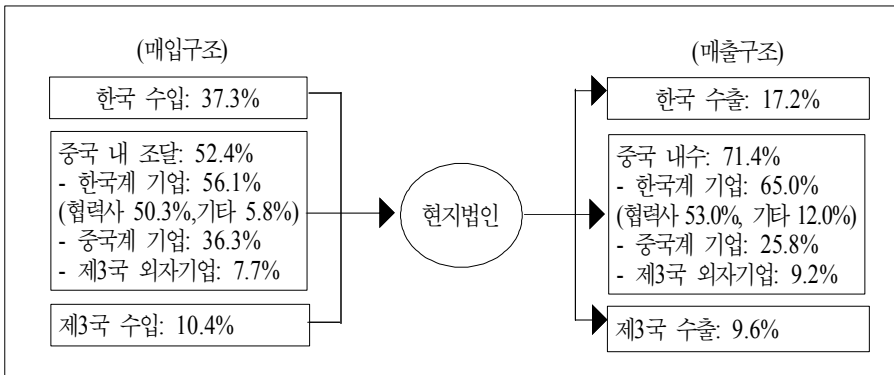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3) 부품 및 소재 업체와 최종재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비교

진출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를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중간재의 경우 최종재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최종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3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중간재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종재의 경우 대부분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조달구조를 보면 중국 내 조달이 52.4%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각각 37.3%와 10.4%이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것의 56.1%를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중국계 기업에서 36.3%를 조달하고 있다. 판매에 있어서는 생산된 제품의 71.4%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한국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각각 17.2%와 9.6%를 차지하였다. 중국 내수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는 25.8%, 제3국계 외자기업에 대한 판매는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3. 중간재 제조업체의 매입·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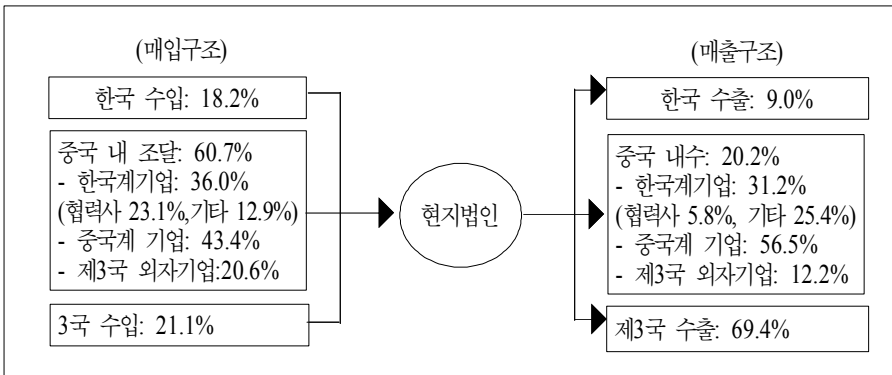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최종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조달구조를 보면 중국 내 조달이 60.7%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각각 18.2%와 21.1%이었다.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조달에 있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경우 해외 바이어와의 임가공 계약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위탁자에게서 공급받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것의 36.0%만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43.4%를 중

국제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고, 제3국계 외자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도 20.6%에 달하고 있다. 판매에 있어서는 생산된 제품의 69.4%를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율은 20.2%,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9.0%에 불과하다. 중국 내수 판매에 있어서는 중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가 5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가 31.2%, 제3국계 외자기업에 대한 판매가 1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4. 최종재 제조업체의 매입·매출 구조



자료: 실사결과.

## 나. 업종별 매입·매출 구조 분석

### 1) 개관

제조업 업종별 매입과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기존의 여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동차 및 부품, 화학,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현지 내수 판매비율이 높은 반면, 전기전자, 의류, 기타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의류, 기타 제조업의 경우 제3국 시장을 타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의 경우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단위: %)

업종	매입구조			매출구조		
	중국 내 매입	대한국 수입	제3국 수입	중국 내수	대한국 수출	제3국 수출
제조업	53.3	33.3	13.4	54.7	16.4	28.9
자동차	73.9	22.9	3.2	87.7	10.0	2.3
*부품업체	51.1	41.1	7.8	73.0	22.0	5.1
전기전자	45.0	37.8	17.2	17.7	29.7	52.6
*부품업체	31.9	54.8	13.4	28.5	47.9	23.7
기계	91.9	7.7	0.4	91.3	5.4	3.3
섬유·의류	15.0	56.0	29.0	54.9	14.0	31.7
*의류업체	37.1	43.5	19.4	2.4	21.3	78.1
화학	44.1	24.3	31.6	71.3	4.8	23.8
철강금속	43.6	56.0	0.3	65.0	14.8	20.1
기타 제조업	68.7	23.1	8.0	12.9	21.7	62.3

자료: 실사결과.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 분야의 539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과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간재의 39.9%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과 전자통신 업종의 경우 중간재의 50% 이상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조립금속과 섬유·의복 업종의 경우 40% 이상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표 5-6. 주요 업종별 매입·매출 구조 I (2005년 기준)

업종	매출 구조			매입 구조			조사기업 수 (개)
	현지	한국	제3국	현지	한국	제3국	
제조업	54.4	14.8	30.7	44.5	39.9	15.6	539
자동차	96.3	1.1	2.6	71.4	28.0	0.6	67
화학	89.9	4.0	6.1	73.8	18.4	7.8	46
1차금속	89.7	6.7	3.6	36.2	62.3	1.5	27
조립금속	83.1	11.5	5.4	51.1	47.7	1.2	33
음식료품	73.3	10.2	16.5	84.9	5.9	9.2	28
플라스틱	56.7	14.8	28.5	34.9	20.0	45.1	34
비금속광물	48.6	30.2	21.2	98.9	0.0	1.1	
기 계	41.7	21.1	37.2	70.1	25.7	4.2	66
전자통신	30.1	19.1	50.8	28.4	51.0	20.6	117
섬유의복	21.8	61.5	16.7	45.1	40.9	14.0	49
기타 제조업	28.5	25.9	45.6	27.8	28.1	44.1	72

자료: 김주영(2007),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양평섭(2007)의 연구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주요 부품과 소재를 모국인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중간재 매입에 있어서는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 등 중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업종과 화학, 기계 업종에서 현지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가죽·신발 업종의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 주요 업종별 매입·매출 구성 II

업종	표본 수 (개)	매출 구성(%)			매입 구성(%)		
		현지판매	대한국 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대한국 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전체	472	52.2	31.1	16.6	47.1	46.4	6.3
전기전자	131	41.8	41.4	16.9	36.2	55.8	6.8
운송장비	62	67.6	28.6	3.8	44.4	54.4	1.2
철강금속	53	55.1	36.5	8.4	39.1	57.4	3.5
섬유·의류	52	43.6	30.0	26.4	45.2	40.8	14.0
화학	40	79.1	14.7	6.1	64.4	31.8	3.8
기계	26	68.2	25.5	6.3	51.5	41.6	7.0
음식료품	24	66.0	18.2	16.4	91.2	7.8	1.0
고무·플라스틱	21	67.9	15.3	16.7	43.5	48.6	7.9
가죽·신발	19	19.7	26.7	52.4	23.7	64.3	16.9
비금속광물	14	64.9	19.4	15.7	86.3	10.2	3.5
기타 제조업	30	20.7	38.2	41.1	53.9	39.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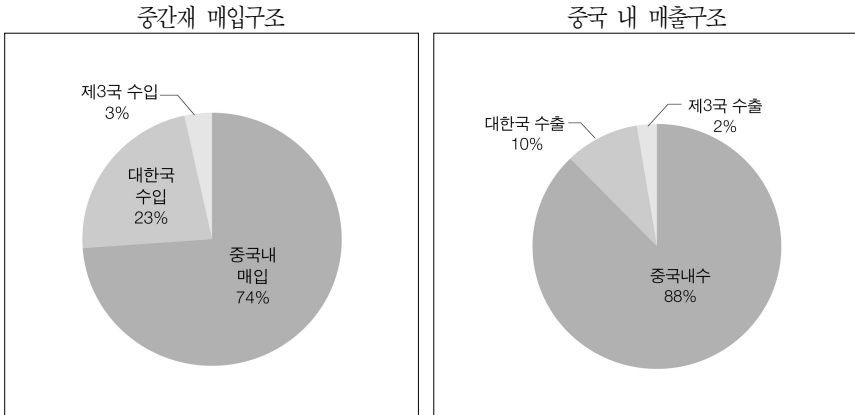
자료: 양평섭(2007), p. 184.

## 2) 자동차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에 매입과 매출 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현지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업체는 상대적으로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간재 조달에서 중국 내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7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22.9%,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중국 내수 비중이 87.7%,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0.0%, 제3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5. 자동차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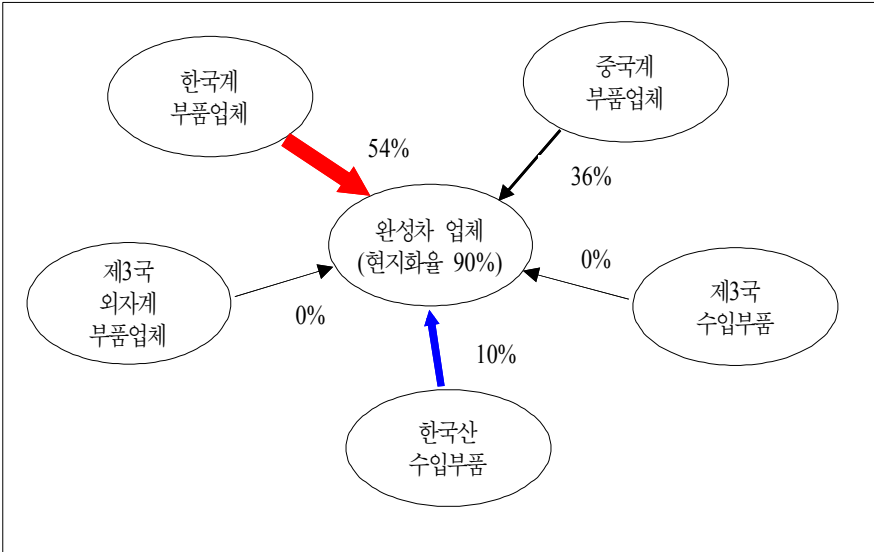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자동차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완성차 업체가 중국 내에서 조립하는 승용차는 100%로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경우 현지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2개 승용차 업체의 현지 중간재 조달률은 85~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동반진출한 협력사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A사의 경우 신규 차종의 경우 현지화율이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력 차종의 경우 현지화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의 경우 동반진출한 협력기업이 37개사이며, 향후 5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체 인터뷰 결과.

그림 5-6. 완성차 업체의 부품 조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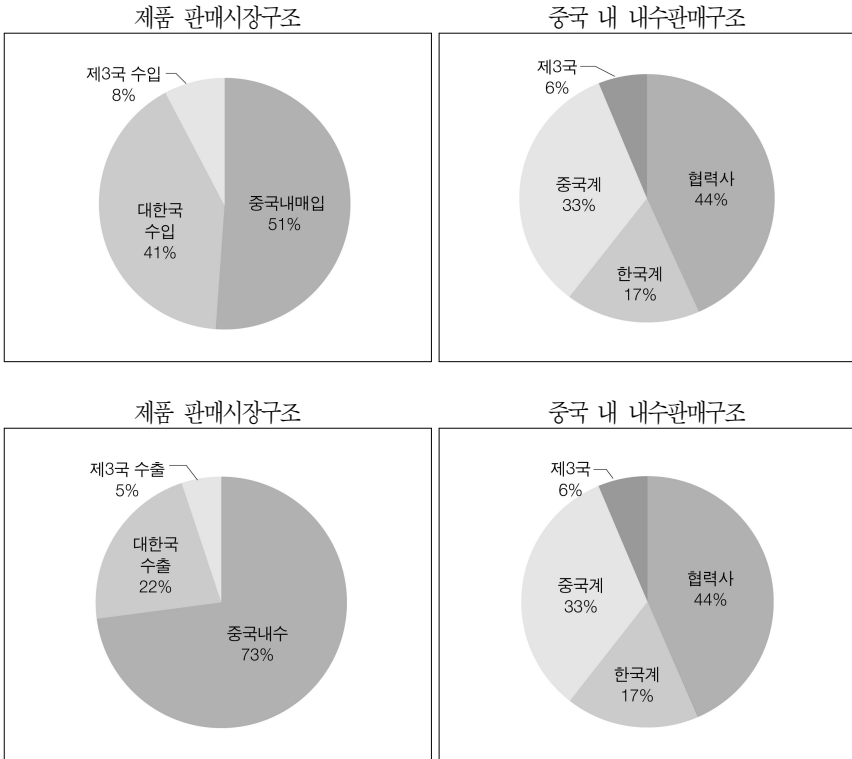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우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 내 조달 비율이 전체 매입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41%,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협력사 등 한국계 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 기업과 중국 내 제3국계 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6%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에서는 현지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율이 7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2%를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고, 5%는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부품의 경우 중국 내 매출의 78%가 동반진출한 수요가에 납품되고 있으며, 중국계 업체와 중국 내 제3국계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비율은 각각 10%와 12%에 불과하였다.

그림 5-7. 자동차부품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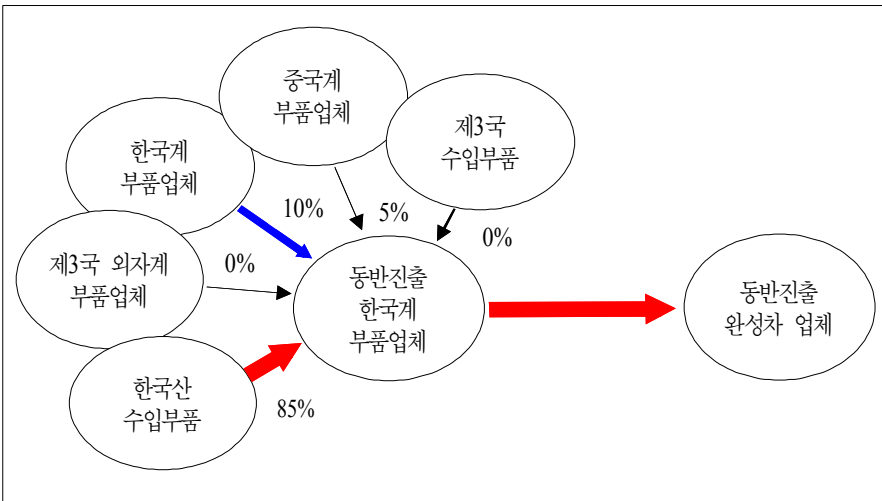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이러한 매출 특성은 완성차 업체와 동반진출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법인에서 생산한 부품을 동반진출한 수요가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우 중간재 조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패턴이 존재한다. 하나는 완성차 업체와의 동반진출 형태의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다. 전자의 경우 중간재 조달에 있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 현지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에 있어서도 완성차 업체와 동반진출한 부품업체의 경우 중국에

서 생산한 부품의 대부분을 동반진출한 수요가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5-8 참고). 반면 독자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 또는 중국 내 비한국계 완성차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동반진출 부품업체의 매입과 매출 구조



자료: 실사자료를 기초로 작성.

### 3)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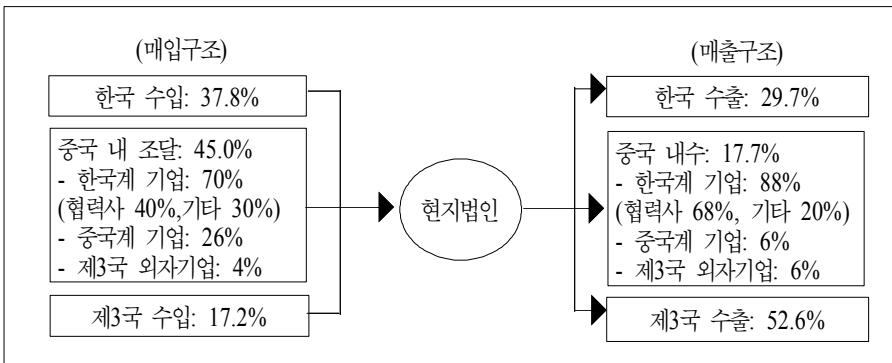
중국 내 매입과 매출구조가 파악된 55개 전기전자 업종 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기전자 업종 기업들은 중간재 조달에 있어 현지 매입 비중이 45%,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7.8%, 제3국에서의 수입이 17.2%를 차지하였다. 또한 제품의 판매에서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29.7%, 중국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은 17.7%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 기업 중 중국 내에서 중간재 조달구조가 파악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조달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조달의 70%가 중국 내 한국계 기

업(협력사 40%, 기타 한국계 30%)에서 조달한 것이며, 중국계 기업과 제3국계 외 자기업에서 조달한 비율은 각각 26%와 4%에 불과하였다.

전기전자 업종 기업 중 중국 내 내수 판매 구조가 파악된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수요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수의 88%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 대한 매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에 대한 판매 비율과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에 대한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8%와 6.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9]과 같다.

그림 5-9. 전기전자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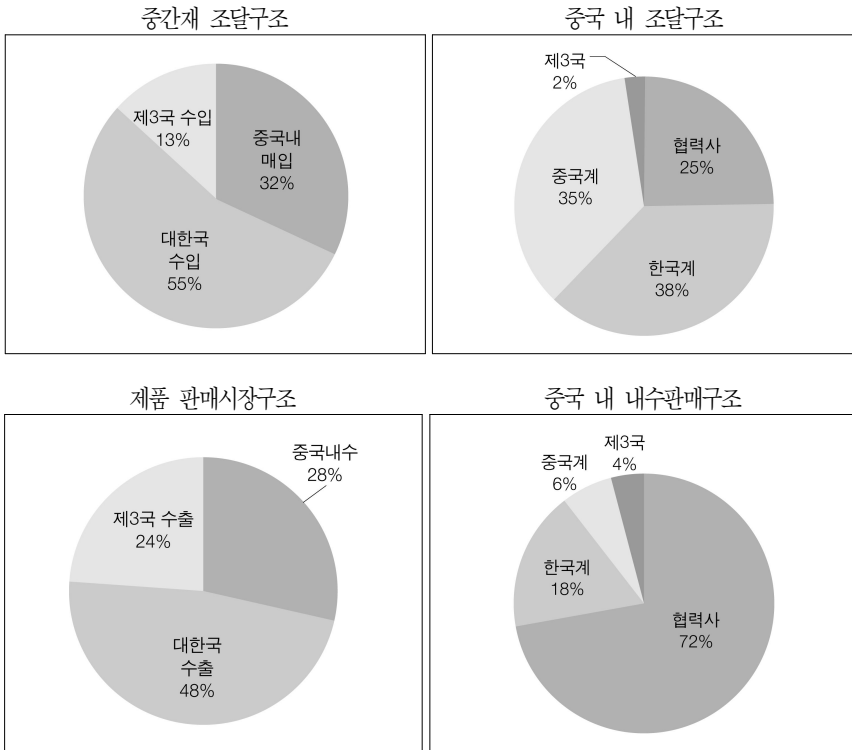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특히 완제품 기업의 경우 동반진출한 기업에서의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매입 비중이 높은 반면, 부품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조사 대상기업 중 부품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입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조달에 있어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매입은 32%, 제3국에서의 매입은 13%에 불과하다. 중국 내

37) 프린터를 제조하고 있는 B사의 경우 30여 개의 한국계 협력사가 동반진출하였다. 업체 인터뷰 결과 자료.

매입에 있어서는 한국계 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은 63%, 중국계 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 35%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0. 전자부품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자료: 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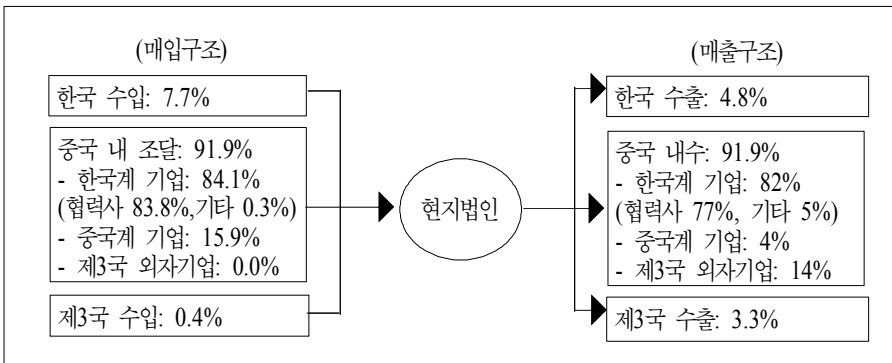
전자부품 업체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내수 판매와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각각 28%와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수 판매 구조에서는 동반진출한 수요자에 대한 매출이 72%, 기타 한국계 기업에 대한 매출이 18%로, 이 둘을 합치면 90%를 차지하고 있다.

#### 4) 기계

중국 내 매입과 매출 구조가 파악된 30개 기계 제조업체의 중국 내 매입과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계 업종은 대표적인 중국 내 조달·내수 판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기업의 부품 및 소재 조달에 있어 현지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달 비중이 91.9%로 조사 대상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7.7%,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조달구조에 있어서는 협력사의 동반진출을 통한 현지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내 조달의 84%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 특히 동반진출한 협력사를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서의 조달 비중은 15.9%에 불과하다.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현지 내수 판매 비율이 91.9%에 달하고 있으며, 4.8%만이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계업종 기업의 수요에서는 역시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내수의 82%가 한국계 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이 중 77%가 동반진출 수요가에게 납품되고 있다. 이외에 매출의 14% 정도가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그림 5-11. 기계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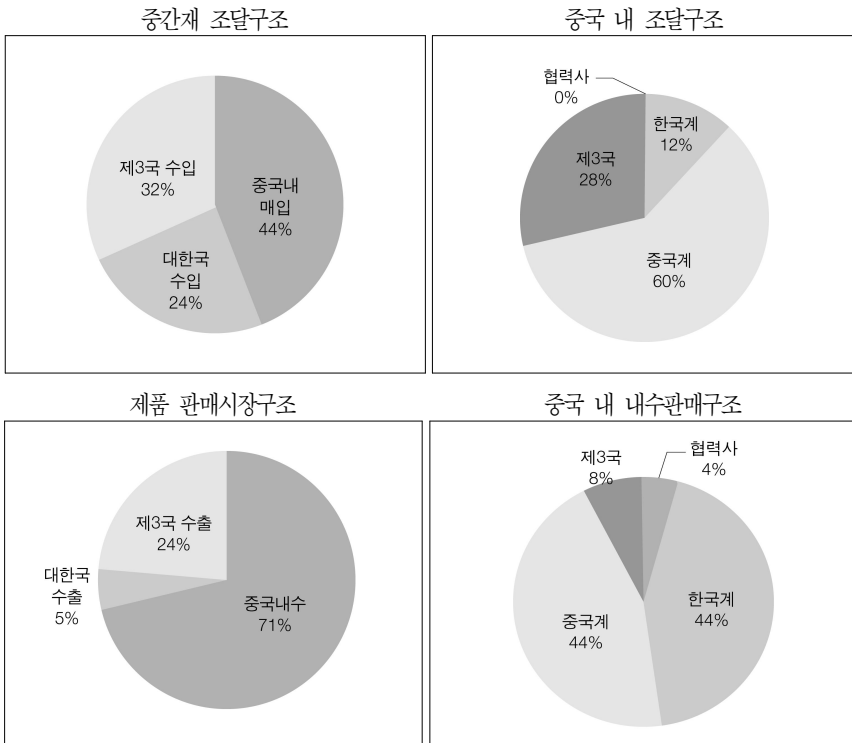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5) 화학

중국 내 매입과 매출구조가 파악된 33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등 화학 관련 업종 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업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의 기업들은 중간재 조달에 있어 현지매입 비중이 44%,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4%,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2%를 차지하였다.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28%,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화학관련 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자료: 실사결과.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가 7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의 수출이 24%, 한국으로의 수출이 5%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내 수요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수의 48%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 대한 매출이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가 44%를, 제3국계 기업에 대한 판매가 2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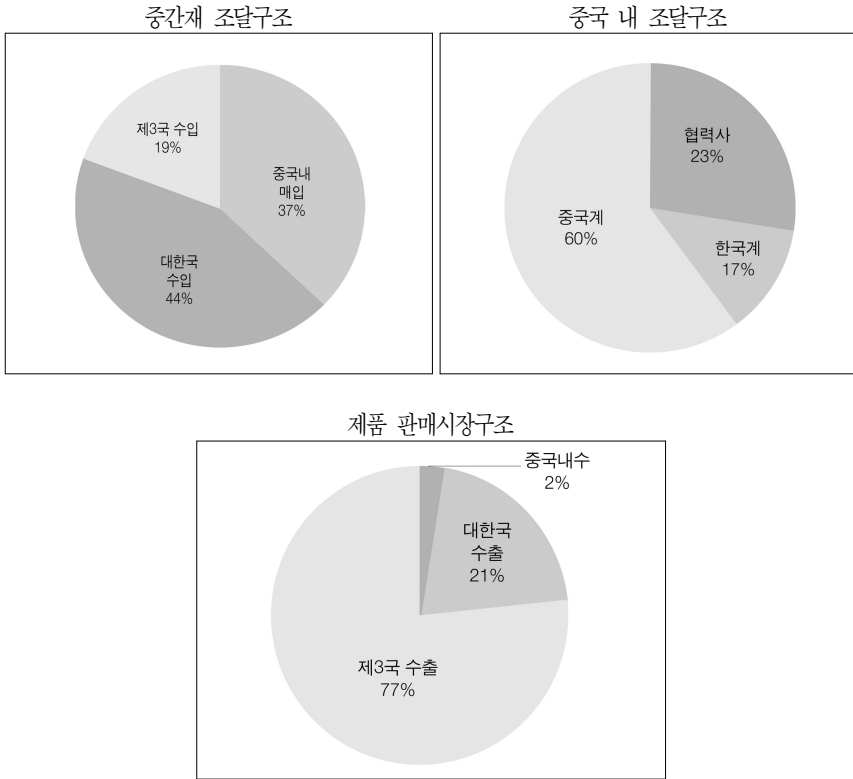
## 6) 섬유·의류

22개 섬유·의류 업체를 대상으로 중간재 매입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44%,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조달 비중은 37%로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6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판매구조에 있어서는 제3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77%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비중은 21%로 전체 생산의 98%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는 2%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징은 의류업체의 경우 해외 바이어와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바이어에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류 업종에서는 임가공 과정에서 원부자재를 한국내 또는 제3국의 위탁자에게서 공급받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다시 위탁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3. 의류업체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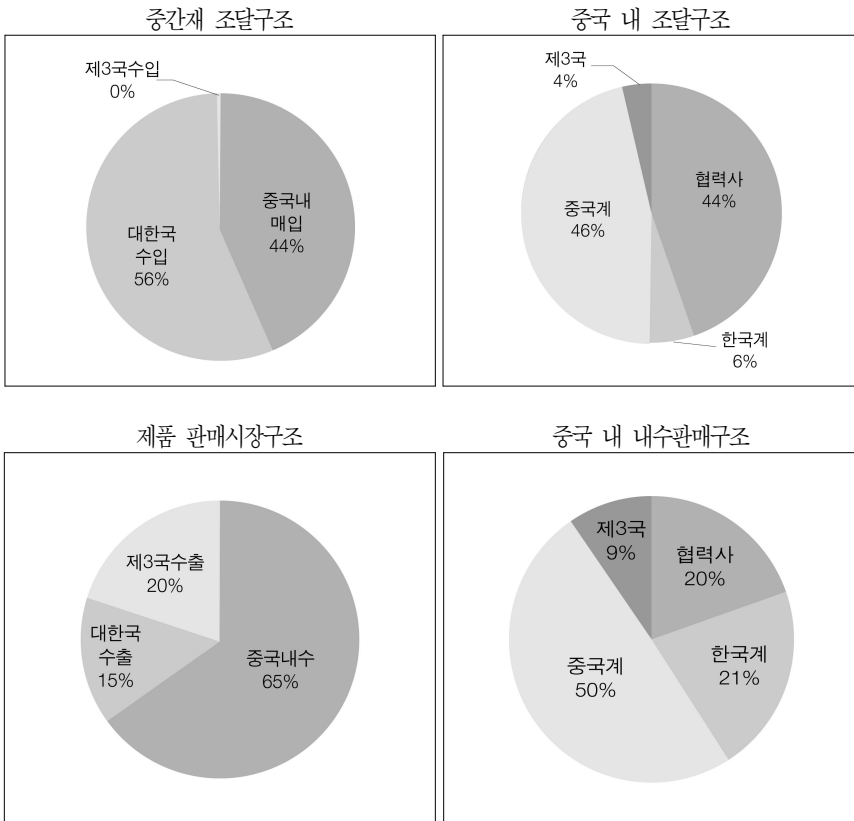
자료: 실적결과.

### 7) 철강 및 금속

철강 및 금속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를 한국과 중국 내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21개 철강 및 금속 기업의 조달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의 5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44%는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스테인레스 등 특수강을 중심으로 원부자재의 50%가 한국계 기업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46%가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 및 금속제품의 65%는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15%는 조립금속 제품의 형태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는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내수의 수요자 구성에 있어서는 중국계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 50%, 한국계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 41%, 제3국 외자계 기업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14. 철강·금속 업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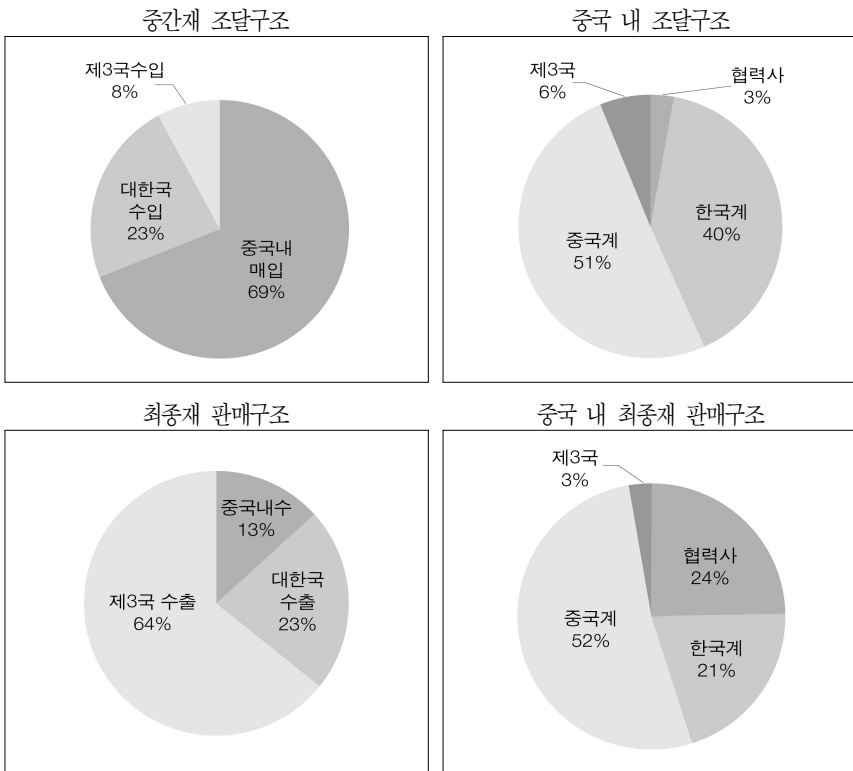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8) 기타 제조업

가죽 및 신발, 가구, 종이 등 기타 제조업 업종의 경우 중국 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한 후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제조업종의 매입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6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3%만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51%를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로부터의 조달

그림 5-15. 기타 제조업의 매입 및 매출 구조



자료: 실사결과.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 업종에서는 대부분 중국 내의 저임금 또는 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동반진출이 아닌 독자적인 진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생산된 제품의 64%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는 비중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중은 각각 23%와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수 판매에 있어 주요 수요자는 중국계 기업이며, 중국 내 한국계 기업과 제3국계 외자기업 수요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24%를 차지하고 있다.

### 3.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 가. 매입·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제조업체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대중국 수출입 유발효과와 한국 제조업체의 대중국 투자액을 기초로 투자에 따른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유발액을 추산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대중국 수입의 40.3%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매입·매출전략을 변화시킬 것이다. 즉, 진출기업의 매입과 매출전략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및 최종재의 역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무관세에 따른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증대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이후 부품과

제품에서 모두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진출기업이 매입과 매출전략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매입과 매출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중간재 조달 전략의 전환 가능성

한·중 FTA로 원부자재에서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대중국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간재를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한·중 FTA의 무관세 혜택이 커짐으로써 FTA 이후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원부자재를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FTA가 원부자재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FTA 이후 무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내에서 조달하던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원부자재를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역시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이후 기업의 중간재 조달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조달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2.6%가 FTA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조달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5%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내 조달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FTA 이후 무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7.9%를, 제3국에서 수입하던 부분을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FTA로 중간재 분야에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8. 한·중 FTA 이후 매입 전략의 변화 가능성

(단위: 기업 수, %)

구 분	기업수	구성비(%)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74	27.9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11	4.2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65	24.5
제3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0.8
현재 비율 계속 유지	113	42.6
응답기업 수	265	100.0
무응답	23	-
조사 대상기업 수	285	-

자료: 실사결과.

그러나 응답기업의 71%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중국 내 조달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변화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수출 경쟁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인건비 상승 부담뿐 아니라, 2008년 신 「노동계약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비용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았으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자금부담 압력도 커지고 있다. 셋째,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위엔화 환율이 지속적인 절상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물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간재의 현지조달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중 FTA에 관계없이 현지 조달을 강화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 제품 판매 전략의 전환 가능성

한·중 FTA로 최종재에서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대중국 투자기업의 매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품을 한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FTA의 무관세 혜택이 클 것이며,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거나 제3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FTA 이후 기업의 제품 판매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이후 무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9.5%로 나타났으며, 2.2% 기업의 경우 제3국에 수출하던 부분을 한국에 대한 수출로 전환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의 49.2%가 FTA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판매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7%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내수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중 FTA로 최종재에서 무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소폭이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9. 한·중 FTA 이후 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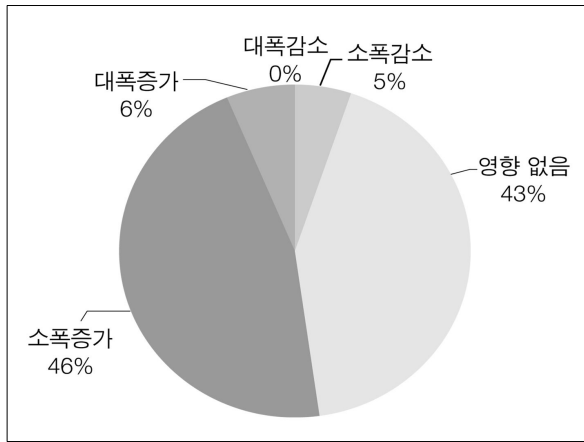
(단위: 기업 수, %)

구 분	매출전략	구성비(%)
수출 비율 확대	67	29.5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국 수출 전환	5	2.2
중국 내수 판매 비율 확대	47	20.7
제3국으로 수출 확대	19	8.4
현재 비율 계속 유지	89	39.2
응답기업 수	227	100.0
무응답	58	-
조사 대상기업 수	285	-

자료: 실사결과.

한·중 FTA가 이후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6%가 한·중 FTA가 해당 기업의 대한민국 수출을 소폭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3%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16. 한·중 FTA가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출에 미칠 영향



자료: 실사결과.

### 3)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FTA가 대중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관세 효과 측면에 한정지어 분석하였지만 FTA의 다른 요소들도 대중 투자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TA의 무관세 효과가 대중 투자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나설 것이며, 한·중 FTA로 대중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중 FTA가 양국간 투자협정(BIT)을 포함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투자 유치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 투명도를 제고함으로써 양국간 투자 증대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이후 생산라인의 재편 가능성을 조사하여 보았다. 즉 한·중 FTA 이후 중국과 한국 내 생산

라인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한·중 FTA가 중국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4%가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의 43.2%가 중국 내 생산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9.8%는 한국 내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중국 내 생산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4%는 중국 내 생산라인만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중국사업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10개 중 2개 기업이 한국 내 생산라인을 축소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한·중 FTA가 국내 제조업의 중국이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0. 한·중 FTA 이후 생산라인의 조정 가능성

	기업 수	구성비(%)
한국 라인 축소+중국 라인 확대	50	19.8
중국 라인 축소+한국 라인 확대	9	3.6
한국 내 생산라인만 확대	2	0.8
중국 내 생산라인만 확대	59	23.4
현상 유지	132	52.4
응답기업 수	252	100.0
미응답	33	-
조사 대상기업 수	285	-

자료: 실사결과.

## 나. 업종별 매입·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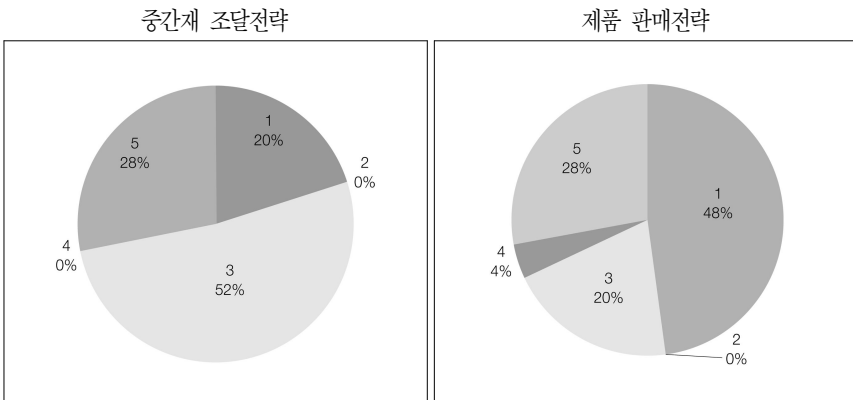
### 1) 자동차

자동차 업종의 경우 중국시장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부품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응답자의 52%가

한·중 FTA와 관계 없이 현지부품 조달 비중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28%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며, 20%만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될 경우 부분적인 비용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재 중국 내의 완성차 가격인하 경쟁을 감안할 때 현지화를 통한 가격인하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품의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한·중 FTA 이후 자동차 부문에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이 4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중국 내 판매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28%와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17. 자동차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li> <li>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li> <li>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li> <li>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li> <li>5. 현재 비율 계속 유지</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li> <li>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li> <li>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li> <li>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li> <li>5. 현재 비율 계속 유지</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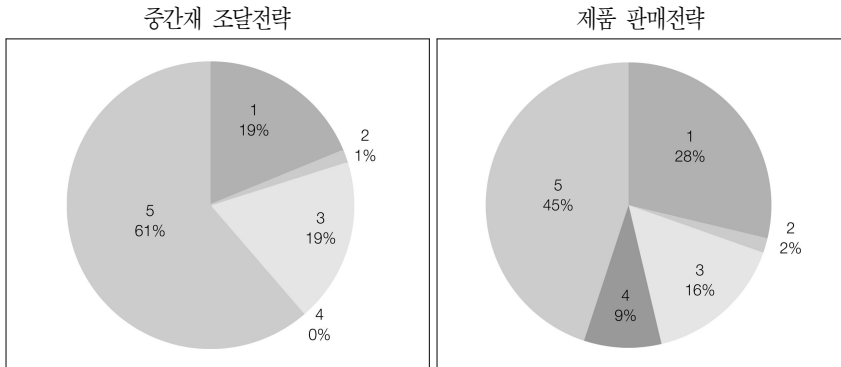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2) 전기전자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전기전자 업종의 주요 부품은 상호 무관세가 실시되고 있거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한·중 FTA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 업종에서는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조달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어섰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현재 중국의 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임가공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중국에 수입될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기업의 19%는 FTA와 관계없이 현지조달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현지조달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소폭이나마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부품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전략에서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를 차지하였으며, 16%는 중국 내 판매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FTA 이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부품 업체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8. 전기전자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자료: 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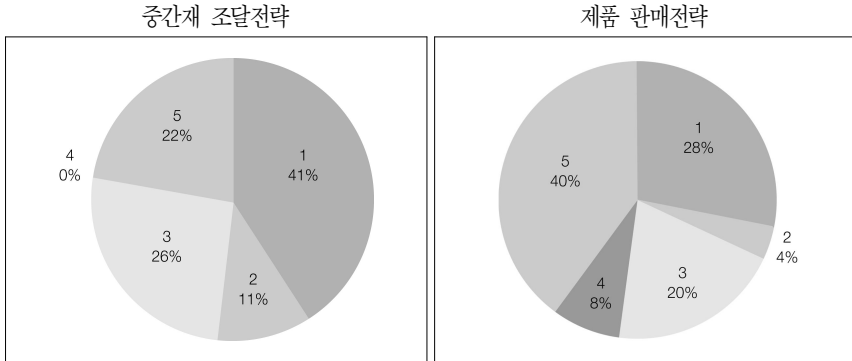
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
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 3) 기계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기계 업종의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향한 부품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 업종의 기업의 경우 무관세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41%를 차지하였으며,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한국산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22%는 현재의 조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6%의 기업은 중국 내 조달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판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0%가 현재의 판매구조를 유지할 것이며, 20%의 기업은 중국 내 판매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간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8%를 차지하여 한국계 기업에 의한 역수입(buy-back)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9. 기계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
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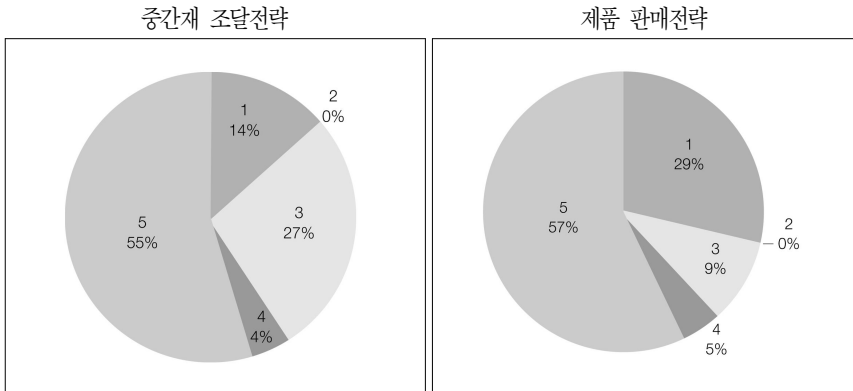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4) 섬유·의류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에는 임가공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한·중 FTA 이후 기업의 매입과 매출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류 업종에서는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조달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7%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응답기업의 27%는 FTA와 관계없이 현지조달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지조달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하고, 4%의 응답자는 제3국에서 수입하던 원부자재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의한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판매 전략에서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7%를 차지하였으며, 16%는 중국 내 판매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FTA 이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섬유·의류 업체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0. 섬유/의류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국 수출로 대체
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자료: 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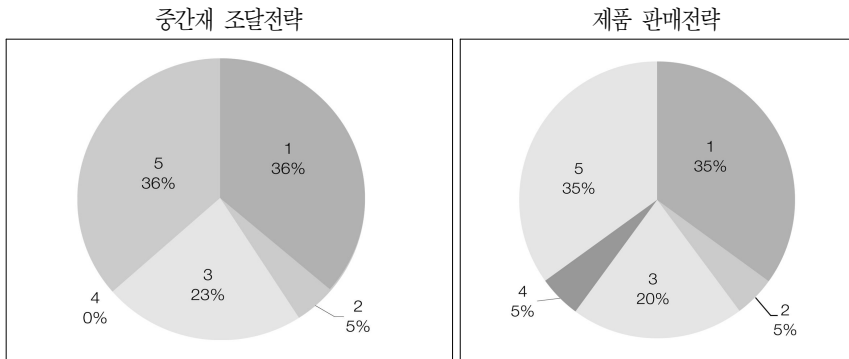
### 5) 철강·금속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철강·금속 업종에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향한 부품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금속 업종 기업의 경우 무관세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한국에

서의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36%는 현재의 조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3%의 기업은 중국 내 조달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판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35%가 현재의 판매구조를 유지할 것이며, 20%의 기업은 중국 내 판매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간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5%를, 제3국으로 수출하던 부분을 한국에 대한 수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를 차지하여 한국계 기업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1. 철강·금속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자료: 실사결과.

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
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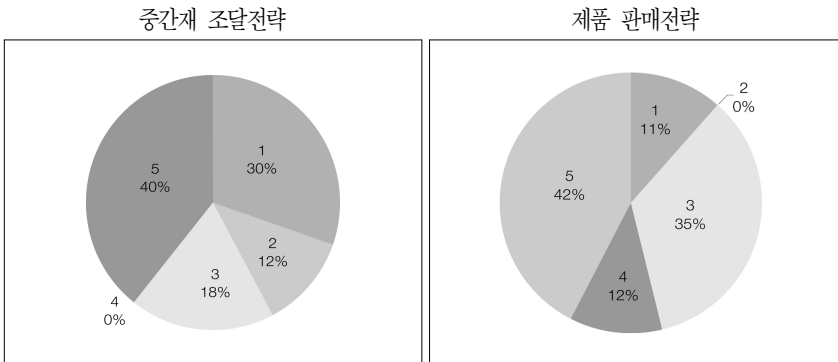
## 6) 화학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화학 업종에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향한 원료 수

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 업종 기업의 경우 무관세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40%는 현재의 조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8%의 기업은 중국 내 조달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화학 업종에서도 한국계 기업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2%가 현재의 판매구조를 유지할 것이며, 35%의 기업은 중국 내 판매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간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에 불과하였다.

그림 5-22. 화학 업종의 한·중 FTA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li> <li>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li> <li>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li> <li>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li> <li>5. 현재 비율 계속 유지</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li> <li>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li> <li>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li> <li>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li> <li>5. 현재 비율 계속 유지</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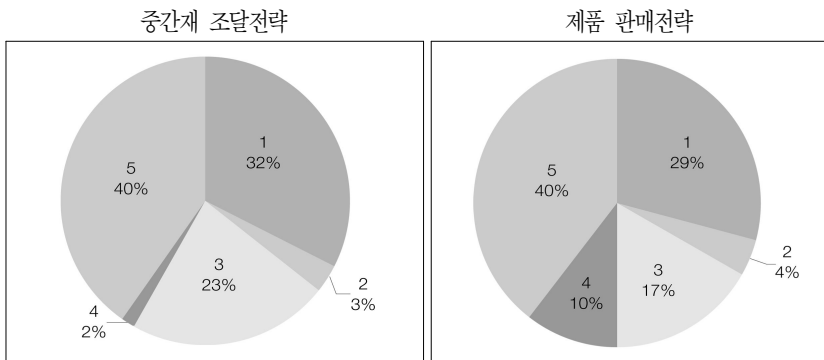
자료: 실사결과.

## 7) 기타 제조업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기타 제조업 업종에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향한 원료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관세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40%는 현재의 조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고, 23%의 기업은 중국 내 조달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기타 제조업 업종에서 한국계 기업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29%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는 제3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대한민국 수출도 대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응답기업의 40%는 현재의 판매구조를 유지할 것이며, 17%의 기업은 중국 내 판매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5-23. 기타 제조업 업종의 한·중 FTA 이후 매입·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



1.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율 확대
2. 제3국 수입 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
3. 중국 내 조달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부터 수입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1. 한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2. 제3국 수출 부분을 대한민국 수출로 대체
3. 중국 내 판매 비율 확대
4. 제3국으로의 수출 비율 확대
5. 현재 비율 계속 유지

자료: 실사결과.

## 4. 소결: 매입·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 가. 매입·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한·중 FTA를 통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매출전략 변화가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매입과 매출 구조, 한·중 FTA 이후 각 기업의 매입과 매출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대중국 수출입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간재의 매입과 최종재의 매출 구성을 기준으로 중국 진출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38)</sup>

표 5-11. 대중 투자기업의 매입·매출 패턴

구 분		매 출		
		현 지	한 국	제3국
매 입	현 지	Case 1 (승용차, 화학, 기계, 철강·금속)	Case 2 (섬유·의류)	Case 3 (전기·전자, 의류 (기타제조업))
	한 국	Case 4 (철강·금속, 자동차부품)	Case 5 (전자부품)	Case 6 (전기·전자, 의류)
	제3국	Case 7 (화학)	Case 8	Case 9

첫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Case 4가 이에 해당한다. 철강·금속, 자동차부품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고관세를 유

38)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현지와 한국에서 중간재를 동시에 조달하고, 최종재는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입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지하고 있는 가전,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부품 및 소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사결과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한·중 FTA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부품과 소재의 현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업종 기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늘여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최종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한 최종재를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 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Case 2, 5, 8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섬유·의류, 전자부품 업종과 같이 중국 내 현지 매입 비중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 FTA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섬유·의류, 전자부품 업종에서는 한·중 FTA로 양국간의 부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늘여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기업의 48%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국으로의 역수입(buy-back)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섬유·의류 업종 기업의 경우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달구조를 유지하거나 현지조달 비율을 늘여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투자기업을 향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Case 1, 3, 7, 9의 경우다.

중간재를 주로 현지 조달하여 최종재를 현지에서 주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Case 1) FTA의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작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승용차, 화학, 기계, 철강금속 업종이 동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이 FTA 이후 매입전략을 변경하여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유형의 업종 중에서 FTA로 한·중 간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화학(42%), 기계(52%) 업종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종재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던 철강·금속 업종에서 투자기업에 의한 역수입(buy-back)이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Case 3(전기·전자, 의류, 기타 제조업 업종)의 경우 현재 중국의 중간재 수입관세가 높은 경우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섬유·의류,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기전자는 48%, 섬유·의류는 29%로 한국으로의 buy-back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Case 7(화학 업종)의 경우 현재 중국의 중간재 수입관세가 높은 경우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중간재 조달선을 제3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 대한 실사에서도 화학 업종의 경우 한·중 FTA 이후 한국에서의 조달 비중을 높이거나 제3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를 차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는 FTA가 대중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관세 효과 측면에 한정지어 분석하였지만 FTA의 다른 요소들도 대중 투자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TA의 무관세 효과가 대중 투자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나설 것이므로 한·중 FTA 이후 대중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투자협정(BIT)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과 중국에서의 최종재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순무역수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대상기업의 대한국 수입액과 대한국 수출액을 해당 기업의 투자 잔액으로 나누어 투자 단위당 수출 및 수입 유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해당 업종별로 수출입 유발계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수출유발계수에서 수입유발계수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이번에 조사된 288개 기업 중 투자액, 매출액, 매입액이 모두 확인된 211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중국 투자의 단위 투자당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는 0.92, 대중국 수입유발 효과는 0.56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하는 제품을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재보다 중간재 업종에서 투자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투자의 수입유발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중국 무역수지 효과에서는 섬유 및 의류,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부품 업종과 기타 제조업에서는 무역수지 효과가 음의 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2. 대중 투자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계수

구 분	수출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무역수지 효과
제조업 전체	0.97	0.56	+0.41
* 중간재	1.23	0.77	+0.46
* 최종재	0.49	0.28	+0.21
전기전자	1.97	1.73	+0.24
*전자부품 업종	1.80	1.87	-0.07
섬유·의류	1.69	0.59	+1.10
철강·금속	1.63	0.59	+1.04
자동차	0.61	0.34	+0.27
*자동차부품	0.88	0.65	+0.23
화학	0.38	0.07	+0.31
기계	0.35	0.25	+0.10
* 기계부품	0.47	0.18	+0.29
기타제조업	0.84	0.89	-0.05

자료: 실사결과를 기초로 필자 계산.

분석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투자의 수출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무역수지 효과 등 모든 면에서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기존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매입과 매출 구조를 통해 대중국 투자의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효과를 추산한 결과는 수출입은행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무역협회(2003)에서 추정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2003)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

출 유발효과를 1.19, 수입유발 효과는 0.6으로 추정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단위당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는 0.792, 수입유발 효과는 0.674로, 0.118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수출유발 효과는 2.084, 수입유발 효과는 0.73으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1.35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수입유발 효과는 커진 반면, 무역수지 효과와 수출유발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간재 조달의 현지화가 강화되고, 한국으로의 역수입(buy-back)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표 5-13.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추정

회계연도	수출유발 효과	수입유발 효과	무역수지 효과
2000	0.87	0.64	0.23
2001	0.70	0.54	0.17
2002	0.79	0.67	0.12
2003	1.23	0.89	0.34
2004	2.29 (2.49)	0.83 (0.88)	1.46 (1.61)
2005	2.08 (1.82)	0.73 (0.79)	1.35 (1.03)
2006	1.66 (1.77)	0.84 (0.90)	0.82 (0.87)

주: ( ) 안은 제조업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각 연도.

양평섭(2007)은 제조업 평균 순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1.65로 추정하였으며,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3.27이었으며, 다음으로 운송장비(2.55), 기계(1.58), 철강·금속(1.23), 가죽·신발(1.07) 업종이었다. 이외

39) 한국수출입은행(2007), p. 187.

에 고무·플라스틱(0.04) 등 소재 업종과 섬유·의류(0.26) 업종에서도 대중국 무역수지 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금속광물(-0.09), 음식료품(-0.03), 기타 제조업(-0.10)의 경우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순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음의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업종별 대중국 투자의 평균 수출입 유발계수

(단위: 백만 달러)

진출업종	투자잔액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현지법인에서의 수입		순무역수지 개선 효과
		수출액	수출유발계수	수입액	수입유발계수	
가죽·신발	101	290	2.86	181	1.79	1.07
고무·플라스틱	375	104	0.28	91	0.24	0.04
기 계	180	370	2.06	86	0.48	1.58
비금속광물	288	53	0.18	79	0.28	-0.09
섬유·의류	397	187	0.47	85	0.22	0.26
운송장비	394	1,112	2.82	108	0.27	2.55
음식료품	202	2	0.01	9	0.04	-0.03
전기전자	1,684	9,007	5.35	3,495	2.08	3.27
철강금속	636	991	1.56	210	0.33	1.23
화 학	354	64	0.18	29	0.08	0.10
기타 제조업	122	70	0.57	82	0.67	-0.10
제 조 업	4,734	12,250	2.59	4,455	0.94	1.65

주: 순무역수지 개선 효과 = 수출유발계수 - 수입유발계수  
 자료: 양평섭(2007).

또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유발액을 추정하면 한국 대중국 교역의 약 48.9%가 대중국 투자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액은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수입)유발계수 × 한국의 대중국 투자 실행액으로 추산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06년 말 현재 투자액 350억 달러로 하였다.<sup>40)</sup>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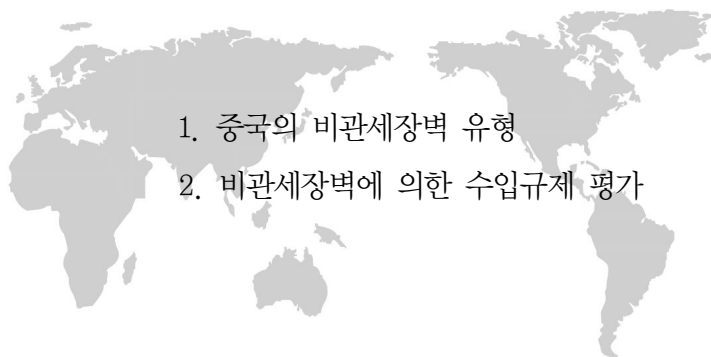
한 방법으로 대중국 투자의 대중국 수출유발액을 추정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34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이것은 한국 대중국 수출액(695억 달러)의 48.9%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에 의한 대중국 수입유발액은 196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486억 달러)의 40.3%에 해당하는 것이다.

---

40) 중국상무부(2007) 참고.

## 제6장

#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본 장에서는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sup>41)</sup>, 일본 경제산업성의 『불공정무역 보고서』<sup>42)</sup>, 외교통상부의 『외국의 통상환경』, KOTRA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sup>43)</sup>등 기존 보고서를 기초로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기존 보고서의 경우 각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한·중 간 교역과 투자기업에 얼마나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역하고 있거나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우리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그 사례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중국 역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한국의 다양한 수입규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중국 정부는 매년 한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44)</sup>

41)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several years.

42) 日本經濟産業省(2007), 『2007年版不正貿易報告書』.

43) KOTRA(2006),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

44)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무역과 투자장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무역장벽으로서 관세 및 관련조치(조정관세, 관세쿼터,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통관장벽(과다한 농산물 수출율, 통관 전 세액심사제도),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구제조치, 국영무역, 서비스 무역장벽,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장벽으로는 실업보험과 국민연금 보험의 이중납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中國商務部(2007), 『国別貿易投資環境報告 2007』.

##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앞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표 6-1.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제품 수입금지(기계, 전기전자, 의류)</li> <li>* 관세쿼터 실시(설탕, 섬유, 밀, 옥수수, 벼와 쌀, 면화, 화학비료 등)</li> <li>* 수입허가증, 자동수입허가증(수입 모니터링 목적)</li> <li>* CD복제용 생산설비 자동수입허가제(모니터링 제도)</li> <li>* 수입플랜트 사전신고제(심천지역)</li> <li>*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요구</li> <li>*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li> </ul>
기술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인증제도(CCC)</li> <li>*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li> <li>* 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사용</li> <li>*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li> <li>* 디지털 도어록 공안부 MA 검측 요구</li> <li>*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li> <li>* 수입계량기구 형식 검증 제도</li> <li>*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li> <li>* 신규 화학대체물질 규제</li> <li>* 수입식품 포장 표기(중문 라벨 부착)</li> <li>*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 요구</li> </ul>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수입절차(강제성표준 규정)</li> <li>* 통관지 제한(의약품, 자동차)</li> <li>*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li> <li>*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li> <li>* 보세운송 불허</li> <li>* 수입신고 기한 제한 및 지체금 부과</li> <li>* 이중세관 검사(발취검사 후 전량검사)</li> <li>*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li> <li>* 특혜관세를 불인정(일부 세관)</li> <li>* 세관의 짧은 통관시간으로 통관 지연</li> <li>* 과도한 통관심사</li> </ul>

표 6-1. 계속

유형	주요 내용
환경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li> <li>* 화학품 최초 수입 등록제 실시</li> <li>*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li> <li>* 페플라스틱 수입 규제</li> <li>* 가전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 제한</li> <li>* 친환경 설계와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 부과(자동차)</li> <li>*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실시</li> </ul>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료종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자국산에 유리한 경쟁조건 형성)</li> <li>* 특정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독점</li> <li>* 지방보호주의의 존속에 따른 마케팅 제한</li> </ul>
투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및 휴대폰의 중국산 부품·기기 사용 장려</li> <li>* 완성차 특정 인증제도</li> <li>* 수입차와 국산차 견매 금지(영업 제한)</li> <li>* 노동이동의 경직성</li> </ul>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 및 중국산 제품 우선 구매</li> </ul>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방품, 해적판 문제</li> <li>* 주지상표문제</li> <li>* 특허 및 노우하우 등 라이선스 규제</li> </ul>
투명성/상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규정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li> <li>* 제도 운영 및 법 적용의 투명성 미흡</li> <li>* 지방정부 제도운용 통일성 결여</li> <li>* 사법판단의 중립성 미비 우려</li> <li>* 부패로 인한 상업적 기준에 의한 계약이행 제약</li> <li>* 빈번한 법규 개정으로 인한 혼란</li> </ul>

자료: 필자 정리.

## 가. 수입제한 조치

### 1) 수입금지

중국은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매우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 발표하고 있다.

첫째, 중국정부는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 보호,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생태환

경 유지, 국제협정상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중국은 62개 품목(HS 8단위 또는 10단위 기준, 이하 동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미가공 사람의 모발,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 약물, 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물, 화학공업 폐기물, 폐건전지 등이다.

둘째, ‘중고기전제품 수입금지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총 410개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운관용 유리, 증기보일러 및 관련부품, 버너, 중고 모니터, 중고 열전자관, 중고차(견인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및 중고 부품, 중고 오토바이(배기량 50cc 초과), 중고 자전거, 유모차, 중고 의류기기, 전자게임기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sup>45)</sup>

## 2) 수입허가증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전 비관세조치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동시에 신규 도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sup>46)</sup> 이러한 합의에 따라 수입허가품목을 점차 축소하여 현재 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은 감시화학품, 독성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3종에 국한되어 있다. 2007년 1월 현재 중국 정부는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CFC12 등),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한 화합물 등 57개(HS 8단위 및 10단위 기준, 이하 동일) 품목의 오존층 파괴물질, 82

45) 중국의 수입금지에 있어 GATT 20조(일반예외)와 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고기전제품 수입금지 목록’에서 중고게임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GATT 예외규정에 근거한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

46) 「中華人民共和國加入議定書」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입허가 및 쿼터철폐 일정에 대해서는 「부속문건 3」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 감시대상 화학품, 22개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등 3가지 화물에 대하여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무역 관련조례에 따라 64개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원료, 18개 방사성 화학물, 41개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sup>47)</sup>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License of Dual-use Substances and Technologies)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635개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과 421개 기타 공산품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증(自動輸入許可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廢紙) 등에 대해 자동허가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수입허가증발급은 정부의 심사허가대상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등록 및 발급(1~10일 내)해 준다.<sup>48)</sup> 이 외에 음반, 영화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CD롬 등 13개(HS 8단위 기준) 영상·음향 제품에 대해서는 문화부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6년 해당 제품의 중국 수입액은 26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금액은 1억 5,700만 달러이다.

### 3) 관세쿼터 대상품목

중국정부는 밀, 옥수수, 벼와 쌀, 당, 양모, 방모사(毛條), 면화 등 7종의 42개 농산품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및 복합비료 등 화학비료 3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8개 종류 45개 세목(HS 8단위)에 대해서 관세쿼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화학비료의

47) 이중사용물질(Dual-use Substances)은 일반상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기 및 독극물 생산에도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48) 동 제도는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수입규제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쿼터(300만 톤 규모) 세율은 종전대로 1%이며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면화는 쿼터 내에서는 1%에 불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쿼터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내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표 6-2. 중국의 관세쿼터(tariff quota) 품목

상품(세번)		쿼터량	관세율(%)	쿼터 내 세율
		2007년	MFN세율	
밀 (10011000,10019010,10019090, 11010000,11031100,11032010)		963.6 (국영무역: 90%)	65	1~10%
옥수수 (10051000,10059000,11022000, 11031300,11042300)		720 (국영무역: 60%)	20~65	1~10%
쌀 및 도곡	10061011,10061019 10061091,10061099 10062010,10062090 10063010,10063090 10064010,10064090	532 (국영무역: 50%)	65	1
	11029011,11029019		40	9
	11031921,11031929		10	9
식용설탕 (17011100,17011200,17019100, 17019910,17019920,17019990)		194.5 (국영무역: 70%)	50	15
양모 (51011100,51011900,51012100, 51012900,51013000,51031010)		28.7	38	1
방모사(毛条) (51051000,51052100,51052900)		8	38	3
면화	52010000	89.4	6~40	1
	52030000	(국영무역: 33%)	40	1
화학비료 (만톤)	31021000	330	50	4(잠정세율 1%)
	31052000	345	50	4(잠정세율 1%)
	31053000	690	50	4(잠정세율 1%)

자료: 중국 상무부 사이트.

중국의 관세쿼터를 적용받고 있는 제품의 2006년도 수입액은 32억 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0.4%를 차지하고 있다.<sup>49)</sup> 관세쿼터 대상품목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900여 만 달러로 전체 대한국 수입액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관세쿼터 대상인 3개 화학비료 수입액은 8억 8,100여 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쿼터배분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나. 주요 기술장벽

### 1)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은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장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02년 이후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국가표준이 수정 또는 제정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1,950건을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중 수출 및 현지 생산이 금지된다. 이러한 국가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규정 등에서 자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시장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GB로 표시되는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과 GB/T로 표시되는 국가 추천성 품질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은 중국산과 수입산을 불문하고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국가 강제성·추천성 품질기준 현황은 [표 6-3]과 같다.

49)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05년까지 수입쿼터 품목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점차 축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쿼터규제를 받는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8%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표 6-3. 자동차 관련 국가 강제성 품질기준 현황

표준기호	표준명칭
GB/T 5764-1998	자동차용 클러치 보드
GB 5763-1995	자동차용 제동기 좌금
GB/T12539-1990	자동차 언덕주행 검사방법
GB/T12540-1990	자동차 최소 회전직경 측정방법
GB/T12541-1990	자동차 지형통과성 측정방법
GB/T12542-1990	자동차 엔진 냉각계통 냉각능력 도로검사방법
GB/T12543-1990	자동차 가속성능 검사방법
GB/T12544-1990	자동차 최고속력 검사방법
GB/T12545.1-2001	승용차 연료소모량 검사방법
GB/T12545.2-2001	상용차량 연소소모량 검사방법
GB/T15746.1-1995	자동차 보수 품질검사 평가기준 - 자동차 전체 보수
GB/T15746.2-1995	자동차 보수 품질검사 평가기준 - 엔진 전체 보수
GB/T15746.3-1995	자동차 보수 품질검사 평가기준 - 차체 전체 보수
GB/T17692-1999	자동차용 엔진 정화성능 측정방법
GB 18296-2001	자동차 연료통 안전성능 요구 및 검사방법
GB/T18297-2001	자동차 엔진 성능 검사방법
GB 18408-20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후방 번호판 조명장치 광배합 성능
GB/T8409-1999	자동차 엔진 회전장착식 윤활유 여과기 연결 크기
GB 8410-1994	자동차 내장 재료의 연소특성
GB/T18411-2001	도로차량제품 제품마크

자료: 中国标准化管理委员会(<http://www.sac.gov.cn>).

섬유산업의 경우에도 신소재, 바이오, 기능성 섬유 등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되거나 제정될 예정이다. 이미 제정된 기술표준으로 2006년 7월 공표된 「CAS115-2005 보건기능섬유협회 표준」과 2006년 8월 완성된 「FZ/T73023-2006 항균 편물 표준」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 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중국 섬유업계는 신소재 표준, 바이오 섬유 표준, 기능성 섬유 표준, 중점제품 표준을 중심으로 144개

의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144개 가운데 국가표준은 65개, 업계표준은 79개이며, 2000년 이전에 제정된 표준 325개를 수정할 예정이다.

## 2) 독자적인 기술표준

중국의 기술표준화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 협회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는 통신 분야에서는 TD-SCDMA(기존 CDMA), 인터넷 분야에서는 IPV6(기존IPV4), 전자 식별 분야에서는 RFID, 소프트웨어에서는 LINUX와 IGRS 표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식 표준방식으로서 국제 방식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이 방식에 맞추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유사한 다른 나라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중국만의 표준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중국식 표준’은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인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sup>50)</sup>의 제2조 7항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상이할지라도 자국의 기술 규정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중국의 기술 인허가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 지역마다 인증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인허가에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어 IT 업체와 같이 제품 주기가 짧은 산업의 경우는 제품 출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TBT 협정 2조 1항의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과 7조 2항의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미 통보한 적

50)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처음 제정된 후, WTO 체제에서 개선 및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무역장벽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합관정절차와 그 기술적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합관정절차에 대해 재차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지방정부의 적합관정절차가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3)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sup>51)</sup>에 따라 2002년 5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정하는 강제인증 품목 리스트를 정하고,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합격한 후 지정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취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공장출하 판매 및 수입, 경영활동에 사용된다. 지정인증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을 결정해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001년 12월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대상품목의 132개 품종을 제1차 ‘CCC’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 일부 자동차부품, 완구제품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동일한 HS 코드상에서 일부 규격품목만이 CCC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기타 규격품목에 대해 CC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CCC 인증제도에 대한 중국 세관의 이해부족으로 실제 통관시에는 해당제품이 인증대상으로 간주되어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세관당국 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사항도 존재한다. 그리고 CCC 마크 획득시 중국 내 현지인을 통한 인증 신청을 의무화

51)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하고 있어 이 또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간이 길다는 점과 인증에 따른 경비 발생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 4) WAPI(무선랜암호화표준, Wireless 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WAPI는 중국의 무선랜 암호화 표준으로, 중국정부가 새로운 WAPI 암호코드의 배포권한을 11개 중국 업체에 독점시킴으로써 외국 업체가 WAPI를 이용하려면 중국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4년 초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자체 무선랜 규격 WAPI를 제정, 의무화하려다 미국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중국정부는 WAPI의 강제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WAPI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전략을 전환하였지만 2005년도 ISO(국제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회의에서 WAPI 표준안은 기존의 무선 LAN 규격과 호환성이 없고 대부분의 다국적 무선 LAN 기업이 IEEE 802.11b 규격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부결되었다. 그러나 WAPI의 보급 확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독려로 중국 내 22개 IT 업체들이 'WAPI 산업연맹'을 결성하고 있다.

#### 5)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표기(China Energy Label) 의무화

중국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05년 3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표기관리방법」<sup>52)</sup>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표기 제품목록'을 발표하여 중국 국내산과 수입산 에어컨 및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500L 이하 전기구동압축식 냉장고, 공기냉각기와 완전밀폐형 전동압축기를 이용한 14,000W급 이하 냉각량의

---

52) 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가정용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 3월 1일부터는 기준세탁용량이 13KG급 이하인 가정용 전동세탁기와 냉각량이 7,100W 이상인 전기구동형 압축기를 이용한 단원식(单元式) 에어컨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 6) 디지털 도어락 공안부 MA 검측 통과 의무화

중국 내 디지털 도어락은 <공안부보안제품검측집행표준<sup>53)</sup>>에 의거하여 공안부 MA 검측을 통과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GA374-2001 전자식 도난방지 도어락 테스트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검사기간은 약 한 달, 신청비용은 약 8,000 위안이 소요되며 테스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 7) 수입 계량기구의 감독강화

중국은 1996년 「수입 계량기구 감독관리방법」<sup>54)</sup>을 발표하여 ‘수입계량기구型式검증품목리스트’에 포함되는 항목은 국가기술감독국이 발급하는 ‘형식인증서’나 ‘임시형식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6년 1월 중국정부는 75개 대상품목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입계량기구 형식검증품목리스트’를 발표하고 1996년의 품목리스트는 폐지하였다.

### 다. 환경규제 조치

#### 1)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중국은 2006년 2월 28일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sup>55)</sup>을 발표하였고

53) 公安部安防产品检测执行标准.

54)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监督管理办法.

55) 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 규정은 EU의 RoHS와 유사한 조치로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비페닐에테르(PBDE) 등 난연제를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제품라벨 또는 포장에 유독물질 명칭과 함량, 회수이용가능 등의 정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전자정보제품분류주석」<sup>56)</sup>을 발표하여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레이더 설비 제품, 통신설비 제품, TV 방송설비 산업 제품, 컴퓨터산업 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측량기구 제품, 전자산업 전용 설비제품, 전자부품, 전자응용 제품, 전자전용재료 제품 등 10대 전자정보 제품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두 가지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시장 진입 시, 관련정보를 라벨이나 포장에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나 기준함량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그러나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은 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기준함량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이 제품들은 엄격한 CCC 인증과정을 통해 합격관정을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동 규정은 EU 등 타국의 유사지침에 비해 포장재, 생산 공정에 대한 추가 규제, 라벨링 규정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과 표시지침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

중국은 제품의 전자수용능력 제고, 설비안전과 환경보호, 고객과 소비자 이익 보

56) 电子信息产品分类注释.

호 등을 위해 1999년 10월부터 「전자수용인증관리방법」<sup>57)</sup>을 시행해오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 등 6개 전지품목들은 중국 내 판매를 위해 국가질량기술감독국의 전자수용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 1)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수입허가증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한 ‘2007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여 이 목록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HS code 10단위 기준, 57개)에 대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2)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6년 12월 30일 ‘2007년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을 발표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제1차 목록’을 발표하고 11년만인 2005년 6월 ‘2차 목록’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5년 말에는 1, 2차 목록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목록’의 수출입제한 대상품목은 총 82개(HS 코드 10단위 기준)로, 해당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등록증’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유독화학품을 수출할 경우 유독화학품 수출계약서별로 외국기업 명의의 ‘유독화학품 수입

57) 电磁兼容认证管理办法.

환경관리등기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수입상은 외국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 관리등기증'별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해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지서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한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 산하 화학품등록센터가 발급한다.

### 3) 의약품 허가 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藥典) 적용

중국은 「수입의약품관리방법」<sup>58)</sup>에 따라 수입 의약품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의약품 허가 심사시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정 약전을 적용하고 타 국가의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자료의 의무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임상실험 결과를 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6~1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 4)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의약품 등록제도, 임상시험기준과 판매유통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실시 중이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 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 는 「수입약품관리방법」을 들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수입의약품 등록증을 취득 해야 하고 수입시에는 수입항만의 약품 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 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수입시에는 최초로 수입신고를 한 항만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58) 进口药品管理办法.

제한하고 있고,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5) 수입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 실시

화장품의 경우,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 위생 허가증<sup>59)</sup>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며,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득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 화장품은 2개월, 기능성(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보통 8개월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수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위생허가증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준비서류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여 전문적인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 통관 관련규제

### 1) 관세부과시 공식가격 비공개

중국은 수입품의 저가신고 및 덤핑방지를 목적으로 원유, 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세관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공식

59)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비기능성 화장품은 「卫生部关于简化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卫生许可程序的通知」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심사등록 절차가 감소되어 5일 내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20일 내 등록여부를 통지하게 되어있다. 위생허가증 발급은 북경에서 발급되므로, 타도시보다 북경 현지 업체를 이용해 허가증 발급을 대행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경우 위생허가를 받는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관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식 가격제란 세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법률은 중국 해관의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결정 공포에 관한 규정(關於公布海關審定公式定價進口貨物完稅價格的有關規定)」이며,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표 6-4.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순서	품 목	HS 코드
1	대두	12010091
2	철광사 및 철광사 정광	26011110, 26011120, 26011190 26011200
3	구리광사 및 구리광사 정광	26030000
4	석유원유 및 아스팔트 광물의 원유	27090000
5	기타 디젤유 및 기타 연료유	27101929
6	5~7호 연료유	27101922
7	액화 프로판	27111200
8	액화 부탄	27111390
9	액화 프로판, 액화 부탄 혼합물	27111200 혹은 27111390
10	산화알루미늄(제련급)	28182000
11	벤젠	29022000
12	메틸벤젠	29023000
13	파라자일렌(P-Xylene)	29024300
14	스티렌(Styrene)	29025000
15	Isooctyl Alcohol	29051600
16	1, 2-에틸렌글리콜	29053100
17	테레프탈 산	29173610
18	아크릴로니트릴	29261000
19	순MDI(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29291030
20	중합MDI	38249040
21	전해정련동	74031100
22	비합금알루미늄	76011010, 76011090

수입화물이 규정에서 지정한 대상<sup>60)</sup>에 속할 경우 공식가격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제 실시로 인해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관세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업송장이나 실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관세산정 기준을 질의해도 이에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2) 완성차 및 부품 수입 통관지 제한

중국은 2004년 발표한 「자동차 산업 발전정책」<sup>61)</sup>에 의거하여 완성차 수입과 자동차부품수입시 통관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완성차 수입은 다롄항, 톈진신항, 상하이항, 황푸항, 만주리항, 선전항, 아라산코우(阿拉山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지 제한으로 수입항에서 자동차 판매지까지 운수 물류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2005년부터 보세구역 내 내수용 차량 적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자동차는 항구 도착 즉시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 3) 화학품에 대한 보세운송 불허<sup>62)</sup>

중국은 「수출입 보세운송화물 통관제도」<sup>63)</sup>에 따라 일부 화공품(화학무기 제조

60) 公式定價進口貨物常見商品名單.

61) 汽車產業發展政策.

62) 보세운송을 불허하는 품목은 화공품 이외에 자동차와 폐기물(동물 폐기물, 야금·제련 폐기물, 나무·나무제품 폐기물, 방직품 폐기물, 금속 및 금속제품 폐기물, 각종 폐금속·폐전기제품, 폐운송 설비, 특수용도 수입폐기물, 페플라스틱 부스러기 등)이다.

가능 감시대상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화학무기 주요성분, 화학무기원료,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염화나트륨 등)의 경우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도착항구에서 통관을 강요해 상당한 경비 및 시간의 소요를 초래하고 있다.

##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 1) 중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장려 정책

중국은 1994년 산업정책에서는 합자기업의 자동차 생산시 반드시 40% 이상의 국산부품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2004년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정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sup>64)</sup>을 실시, 완성차의 특징을 지닌 부품 수입의 경우에는 부품관세(평균 9.5%)가 아닌 완성차 세율(25%)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를 독려하고 있다. 본 관리방법에 따라 내수용 자동차부품 수입시 해당 부품의 완성차 특징 여부를 자체 심사하여 완성차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부품 관세(평균 9.5%)가 아닌 완성차 관세(평균 25%)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차체(운전석 포함) 전체, 엔진 전체, 변속기 전체 등은 완성차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부품의 가격(CIF 가격 합계)이 완성차 총액의 60% 이상일 경우도 완성차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녹다운(knock-down) 부품 수입시에도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가입시 CKD 부품과 SKD 부품에 대해 10%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용 자동차부품 수입시 완성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63) 进出口转关运输货物的通关制度.

64)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관정만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부담(15.5%)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향후 외자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압력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될 것이며, 이들 기업 역시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부품의 현지화를 확대할 경우 이 같은 규정은 거의 무효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철강설비 국산화 요구

철강산업에서는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7월 20일 발표된 「철강산업발전정책」<sup>65)</sup>에 따르면 신설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설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수준과 설비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설비는 국내생산이 불가할 경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설비에 한해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태된 중고 외국 생산설비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국산장비를 이용한 철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수감면, R&D 지원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3) 철강산업의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철강산업발전정책」에 따르면 외국 철강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모두 국가발전 개혁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연간 생산량이 일반 철강재는 1,000만 톤 이상(중국 철강시는 500만 톤 이상), 특수강은 100만 톤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제강기술의 지재권 보유, 자체 유통 및 물류시스템 보유, 기술이전 의무화 등 일정한 진입조건에 부합해야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65) 钢铁产业发展政策.

철강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기존 철강사와 결합해야 하며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 4) 자동차산업 신규진입 제한

중국은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신규투자 총액을 최소 20억 위엔(이 중 자기자금은 최소 8억 위엔)으로 설정하였고 R&D 투자규모를 최소 5억 위엔으로 규정하였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 생산기업의 투자항목에는 완성차에 장착할 엔진 생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산능력도 규정하였는데, 중형트럭은 1만 대, 4기통 승용차는 5만 대, 6기통 승용차는 3만 대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자동차공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무원의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 추진에 대한 통지」 발표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 12월 20일 「자동차공업구조조정 의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본 통지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생산과잉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생산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품산업의 발전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동차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세부적 조치를 열거하였다.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허가에 제동을 걸었으며 연도별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sup>66)</sup> 아울러 전문용 자동차생산업체는 반드시 중국에는 없는 선진기술 자동차를 도입해 연구개발해야 하며 신재료와 신제작기법을 이용해 제품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미트레일러, 덤프트럭, 탱크롤리, 세단 등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제품의 경우 생산공장 신축에 대해 2년 이내 심사등기수속을 잠정 중단하며 기 설립

66) 즉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은 반드시 해당지역 연간 생산허가량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생산량을 허가받지 못한 지역의 경우 연도별 판매량이 승용차 10만 대 이상, SUV 차량 5만 대 이상, MPV 차량 5만 대 이상, 기타 승용차 8만 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연도별 판매량을 대형트럭 1만 대 이상, 중형트럭 5만 대 이상, 소형트럭 10만 대 이상, 초소형트럭 10만 대 이상, 대형객차 5,000만 대 이상, 소형객차 5만 대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전문용 차량생산기업이 이들 차량에 대해 생산신청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 사. 기타 규제

### 1)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에는 모방품·해적판 등 부정제품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정품이 오히려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과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담당자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모방품·해적판의 제조행위가 당해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서 단속정보를 부정상품 제조업자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2)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중국은 2002년 「정부 조달법」을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은 정부조달 관련기본법인 본 법에 의거하여 정부조달을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개된 정부구매에 대해 외국 공급자들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구매 사업에 대한 외국 공급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는 제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조달 대상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중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공급자는 일부 정부 구매 사업에 대해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나 중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다.

### 3) 제도의 투명성 결여

중국은 법 시행과 집행에 있어서 공포되지 않은 법령도 많고 공포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입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며 특히 지방 차원의 세칙 등은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 법령 공포에서 시행까지 여유 기간이 짧아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전인대(全人大)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규정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과 규정이 정기적으로 공포되고 있지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일관성 없이 적용될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수입규제의 대상 품목이 중국의 전체 수입과 대한민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각종 수입관련 규제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현지법인의 비즈니스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중국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의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추정하여 보았다.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 수단은 수입검사 및 검역대상 품목으로서 전체 29.5%에 해당하는 3,529개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2,91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동 품목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202억 달러로 전체 대한민국 수입액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1,81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와 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89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과 기계 및 전자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각각 162억 달러와 89억 달러로, 해당 품목이 대한민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0%, 1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의 중국 수입액은 325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품목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35억 4,400만 달러로 대한민국 전체 수입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음반, 영화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CD롬 등 13개(HS 8단위 기준) 영상·음향제품에 대해서는 문화부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2006년 해당 제품의 중국 수입액은 26억 달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억 5,700만 달러이다(표 6-5 참고).

주요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입관리는 중고자동차 수입금지과 자동수입허가제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19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에서 자동차용 시트를 제외한 188개 품목에 대해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수입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대표적인 투자 관련 장벽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목적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센터 설립,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요구하고

표 6-5. 중국의 주요 수입규제 수단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입규제 유형		대상품목 수		대상규제 수입액(2006년 기준)			
		품목	비중 (%)	대세계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대상품목 수입액	비중 (%)	대상품목 수입액	비중 (%)
전 체		11,974	100.0	791,794	100.0	89,818	100.0
수입 금지	수입금지품목	62	0.5	167	0.0	6	0.0
	중고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수입금지	410	3.4	32,526	4.1	3,544	3.9
수입 허가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허가증	57	0.5	9	0.0	1	0.0
	수입허가증(Dual-use item)	113	0.9	1,392	0.2	436	0.5
	독극물 수입허가증	22	0.2	688	0.1	47	0.1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46	0.4	13,519	1.7	306	0.3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허가증	49	0.4	29	0.0	1	0.0
	멸종위기동물 수입허가증	526	4.4	11,256	1.4	575	0.6
	마취약품수출입허가증	25	0.2	7	0.0	0	0.0
	유독화학물 환경관리 허가통지서	82	0.7	1,039	0.1	264	0.3
	기전제품 자동차수입허가증	635	3.5	181,409	22.9	16,198	18.0
	기타 공산품 자동차수입허가증	421	5.3	89,242	11.3	8,946	10.0
영상·음향제품 수입허가	13	0.1	2,609	0.3	157	0.2	
관세쿼터	45	0.4	3,216	0.4	69	0.1	
기타 수입 규제	입국화물통관서(수입검역대상)	3,529	29.5	291,027	36.8	20,163	22.4
	수출입통관서(conflict diamond)	3	0.0	1,481	0.2	0	0.0
	금제품 수출 또는 수입허가증	9	0.1	201	0.0	21	0.0
	의약품 수입통관서	185	1.5	2,032	0.3	30	0.0
	농약 수출입 등기증서	374	3.1	2,550	0.3	119	0.1
	은행 외화현금 입출국허가서	1	0.0	0	0.0	0	0.0
	ITA 협정 대상상품 용도인증서	11	0.1	3,494	0.4	396	0.4
	수출입비준증	84	0.7	396	0.0	0	0.0

자료: 經濟日報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海關 進出口 稅則』.

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675개 전기·전자제품 중 22개 품목에 대해서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121개 품목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제를 실시하여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수입금지, 특정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허가 및 수입검사, 수출입 업자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표 6-6 참고).

표 6-6. 주요 수입규제 수단별·업종별 규제대상 품목수

(단위: 개)

구 분	기계	비철 금속	석유 및 화학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기 전자	종이 및 판재	철강
총품목 수	1,344	265	2,247	3,377	190	675	149	373
수입금지	0	0	34	1	0	1	0	0
중고 기계·전기제품 수입금지	100	1	0	0	188	22	0	4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허가증	0	0	57	0	0	0	0	0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증	345	0	0	0	100	121	0	0
수입허가증(Dual-use item)	0	0	103	0	0	0	0	0
기타 공산품 자동수입허가증	0	76	52	2	0	0	3	236
수입검사	293	54	169	202	85	196	81	222
멸종위기동물 수입허가증	6	0	31	13	0	0	0	0
독극물 수입허가증	0	0	19	0	0	0	0	0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허가증	0	0	49	0	0	0	0	0
고체 폐기물수입허가증	0	11	5	4	0	0	4	10
의약품 수입통관서	0	0	141	0	0	0	0	0
농약 수출입 등기증서	0	0	374	0	0	0	0	0
미취약품 수입허가증	0	0	21	0	0	0	0	0
유독화학물 환경관리 허가통지서	0	0	81	0	0	0	0	0
AV제품 수입허가	0	0	5	0	0	8	0	0
관세쿼터증명	0	0	3	0	0	0	0	0
수출입비준증	0	0	84	0	0	0	0	0

주: 품목 수는 HS 8단위 또는 10단위 기준임.

글상자 6.1 중국의 수입부담률 추정

중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관세인하만으로는 FTA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다양한 감면세를 통해 관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增值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내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조세부담이 크다. 실례로서 중국은 관세 이외에도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공산품 17%)와 일부 제품(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에 의한 시장보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기준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 9.9%, 관세감면 등을 감안한 실질관세율은 1.8%(관세수입/수입액)이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감안한 수입부담률은 9.5%에 달한다.

표 6-7. 수입관련 제(諸)세금 및 수입부담률 추정

연도	수입액 (억 달러)		수입 관련세금 (억 위엔)		관세율 (%)			수입부담률 (%)	
	총수입 (A)	일반무역 (B)	관세 (C)	제세금 <sup>1)</sup> (D)	명목 관세	$E=C/A^2)$	$F=C/B^3)$	$G=D/A^4)$	$H=D/B^5)$
2001	2,436	1,135	841	2,494	15.3	4.2	9.0	12.4	26.6
2002	2,952	1,291	704	2,596	12.0	2.9	6.6	10.6	24.3
2003	4,131	1,876	923	3,717	11.0	2.7	5.9	10.9	23.9
2004	5,608	2,482	1,041	4,747	10.4	2.2	5.1	10.2	23.1
2005	7,620	3,151	1,067	5,278	9.9	1.7	4.1	8.5	23.0
2006	7,916	3,332	1,142	6,104	9.9	1.8	4.2	9.5	22.6

- 주: 1) 제세금 = 관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2) 실효관세율 1 = 관세수입 / 총수입액
- 3) 실효관세율 2 = 관세수입 / 일반무역 수입액
- 4) 수입부담률 = 수입관련 제세금(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포함) / 수입액
- 5) 수입부담률 = 수입관련 제세금 / 일반무역 수입액

자료: 中國海關統計 및 中國稅務年鑑(각 연도)로부터 작성.

##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 1)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무역관련 애로요인 조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역 측면의 애로 발생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8개 중국 진출 한국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의 수출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관지연과 이에 따른 과도한 지체 부담금을 경험한 기업은 총 95개로, 조사대상 기업의 33.3%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부당한 서류 및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요구, 이중세관검사, 중고 기계 등 중고제품 수입 규제, 자의적인 관세코드 및 관세를 적용 경험, 과도한 선전적 검사 수수료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현지법인의 경영에 있어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통관지연 문제에 있어서는 5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통관시 부당한 서류요구, 자의적인 관세부과 기준가격 적용, 중고제품의 수입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7)</sup>

업종별로 주요 무역관련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통관 지연 및 과도한 지체금 부과 등은 모든 업종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제품 수입 금지 조치 역시 기계, 의류,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에서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중세관검사는 기계,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화학 업종에서는 복잡한 선전적 심사와

67)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생경험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표 및 디자인 도용이 발생한 경험(응답자의 46.1%), 선전적 복잡한 심사과정(42.8%), 부당한 서류 요구(41.2%), 자의적인 관세평가(3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문제가, 금속과 자동차 업종에서는 자의적인 관세부과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문제가, 섬유와 의류 업종에서는 상표 및 디자인 도용이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주요 무역관련 애로사항 발생 현황과 심각성

(단위: 개, %)

구분	애로사항	발생경험		심각한 기업 비중
		기업수	비중 (%)	
통관문제/절차	부당한 통관지연 및 과도한 지체금 부과	95	33.3	20.7
	부당한 서류요구	59	20.7	15.4
	세부 기술자료 요구에 따른 상업기술 유출 가능성	39	13.7	6.3
	보세통관 불허	22	7.7	4.6
	이중세관검사(발췌검사 후 전량 검사)	70	24.6	12.3
	한국 내 공인기관의 인증자료 불인정	55	19.3	9.8
	통관지역(항구) 제한	21	7.4	3.9
	특혜관세율(아태협정) 불인정	8	2.8	1.8
관세평가 및 수수료	자의적 관세평가(자의적 관세코드 적용)	51	17.9	10.9
	자의적인 관세부과 기준가격 적용	54	18.9	12.3
선적전 사전신고제도	복잡한 선적 전 심사과정	53	18.6	9.5
	과다한 선적 전 검사 수수료	52	18.2	8.4
현지 보세운송 및 내륙운송제한		11	3.9	0.7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수입허가증 관리 및 수입쿼터	32	11.2	5.6
	자동차수입허가증	19	6.7	1.8
	중고 제품 수입금지	68	23.9	16.5
CCC인증제도	부당한 강제표준	20	7.0	6.0
	장기간의 검사 또는 인증 시간	36	12.6	8.4
	유사한 규격의 불인정 문제	26	9.1	6.7
원산지제도	차별적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요구	32	11.2	6.7
	무리한 원산지 표시 요구	23	8.1	6.3
지식재산권	상표 및 디자인 도용	41	14.4	11.9
	지식재산권 침해 시정조치 미흡	32	11.2	11.6

자료: 실사결과.

표 6-9. 업종별 주요 무역 애로발생 요인

애로발생 요인	기계	섬유 의류	철강 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기타 제조업
부당한 통관지연 및 과도한 지체금 부과	○	○	○	○	○	○	○
중고 제품 수입금지	○	○	○	○	○		
이중세관검사(발취검사 후 전량 검사)	○				○	○	○
복잡한 선적 전 심사과정						○	○
자의적인 관세부과 기준가격 적용			○	○			
상표 및 디자인 도용		○					

주: 해당 업종의 무역관련 애로사항의 발생빈도가 높은 1~3위 항목을 선정한 것이다.  
자료: 실사결과.

## 2)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관련 애로 요인

한·중 FTA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대중국 수출의 3/4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 운영에 무엇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무역관련 애로와 마찬가지로 발생빈도와 규제에 심각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6-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첫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은 고용과 임금 관련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최저 임금 인상 문제를 경험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중국 내에서 위탁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 노동과 임금이 가장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 노동계약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장 부담이 크게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6-10.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발생 빈도

(단위: 건, %)

항 목		발생경험		심각한 기업비중
		빈도(건)	비중(%)	
금융/ 외환	대출시 모기업 보증 요구	67	23.5	21.2
	복잡한 대출 절차	61	21.4	32.7
	중국기업과의 금리 차별	30	10.5	13.7
	대출시 담보설정 제한	55	19.3	30.6
	외화차입 규제	38	13.3	25.5
고용/ 임금	과실 송금시 복잡한 서류 요구 및 심사	51	17.9	30.6
	고용 및 해고 자율권 행사 곤란	99	34.7	38.7
	경제성 감원(정리해고)의 제한	48	16.8	36.8
	호구제도에 따른 외국인 고용 곤란	27	9.5	16.2
	파견직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17	6.0	10.3
	합작파트너의 잉여인원 고용 요구	9	3.2	6.5
	연장근로의 엄격한 한도 제한	99	34.7	36.6
	임금결정 자율권 제한(정부 가이드라인 설정)	94	33.0	39.9
	과다한 수당 및 보조금 지급	52	18.2	28.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빈번한 인상	146	51.2	67.6
	과다한 사회보험료	151	53.0	73.4
	과다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보조금	105	36.8	49.0
	노동조합 설립 압력	83	29.1	37.4
노조(공회)의 경영 간섭	14	4.9	15.2	
노동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에 따른 피해	83	29.1	40.1	
세무	세무 행정관련 기관의 자의적 세금부과	88	30.9	44.7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이전가격 심사 강화	52	18.2	35.8
	잡은 세무조사	53	18.6	32.8
	과다한 준조세 부과	62	21.8	44.4
	한국 직원의 개인소득세 부담	125	43.9	56.3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지연	85	29.8	34.1
	세무 담당자 마다 다른 세법의 해석과 적용	93	32.6	47.6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17	6.0	13.2
	투자지역 제한	19	6.7	13.8
	현지 부품 사용 요구	15	5.3	14.6
	투자시 기술이전 요구	14	4.9	8.0
	지방간 시장보호에 따른 판매 제약	15	5.3	9.3
수출입	내수비율 제한	24	8.4	12.2
	중국 내 수출쿼터 배정의 불공정성	10	3.5	9.6
투명성	원자재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65	22.8	38.6
	중국 법제도의 미정비 및 투명성 부족	118	41.4	58.1
	공개되지 않는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	100	35.1	54.2
	중국 정부의 각종 행정적 규제 또는 간섭	95	33.3	44.8
기타	토지개발 규제에 따른 공장부지 확보 제한	48	16.8	30.6
	기술규제 및 기술 표준의 차이	33	11.6	21.0
	과다한 환경규제	99	34.7	47.5
	정부조달 시장 참여 제한	10	3.5	13.6

자료: 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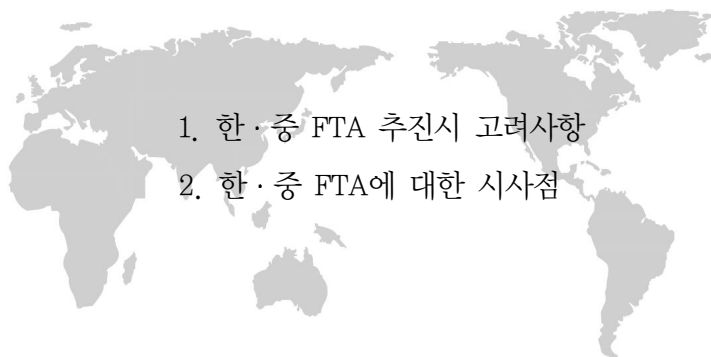
둘째, 중국의 법과 제도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은 채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규정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조세 및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세무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법 적용 관행, 지방 세무기관의 자의적인 세금부과 관행, 지방정부의 각종 준조세 부과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적자 세무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세무관련 행정 및 제도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각종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환경관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지 금융시 담보력 부족으로 현지금융 이용이 어려운 점도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7장

##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1. 한·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본 보고서의 제3장부터 제6장에 걸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간 교역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후에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2)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바이어(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sup>68)</sup> 이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중국을 임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한 후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매입과 매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69)</sup>

둘째,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 간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

68)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수출하는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의 거래대상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복수응답허용 응답수 439개)의 45.6%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또는 한국계기업이 주 고객이며, 42.8%는 중국계 기업이, 11.6%는 중국 내 제3국의 외자기업이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69) 제5장 4항 참고.

간의 분업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고, 특히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중 간 교역 특성이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실질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한·중 간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명목관세율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관세율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제5장에서 한·중 FTA가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에서는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현재 이미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작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확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사결과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전체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2.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한·중 FTA의 추진방향,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 원칙,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가. 한·중 FTA 추진방향

#### 1)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한·중 FTA

한·중 FTA 추진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양국간에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의존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쪽에서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 체결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중국은 2006년 농업 등의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바 있었으며, 이처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면 단기간 내에 협상체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FTA라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0)</sup>

그러나 한·중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FTA라는 틀이 없이도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그 내재적 필요에 의해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연구와 광범위한 국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진 후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체결된 한·미 FTA와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의 파급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여 더 큰 불확실성을 노정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일 FTA에 앞선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대중국 수출증대 등 한·중 FTA 추진에서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간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를 통한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한미 FTA 타결에

70)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에서 중국 측의 협상기간에 관한 연구결과는 2007년에 협상을 시작할 경우 2010년 정도에 발효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내의 경제통합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협상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포괄적 FTA 지향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분야 협상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방에 민감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한·중 간 FTA로 상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기존의 한·중 FTA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계 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FTA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민감품목의 선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trade-off)이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협상타결의 여지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한·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한·중 간 FTA를 통해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와 전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가격효과는 관세인하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는 효과이고, 전환효과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추진할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증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산품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명목, 대한국 가중 평균,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 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의류, 가전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관세율이 높고, 동시에 양국간의 관세율 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FTA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로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측의 시장보호 요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중국의 대세계 가중 평균관세율(4.62%)보다 높은 품목을 대세계 고관세 품목으로 정의하고, 한국에 대한 실질관세율 평균치(2.7%)보다 높은 품목을 대한국 고관세품목으로 구분할 경우 중국의 업종을 구분하

면 [그림 7-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A류의 경우 가격효과와 전환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B류의 경우 가격효과는 작으나 전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D류의 경우 가격효과는 크나 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효과와 전환효과 모두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큰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간재의 관세인하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는 중간재보다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업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종에는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림 7-1.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국 관세구조



주: 중국의 대세계 가장 평균관세율(4.62%)보다 높은 품목을 대세계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한 실질관세율 평균치(2.7%)보다 높은 품목을 대한국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함.

자료: 필자작성.

넷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무역방식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중에서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에서는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다섯째, 그동안 중국의 고관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내구소비재류가 이러한 제품군에 속하며 중국이 가장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가전 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고관세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활발하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이미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일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다.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한·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sup>71)</sup> 한·중 FTA 추진으로 공산품분야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뿐 아니라,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제품의 대한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진출

71)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40%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으로부터(제5장의 3. 참고), 17%(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중국 내 외자계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57%에서 한국계 기업으로부터의 수입비중 추정비율 차감)는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부터, 43%는 중국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산과 기술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중국 내 제3국 외자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사 제품의 대한국 수출은 영향이 없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7-1. 한·중 FTA 이후 대한국 수출의 증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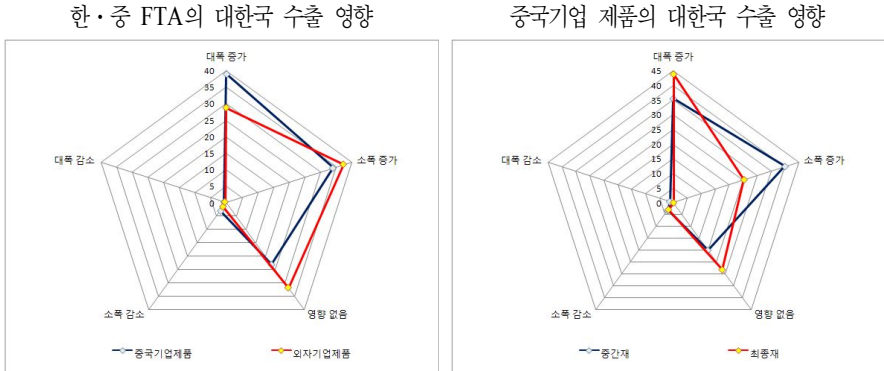
(단위: 기업 수)

	대폭 증가	소폭 증가	영향 없음	소폭 감소	대폭 감소	응답자
중국산	95	82	59	7	2	245
외자기업	67	82	75	4	1	229
자사제품	7	70	133	5	0	215

자료: 실사결과.

중국기업의 제품은 최종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중 FTA로 양국간에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응답기업의 71%가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중 39%의 기업들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품군을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할 경우 중간재보다는 최종재에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 내 동종 외자계기업의 제품 역시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응답기업의 58%가 중국 내 외자계 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2%만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7-2.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자계기업이 대한민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실사결과.

중국산 제품이 대한민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서 전기전자, 철강금속 업종 등 양국의 관세율이 낮은 업종에서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업종 등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업종에서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화학 업종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중국계 기업뿐 아니라 외자계 기업의 대한민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중 FTA 이후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sup>72)</sup>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

72)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국내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동종 업종에서 중국기업과 한국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동종 업종에 대한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9.4%의 기업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과 품질 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우위라는 응답이 전자의 경우 65.4%, 후자의 경우 94.3%가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3국 제품의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sup>73)</sup>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각종 비관세조치 등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의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출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과 교역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3) 중국의 각 제조업 업종 매출액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을 중국기업이 주도하는 업종과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자원개발 업종, 담배와 석유가공 등 외국인투자 진입이 강력히 제한되고 있는 제조업과 철강, 비철금속, 화학섬유 등 자본집약적 업종에서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공 또는 조립 업종, 기술집약적 업종에서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통신, 정밀광학기기, 문교체육용품, 가구, 가죽·모피 업종의 경우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서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가죽·모피, 의류, 인쇄, 운송장비, 플라스틱, 고무, 금속제품, 전기기기 및 장비 업종의 경우 중국기업의 생산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나,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5.5%)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자기업과 중국기업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류, 가죽·모피, 플라스틱, 식품, 금속제품 업종의 경우 점차 중국기업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교통운송기기의 경우 외자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양평섭 (2007) 참고.

첫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05개 응답기업(복수 응답 포함) 중에서 한·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 무관세 실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인력이동 제한 완화, 중국의 비합리적인 상관행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호 무관세 실시, 비관세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한·중 FTA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구 분	투자기업		대중 무역기업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상호 무관세 실시	156	27.4	237	30.0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125	21.9	72	9.1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90	15.8	115	14.6
무역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64	11.2	173	21.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44	7.7	65	8.2
인력이동 제한 완화	13	2.3	19	2.4
중국의 비합리적 상관행	13	2.3	108	13.7
응답 수 (복수 응답)	505	-	789	-

자료: 실사결과.

둘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 중에서 통관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88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165개 기업이 통관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중국 법인의 원부자재 수입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의 관세평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외에 투자와 관련하여 외환규제의 완화, 투자진출 제한 완화, 제조관련 서비스업 개방,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7-3. 한·중 FTA를 통한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항 목	1위	2위	3위	합계	비중 (%)
① 통관문제/절차 (부당한 통관지연, 부당한 서류요구)	141	12	12	165	24.5
② 관세평가 및 수수료(자의적 평가, 실거래가의 불인정)	30	61	5	96	14.3
③ 기술장벽 제거	7	15	18	40	5.9
④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해소	10	21	15	46	6.8
⑤ 중국의 수입권한 및 자격제한 제도 개선	7	6	12	25	3.7
⑥ 원산지제도 개선	3	13	3	19	2.8
⑦ 선적전 사전신고제도	3	16	18	37	5.5
⑧ 한·중 간 무역마찰 해소	11	12	6	29	4.3
⑨ 운송관계 및 항만이용 제한 완화	0	4	2	6	0.9
⑩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강화(상표 도용, 모방품 등)	17	26	18	61	9.1
⑪ 정부조달 시장 참여 제한 문제	0	6	3	9	1.3
⑫ 외환결제 및 외환규제	7	27	41	75	11.1
⑬ 현지 부품 사용 요구 완화	0	2	5	7	1.0
⑭ 투자시 기술이전 요구 문제 해소	0	0	4	4	0.6
⑮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	2	9	14	25	3.7
⑯ 투자진출 제한 완화	3	2	24	29	4.3
응답수	241	232	200	673	100.0

자료: 실사결과.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한·중 FTA 추진 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품분과 이외에 비관세조치 협상 분과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분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비관세조치와 투자관련 조치는 각국의 각종 법규 개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협상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각종 비관세조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 사례, 투자장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동시에 의제화를 위한 사례 발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인수 외. 2006. 『국제통상론』. 박영사.
- 김주영. 2007.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3월호
- 남영숙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중 FTA 종합보고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 신태용·이문형·이진면·변창욱. 2005.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양평섭. 2007. 『중국의 대한민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 양평섭·구은아. 2006.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6. 『외국의 통상환경 2006』.
- 이장규 외. 2007.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운상. 2002.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은 조사연구』, 2002-8. 한국은행 조사국.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FKI Issue Paper』, 제62호.
- 정인교. 2006.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pp. 111~138.
- 지만수 외. 2004.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채 욱 외. 2005. 『제조업분야 한·중 FTA 종합검토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3.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수출입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우리나라의 중국 및 미국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비교 분석』.
- \_\_\_\_\_. 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 KOTRA. 2006.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
- \_\_\_\_\_. 2006.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TBT) 동향과 피해 사례』. 기획조사 06-051.

[중문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 2007, 『2007年版不正貿易報告書』.
- 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 2005. 「“十一五”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濟要參』, 北京, 第26期, pp. 2~9.
- 刘翔峰, 中韩自贸区敏感产业安排的试分析. 2007. 2007年 AMR-KIEP 共同研讨会 会议文集于培偉. 2005.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參』, 北京, 第37期, pp. 2~8.
- 张琦 외. 2007. ‘如何对待敏感产业: 中国已签署自贸区协议对中日韩FTA的启示’, 国研报告, 國務院發展研究中心.
-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 編纂委. 2007.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 經濟日報出版社.
- 中國商務部. 2006. 『中國外商投資報告 2006』. 중국상무부 사이트
- 中國商務部. 2007. 『国別貿易投資環境報告 2007』. <http://gpj.mofcom.gov.cn/aarticle/d/cw/200704/20070404566319.html>

[영문 자료]

- European Union. 2007. *Study on the Futu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EU-Chin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2006-2010*.
- Grubel, Herbert G. and Peter J. Lloyd. 1975.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MacMillan Press.
- Hatzichronoglou, T. 1997. “Revision of the High-Technology Sector and Product Classification.” STI Working papers, 1997/2, OECD.
- Lee, Hong-sik, et al. 2005.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I)*.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Lee, Hong-sik, et al. 2006. *Join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Feasibility of Establishing China-Korea FT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 The McKinsey Quarterly. 2007. *Doing Business in China: A McKinsey Survey of Executives in Asia*.
- Nanto, Dick K. 2006. *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 on Taiwan, Japan, and South Korea: U.S. Policy Choices*.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 Special 301 Report. 2006. Priority Watch List.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several years.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WTO. 2006. *Trade Policy Review - People's Republic of China*.
- Zhang, Jianping. 2006.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CNAEC Research Series 06-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타 자료]

- 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2006. 2.
- 电子信息产品分类注释. 2006. 2.
- 国务院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通知. 2006. 3.
- 钢铁产业发展政策. 2005. 7.
- 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2005. 3.
- 实施强制性产品认证制度有关问题的通知. 2001. 12.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2001. 12.
-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审查目录. 2006. 1.
- 中华人民共和国实行能源效率标识的产品目录(第二批). 2006. 9.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 WITS. [wits.worldbank.org](http://wits.worldbank.org)
- 中国投资指南. [www.fdi.gov.cn/index.htm](http://www.fdi.gov.cn/index.htm)

# 부 록



중국의 품목별 대한민국 실질수입관세율

(단위: %)

(1) 자동차

HS 코드	품 목	대한민국 수입 (백만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한국 관세율
		전체	가공 무역	일반 무역	가공 무역	일반 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8701	트랙터	4	0	0	0.0	0.0	7.5	4.2	0.0	4.6
8702	10인 이상 승합차	5.9	0	5.9	0.0	100.0	22.0	20.8	22.0	10.0
8703	승용차	552.9	0	549.9	0.0	99.5	25.0	24.3	24.9	8.0
8704	화물자동차	1.5	0.1	1.4	6.5	93.5	18.2	17.1	17.0	9.6
8705	특수용도 차량	5.7	0	2.0	0.0	34.7	10.9	9.5	3.8	8.0
8706	엔진을 갖춘 사시	2.3	0.03	2.2	1.3	98.7	13.0	10.9	12.8	8.0
8707	차체	2.0	0	2.0	0.0	99.0	10.0	9.5	9.9	8.0
8708	부품(8701~8705용)	1,535.6	57.8	1,037.9	3.8	67.6	10.0	6.2	6.8	8.0
8709	하역용 운반차량	2.2	0	0.7	0.0	32.0	9.9	5.1	3.2	8.0
8716	트레일러 및 기타차량	4.3	3.1	0.3	72.6	6.8	10.0	1.1	0.7	8.0
전 체		2,112.3	61.1	1,602.2	8.4	63.2	13.8	10.9	10.1	8.0

(2) 철강산업

HS 코드	대한민국 수입(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7201	0	0	0	..	..	1.0	0.1	..	2.0
7202	2,404	1,501	902	62.5	37.5	2.8	2.1	1.1	4.7
7203	0	0	0	0.0	83.4	2.0	1.9	1.7	1.0
7204	42,124	0	42,124	0.0	100.0	0.9	0.8	0.9	1.0
7205	967	10	954	1.1	98.7	2.0	1.5	2.0	5.0
7206	0	0	0	..	..	2.0	0.4	..	1.5
7207	13,170	372	12,798	2.8	97.2	2.0	1.6	1.9	0.0
7208	206,246	157,885	43,306	76.6	21.0	5.3	1.9	1.1	0.0
7209	591,337	238,956	347,699	40.4	58.8	5.5	3.2	3.3	0.0
7210	854,751	499,262	328,773	58.4	38.5	6.8	2.2	2.6	0.0
7211	33,776	19,666	14,060	58.2	41.6	6.0	1.8	2.5	0.0
7212	103,938	83,799	19,772	80.6	19.0	6.8	1.3	1.3	0.0
7213	75,370	32,401	42,953	43.0	57.0	4.0	1.8	2.3	0.0
7214	1,975	1,134	841	57.4	42.6	4.6	1.7	2.0	0.0
7215	5,079	4,005	1,074	78.8	21.1	5.7	0.9	1.2	0.0
7216	33,901	15,789	3,872	46.6	11.4	4.4	0.5	0.5	0.0
7217	59,331	45,053	12,108	75.9	20.4	8.0	0.0	1.6	0.0

## (2) 철강산업(계속)

HS 코드	대한국 수입(천 달러)			대한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7218	107,137	53,277	53,860	49.7	50.3	2.0	0.0	1.0	0.0
7219	1,125,143	725,756	356,418	64.5	31.7	8.0	2.6	2.5	0.0
7220	102,230	89,625	6,952	87.7	6.8	10.0	1.1	0.7	0.0
7221	27,687	23,246	4,441	84.0	16.0	10.0	3.3	1.6	0.0
7222	21,693	21,096	424	97.2	2.0	10.0	1.0	0.2	0.0
7223	39,093	33,788	4,463	86.4	11.4	10.0	1.7	1.1	0.0
7224	7,818	0	7,818	0.0	100.0	2.0	1.7	2.0	0.0
7225	221,641	75,341	128,353	34.0	57.9	4.7	2.7	2.7	0.0
7226	31,880	14,055	17,685	44.1	55.5	4.5	2.6	2.5	0.0
7227	1,685	196	1,488	11.6	88.3	4.0	3.4	3.5	0.0
7228	30,587	7,302	23,284	23.9	76.1	4.4	2.5	3.4	0.0
7229	15,207	6,743	7,096	44.3	46.7	5.7	3.1	2.6	0.0
7301	5,930	4,930	819	83.1	13.8	7.0	5.9	1.0	0.0
7302	1,681	216	1,260	12.9	75.0	6.8	4.0	5.1	0.7
7303	334	332	2	99.2	0.6	4.0	0.2	0.0	8.0
7304	44,974	28,653	7,724	63.7	17.2	5.4	4.4	0.9	0.0
7305	14,140	2,658	10,431	18.8	73.8	6.0	3.9	4.4	0.0
7306	51,843	27,752	19,168	53.5	37.0	4.4	1.7	1.6	0.0
7307	66,936	6,829	41,606	10.2	62.2	6.9	4.6	4.3	6.7
7308	65,050	48,488	6,873	74.5	10.6	7.8	2.9	0.8	4.0
7309	1,061	243	219	22.9	20.7	10.5	2.2	2.2	8.0
7310	6,656	5,566	536	83.6	8.1	15.2	3.5	1.2	8.0
7311	5,619	558	4,595	9.9	81.8	12.8	5.3	10.4	8.0
7312	70,430	48,954	20,333	69.5	28.9	4.0	2.1	1.2	0.0
7313	132	1	131	0.8	99.2	7.0	6.6	6.9	0.0
7314	1,464	168	227	11.5	15.5	9.4	2.6	1.5	0.0
7315	4,773	569	3,416	11.9	71.6	11.8	8.6	8.4	8.0
7316	55	42	12	75.9	22.3	10.0	6.3	2.2	8.0
7317	1,048	983	64	93.8	6.1	10.0	2.9	0.6	0.0
7318	150,095	48,005	97,270	32.0	64.8	9.3	4.6	6.0	8.0
7319	1,923	1,079	818	56.1	42.5	10.0	4.0	4.3	8.0
7320	51,496	25,951	23,173	50.4	45.0	8.6	3.5	3.9	8.0
7321	6,802	5,652	872	83.1	12.8	19.4	5.3	2.5	8.0
7322	676	157	32	23.2	4.8	20.7	11.0	1.0	8.0
7323	1,483	1,127	292	76.0	19.7	18.4	11.6	3.6	8.0
7324	553	58	482	10.5	87.2	20.8	15.1	18.1	8.0
7325	10,051	8,239	1,788	82.0	17.8	13.6	4.6	2.4	8.0
7326	128,358	73,557	51,298	57.3	40.0	12.5	4.9	5.0	8.0

## (3) 섬유 및 의류산업

HS 코드	대한민국 수입(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5002	4	0	4	0.0	100.0	9.00	2.68	9.00	3.43
5003	14	0	14	0.0	100.0	9.00	3.64	9.00	2.00
5004	342	194	148	56.7	43.3	6.00	0.65	2.60	8.00
5005	767	767	0	100.0	0.0	6.00	0.18	0.00	8.00
5006	1	0	1	0.0	100.0	6.00	0.18	6.00	8.00
5007	20,557	19,851	618	96.6	3.0	10.00	0.26	0.30	13.00
5105	5,254	5,254	0	100.0	0.0	16.00	7.36	0.00	1.00
5106	3,273	3,152	121	96.3	3.7	5.00	0.22	0.18	8.00
5107	3,453	3,289	162	95.3	4.7	5.00	0.12	0.23	8.00
5108	225	179	36	79.9	15.9	5.00	0.21	0.79	8.00
5109	234	193	40	82.7	17.3	6.00	2.39	1.04	8.00
5110	0	0	0	..	..	6.00	0.00	6.00	8.00
5111	9,792	8,414	1,367	85.9	14.0	10.00	0.73	1.40	13.00
5112	35,174	32,044	3,076	91.1	8.7	10.00	0.63	0.87	13.00
5113	1	1	0	100.0	0.0	10.00	0.25	0.00	13.00
5203	280	95	1	34.1	0.4	40.00	18.62	0.15	1.00
5204	1,090	818	249	75.0	22.8	5.00	1.46	1.14	8.00
5205	19,981	18,329	1,649	91.7	8.3	5.00	0.45	0.41	8.00
5206	7,302	7,108	194	97.3	2.7	5.00	0.10	0.13	8.00
5207	3	1	2	27.1	69.0	6.00	2.58	4.14	8.00
5208	43,001	40,244	2,529	93.6	5.9	10.10	0.32	0.59	10.00
5209	46,767	44,066	2,346	94.2	5.0	10.38	0.23	0.52	10.00
5210	62,236	52,633	9,484	84.6	15.2	11.20	0.87	1.71	10.00
5211	39,769	32,760	6,792	82.4	17.1	11.13	0.85	1.90	10.00
5212	4,281	3,962	315	92.5	7.4	11.20	0.65	0.82	10.00
5306	154	148	6	96.2	3.8	8.00	0.32	0.30	8.00
5307	63	63	0	100.0	0.0	6.00	3.52	0.00	8.00
5308	634	632	2	99.7	0.3	6.00	0.17	0.02	8.00
5309	3,595	3,374	214	93.8	5.9	10.00	0.14	0.59	8.00
5310	10	10	0	100.0	0.0	10.00	0.77	0.00	8.00
5311	1,047	873	165	83.3	15.7	10.67	0.12	1.68	8.00
5401	17,998	17,386	610	96.6	3.4	5.00	0.58	0.17	8.00
5402	205,274	92,839	108,262	45.2	52.7	5.00	2.27	2.64	8.00
5403	1,631	533	1,098	32.7	67.3	5.00	1.08	3.37	8.00
5404	2,375	1,566	310	65.9	13.0	5.00	1.96	0.65	8.00
5405	198	169	28	85.8	14.2	5.00	2.39	0.71	8.00
5406	237	81	156	34.2	65.8	5.00	3.28	3.29	8.00
5407	419,660	404,384	7,880	96.4	1.9	10.00	0.49	0.19	8.00

## (3) 섬유 및 의류산업(계속)

HS 코드	대한민국 수입(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5408	23,996	21,752	1,875	90.6	7.8	10.35	0.84	0.81	8.00
5501	32,391	28,475	3,377	87.9	10.4	5.00	1.44	0.52	8.00
5502	20	20	0	100.0	0.0	4.00	3.98	0.00	7.50
5503	156,088	98,324	52,277	63.0	33.5	5.00	1.55	1.67	8.00
5504	852	188	664	22.0	78.0	5.00	4.06	3.90	5.33
5505	763	0	763	0.0	100.0	5.00	4.64	5.00	2.00
5506	3,984	3,905	79	98.0	2.0	5.00	0.41	0.10	8.00
5507	296	116	181	39.1	60.9	5.00	2.90	3.05	8.00
5508	4,376	3,877	478	88.6	10.9	5.00	0.36	0.55	8.00
5509	6,844	6,515	314	95.2	4.6	5.00	0.12	0.23	8.00
5510	14,610	13,721	889	93.9	6.1	5.00	0.14	0.30	8.00
5511	50	2	49	3.6	96.4	5.00	0.64	4.82	8.00
5512	127,555	119,951	6,721	94.0	5.3	13.17	0.65	0.69	10.00
5513	10,164	9,521	546	93.7	5.4	12.47	0.19	0.67	10.00
5514	8,835	8,291	508	93.9	5.8	12.53	0.23	0.72	10.00
5515	22,405	21,471	875	95.8	3.9	10.20	0.26	0.40	10.00
5516	16,531	15,835	500	95.8	3.0	10.60	0.56	0.32	10.00
5601	11,291	10,676	563	94.6	5.0	10.67	1.76	0.53	8.00
5602	17,998	11,165	6,699	62.0	37.2	10.00	3.76	3.72	8.00
5603	74,106	55,813	17,452	75.3	23.6	10.00	1.84	2.36	8.00
5604	4,445	4,304	98	96.8	2.2	5.00	0.53	0.11	8.00
5605	906	641	265	70.7	29.2	5.00	1.77	1.46	8.00
5606	158	141	18	88.9	11.1	5.00	2.98	0.56	8.00
5607	10,272	9,254	982	90.1	9.6	5.00	0.85	0.48	10.00
5608	2,332	1,815	516	77.8	22.1	10.67	1.74	2.36	10.00
5609	6,653	6,521	132	98.0	2.0	10.00	0.92	0.20	8.00
5701	3	3	0	90.5	0.0	14.50	7.66	0.00	10.00
5702	629	130	486	20.7	77.3	13.57	9.71	10.49	10.00
5703	14,459	7,728	6,729	53.4	46.5	12.00	7.97	5.58	10.00
5704	80	0	80	0.0	100.0	12.00	6.69	12.00	10.00
5705	3,415	753	2,662	22.1	77.9	12.67	8.85	9.87	10.00
5801	34,406	28,303	5,967	82.3	17.3	10.13	1.13	1.76	13.00
5802	4,945	4,687	257	94.8	5.2	11.09	0.53	0.58	8.00
5803	656	649	7	98.9	1.0	10.50	1.11	0.11	8.00
5804	70,188	67,534	2,462	96.2	3.5	10.22	0.33	0.36	13.00
5805	2	0	2	0.0	100.0	12.00	9.62	12.00	8.00
5806	43,616	41,418	2,050	95.0	4.7	10.00	0.84	0.47	8.00
5807	19,044	18,596	416	97.6	2.2	10.00	0.63	0.22	8.00

## (3) 섬유 및 의류산업(계속)

HS 코드	대한민국 수입(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5808	7,536	7,323	202	97.2	2.7	10.00	0.50	0.27	8.00
5809	1,202	949	253	78.9	21.1	10.00	1.63	2.11	8.00
5810	7,675	7,522	148	98.0	1.9	10.00	0.64	0.19	13.00
5811	26,440	17,827	8,610	67.4	32.6	10.40	2.53	3.39	8.00
5901	3,717	3,431	285	92.3	7.7	10.00	0.42	0.77	8.00
5902	25,681	11,842	13,378	46.1	52.1	10.00	4.50	5.21	8.00
5903	309,183	286,754	17,740	92.7	5.7	10.00	0.54	0.57	10.00
5904	0	0	0	..	..	14.00	12.76	14.00	8.00
5905	44	44	0	100.0	0.0	10.00	8.33	0.00	8.00
5906	9,881	8,325	1,553	84.3	15.7	10.00	2.47	1.57	8.00
5907	5,839	5,370	469	92.0	8.0	10.00	0.80	0.80	8.00
5908	27	0	27	0.0	100.0	10.00	1.70	10.00	8.00
5909	24	1	24	2.2	97.8	8.00	3.58	7.83	8.00
5910	475	36	437	7.5	92.1	8.00	4.72	7.36	8.00
5911	17,627	11,395	6,109	64.6	34.7	8.00	5.33	2.77	8.00
6001	95,467	91,286	3,739	95.6	3.9	10.57	0.48	0.41	10.00
6002	2,053	1,969	56	95.9	2.7	10.00	0.90	0.27	10.00
6003	1,419	1,233	131	86.9	9.2	10.00	0.63	0.92	10.00
6004	65,416	64,355	922	98.4	1.4	10.00	0.47	0.14	10.00
6005	30,786	27,824	2,415	90.4	7.8	10.29	1.22	0.81	10.00
6006	293,538	288,681	3,940	98.3	1.3	10.29	0.35	0.14	10.00
6101	7	0	7	0.0	100.0	19.38	18.65	19.38	13.00
6102	212	53	160	24.8	75.2	20.00	14.79	15.05	13.00
6103	1,287	0	1,286	0.0	99.9	19.67	14.97	19.64	13.00
6104	3,080	292	2,787	9.5	90.5	16.98	9.61	15.36	13.00
6105	1,418	0	1,410	0.0	99.5	16.50	7.66	16.41	13.00
6106	978	36	940	3.7	96.2	16.50	10.00	15.87	13.00
6107	1,126	628	257	55.7	22.8	14.55	9.21	3.32	13.00
6108	1,102	638	132	57.9	12.0	14.53	1.71	1.74	13.00
6109	11,238	752	10,200	6.7	90.8	14.00	5.27	12.71	13.00
6110	13,418	4,824	8,586	35.9	64.0	14.22	2.21	9.10	13.00
6111	969	794	175	81.9	18.0	14.50	2.86	2.61	13.00
6112	218	0	108	0.0	49.5	16.83	9.83	8.33	13.00
6113	0	0	0	0.0	0.0	16.00	7.15	0.00	13.00
6114	312	44	46	14.0	14.8	16.38	8.55	2.42	13.00
6115	3,523	2,791	516	79.2	14.6	14.67	4.84	2.15	13.00
6116	884	129	507	14.6	57.3	14.40	6.09	8.25	8.00
6117	4,978	4,671	300	93.8	6.0	14.00	0.81	0.84	13.00

## (3) 섬유 및 의류산업(계속)

HS 코드	대한민국 수입(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6201	1,688	1,141	543	67.6	32.2	16.50	9.13	5.31	13.00
6202	4,393	2,164	2,210	49.3	50.3	16.75	9.07	8.43	13.00
6203	23,058	19,107	3,604	82.9	15.6	16.86	7.55	2.64	13.00
6204	15,428	4,026	11,309	26.1	73.3	16.43	5.46	12.05	13.00
6205	535	0	504	0.0	94.2	16.00	3.20	15.07	13.00
6206	1,621	498	1,113	30.8	68.7	16.30	6.71	11.20	13.00
6207	187	10	12	5.4	6.5	14.50	4.89	0.94	13.00
6208	168	43	124	25.4	73.9	14.50	4.41	10.72	13.00
6209	88	13	75	14.3	85.7	14.40	5.13	12.34	13.00
6210	592	538	52	90.9	8.8	16.19	2.71	1.42	13.00
6211	1,283	194	777	15.1	60.5	16.47	3.22	9.97	13.00
6212	2,513	2,257	255	89.8	10.1	15.00	3.00	1.52	13.00
6213	27	8	12	28.3	45.1	14.00	6.68	6.32	8.00
6214	314	21	281	6.6	89.2	14.40	12.14	12.85	8.00
6215	563	315	246	56.0	43.8	14.67	11.64	6.42	8.00
6216	447	368	66	82.2	14.8	14.00	3.50	2.07	8.00
6217	11,650	9,440	287	81.0	2.5	14.00	0.50	0.35	13.00
6301	497	5	492	0.9	99.1	16.30	14.26	16.15	10.00
6302	102	21	78	20.5	76.4	14.34	10.26	10.96	13.00
6303	54	45	9	83.4	16.6	14.67	6.43	2.43	13.00
6304	304	76	220	24.9	72.3	14.35	8.38	10.37	13.00
6305	1,214	853	353	70.2	29.1	14.67	4.39	4.27	8.00
6306	27	6	20	22.6	74.9	14.63	2.83	10.95	13.00
6307	18,109	13,616	4,014	75.2	22.2	14.00	3.79	3.10	10.00
6308	0	0	0	0.0	100.0	14.00	1.51	14.00	13.00
6309	0	0	0	..	..	14.00	14.00	14.00	8.00
6310	40	5	35	12.6	87.0	14.00	13.83	12.18	8.00
6501	0	0	0	..	..	22.00	0.07	22.00	8.00
6502	0	0	0	..	..	20.00	0.00	20.00	8.00
6503	3	2	0	97.4	0.0	22.00	11.29	0.00	8.00
6504	4	0	4	0.0	100.0	20.00	10.88	20.00	8.00
6505	1,227	661	562	53.9	45.8	16.67	9.06	7.63	8.00
6506	586	7	172	1.2	29.4	12.80	6.33	3.76	8.00
6507	2,324	2,024	151	87.1	6.5	24.00	1.12	1.56	8.00
9404	9,879	9,571	298	96.9	3.0	20.00	8.43	0.60	8.00

## (4) 전기·전자 산업

HS 코드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 (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한국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 무역	일반 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전체	35,561,241	25,123,506	4,538,700	70.6	12.8	8.80	1.23	1.12	5.38
8415	59,214	4,799	44,797	8.1	75.7	15.00	10.68	11.35	8.00
8418	82,915	10,553	56,663	12.7	68.3	14.52	3.44	9.92	8.00
8450	11,040	5,157	5,611	46.7	50.8	15.13	6.67	7.69	8.00
8471	697,210	293,557	59,865	42.1	8.6	0.00	0.00	0.00	0.00
8473	2,771,466	1,344,218	74,285	48.5	2.7	2.90	0.26	0.08	0.70
8501	97,089	47,082	45,336	48.5	46.7	10.18	3.66	4.76	7.47
8502	22,032	16,161	3,754	73.4	17.0	9.75	4.15	1.66	6.10
8503	118,832	67,968	47,231	57.2	39.7	6.50	3.09	2.58	8.00
8504	454,974	327,715	35,252	72.0	7.7	7.04	1.05	0.55	6.07
8505	48,423	38,474	7,827	79.5	16.2	7.50	1.14	1.21	8.00
8506	8,680	6,095	1,647	70.2	19.0	14.89	0.43	2.82	9.00
8507	801,092	690,412	48,636	86.2	6.1	10.67	0.46	0.65	8.00
8509	5,068	3,043	475	60.0	9.4	17.43	3.18	1.63	8.00
8510	68	67	1	98.2	1.8	26.13	5.13	0.48	8.00
8511	40,091	3,286	36,035	8.2	89.9	7.04	5.72	6.33	5.50
8512	89,425	9,288	79,472	10.4	88.9	9.81	8.48	8.72	8.00
8513	243	203	29	83.4	12.0	15.13	2.84	1.81	8.00
8514	62,954	107	12,799	0.2	20.3	2.57	0.80	0.52	4.63
8515	68,603	63	30,036	0.1	43.8	9.40	3.33	4.12	7.17
8516	26,583	19,544	4,764	73.5	17.9	20.65	4.62	3.70	8.00
8517	41,549	21,832	15,452	52.5	37.2	0.00	0.00	0.00	0.00
8518	284,960	225,616	50,160	79.2	17.6	7.81	1.29	1.38	5.33
8519	19	0	19	0.0	100.0	25.70	4.71	25.70	8.00
8520	96	0	10	0.0	10.1	21.67	0.32	2.20	7.50
8521	1,941	807	1,052	41.6	54.2	11.43	5.72	6.19	8.00
8522	110,518	102,420	616	92.7	0.6	26.67	0.60	0.15	6.00

## (4) 전기·전자 산업(계속)

HS 코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천 달러)			대한국 수입 구성(%)		중국 관세율(2006)			한국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 무역	일반 무역	단순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8523	193,379	98,595	23,754	51.0	12.3	1.75	0.18	0.21	0.73
8524	16,694	5,935	10,182	35.6	61.0	3.13	2.05	1.91	3.67
8525	1,030,885	323,481	591,635	31.4	57.4	0.53	0.16	0.30	2.07
8526	5,013	187	4,350	3.7	86.8	3.20	2.18	2.78	8.00
8527	3,903	2,182	452	55.9	11.6	14.60	0.71	1.69	7.65
8528	4,951	1,829	2,774	36.9	56.0	25.22	10.48	14.13	8.00
8529	4,628,842	2,796,299	470,743	60.4	10.2	4.69	0.52	0.48	7.16
8530	91	44	42	48.0	45.6	8.67	8.39	3.95	8.00
8531	31,040	20,422	6,468	65.8	20.8	6.43	1.31	1.34	6.55
8532	449,604	324,559	44,174	72.2	9.8	0.00	0.00	0.00	0.00
8533	158,053	122,372	31,692	77.4	20.1	0.00	0.00	0.00	0.00
8534	1,097,612	962,225	113,290	87.7	10.3	0.00	0.00	0.00	0.00
8535	9,383	1,131	5,445	12.0	58.0	12.67	10.98	7.35	8.00
8536	462,196	319,901	120,108	69.2	26.0	6.44	1.21	1.67	5.60
8537	81,822	11,252	39,722	13.8	48.5	7.55	2.57	3.67	8.00
8538	281,401	202,299	69,279	71.9	24.6	7.47	2.93	1.84	8.00
8539	247,962	239,565	7,836	96.6	3.2	8.44	1.13	0.27	7.75
8540	384,590	258,411	95,596	67.2	24.9	8.44	1.18	2.10	8.00
8541	1,043,736	849,670	132,227	81.4	12.7	0.00	0.00	0.00	0.00
8542	18,773,451	14,848,226	1,979,096	79.1	10.5	0.00	0.00	0.00	0.00
8543	172,227	71,660	25,813	41.6	15.0	2.38	0.96	0.36	5.45
8544	491,857	375,225	69,119	76.3	14.1	6.61	1.27	0.93	5.58
8545	17,383	13,987	3,261	80.5	18.8	9.88	5.32	1.85	6.80
8546	5,591	3,526	1,960	63.1	35.1	9.63	8.28	3.37	8.00
8547	44,306	17,804	26,088	40.2	58.9	8.50	3.43	5.00	8.00
8548	11,060	9,595	914	86.8	8.3	10.00	1.03	0.83	4.28
9405	9,123	4,657	857	51.0	9.4	17.36	7.03	1.63	8.00

주: 실질관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일반무역 비중으로 계산

## (5) 기계산업

HS 코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실질관세율		
						평균	대세계	대한국	
전체	17,195,090	3,799,201	8,276,384	22.1	48.1	8.32	2.84	1.84	6.19
8401	3	0	0	0.0	0.0	1.29	0.00	0.00	0.00
8402	10,562	8,352	1,511	79.1	14.3	7.50	4.32	5.93	8.00
8403	9,289	6,243	0	67.2	0.0	8.67	5.89	5.82	8.00
8404	7,837	6,214	1,285	79.3	16.4	9.60	6.78	7.61	8.00
8405	2,314	1	15	0.1	0.6	11.00	10.77	0.01	8.00
8406	71,771	71,771	0	100.0	0.0	4.67	4.20	4.67	5.75
8407	86,731	85,212	1,485	98.2	1.7	9.09	7.86	8.93	6.77
8408	276,583	94,232	179,247	34.1	64.8	9.06	4.69	3.09	7.00
8409	235,140	202,493	27,579	86.1	11.7	4.43	3.63	3.81	7.45
8410	19,354	19,354	0	100.0	0.0	9.00	8.92	9.00	3.00
8411	56	17	0	29.8	0.0	3.15	1.80	0.94	6.18
8412	57,296	49,455	5,260	86.3	9.2	9.70	6.27	8.37	6.46
8413	118,921	90,992	10,900	76.5	9.2	7.65	5.16	5.85	8.00
8414	263,075	75,628	129,170	28.7	49.1	9.80	4.63	2.82	7.79
8416	5,834	4,960	202	85.0	3.5	9.32	6.76	7.92	8.00
8417	15,841	221	107	1.4	0.7	8.60	4.12	0.12	8.00
8419	129,033	46,135	5,386	35.8	4.2	10.42	5.64	3.73	7.25
8420	6,011	873	905	14.5	15.1	8.13	3.32	1.18	8.00
8421	128,084	58,585	9,286	45.7	7.3	8.30	4.96	3.80	6.75
8422	42,381	8,958	590	21.1	1.4	10.58	3.56	2.24	8.00
8423	2,404	1,426	138	59.3	5.8	10.29	5.00	6.10	8.00
8424	49,352	18,669	5,290	37.8	10.7	3.32	1.35	1.26	6.10
8425	14,850	6,168	4,560	41.5	30.7	6.42	4.01	2.67	0.00
8426	6,897	1,749	2,391	25.4	34.7	8.00	2.73	2.03	0.00
8427	20,680	7,489	487	36.2	2.4	9.00	3.04	3.26	8.00
8428	107,422	13,203	2,822	12.3	2.6	6.31	2.48	0.78	0.00
8429	201,023	170,359	0	84.7	0.0	6.59	5.56	5.58	0.00
8430	423	321	0	76.0	0.0	6.00	5.04	4.56	0.00
8431	269,089	238,719	21,186	88.7	7.9	4.73	3.12	4.19	0.62
8432	15,835	15,803	21	99.8	0.1	4.63	4.40	4.62	0.00
8433	14,055	13,622	0	96.9	0.0	6.08	5.38	5.89	0.00

## (5) 기계산업(계속)

HS 코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실질관세율		
						평균	대세계	대한국	
8434	128	14	0	10.6	0.0	7.00	4.37	0.74	0.00
8435	137	0	0	0.1	0.0	8.00	5.74	0.01	8.00
8436	516	65	0	12.6	0.0	7.33	5.90	0.92	8.00
8437	8,734	2,018	0	23.1	0.0	8.67	5.44	2.00	8.00
8438	14,760	5,097	0	34.5	0.0	7.81	4.14	2.70	8.00
8439	6,627	1,875	42	28.3	0.6	7.44	3.26	2.10	8.00
8440	149	20	0	13.2	0.0	10.50	5.64	1.39	8.00
8441	9,597	3,992	296	41.6	3.1	11.49	3.77	4.78	8.00
8442	1,131	603	9	53.3	0.8	8.43	5.33	4.49	8.00
8443	22,190	5,318	69	24.0	0.3	10.53	6.41	2.52	7.53
8444	11,230	166	0	1.5	0.0	10.00	3.07	0.15	5.00
8445	6,981	1,543	0	22.1	0.0	10.02	5.75	2.22	5.75
8446	16,060	998	0	6.2	0.0	8.89	5.51	0.55	8.00
8447	49,710	33,260	4	66.9	0.0	8.11	4.41	5.43	8.00
8448	14,896	11,375	2,297	76.4	15.4	6.20	4.68	4.73	7.46
8449	197	101	0	51.1	0.0	8.00	3.79	4.09	8.00
8451	77,278	43,194	39	55.9	0.1	11.05	4.39	6.18	8.00
8452	13,669	8,630	1,546	63.1	11.3	14.10	5.40	8.90	8.00
8453	12,636	7,232	0	57.2	0.0	8.30	2.86	4.75	8.00
8454	22,576	1,906	0	8.4	0.0	9.48	4.19	0.80	8.00
8455	33,185	23,816	25	71.8	0.1	12.45	9.05	8.94	8.00
8456	61,530	5,150	0	8.4	0.0	4.24	0.47	0.36	4.00
8457	142,717	37,069	0	26.0	0.0	8.63	2.57	2.24	8.00
8458	68,809	11,741	0	17.1	0.0	9.68	2.30	1.65	8.00
8459	26,694	1,719	0	6.4	0.0	11.06	2.68	0.71	8.00
8460	35,042	3,186	0	9.1	0.0	12.84	4.31	1.17	8.00
8461	17,098	2,428	0	14.2	0.0	13.41	5.17	1.90	8.00
8462	137,794	12,314	0	8.9	0.0	9.56	1.92	0.85	7.36
8463	32,321	2,690	0	8.3	0.0	10.71	2.80	0.89	8.00
8464	34,117	5,155	0	15.1	0.0	0.00	0.00	0.00	5.82
8465	34,724	5,724	0	16.5	0.0	10.00	1.97	1.65	8.00
8466	65,213	37,300	1,836	57.2	2.8	4.71	3.33	2.70	5.82

(5) 기계산업(계속)

HS 코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실질관세율		
						평균	대세계	대한국	
8467	2,364	1,148	263	48.6	11.1	8.40	3.18	4.08	7.58
8468	15,530	5,489	321	35.3	2.1	10.75	2.62	3.80	8.00
8469	94	94	0	99.7	0.0	9.00	8.37	8.97	6.00
8470	8,254	8,182	0	99.1	0.0	0.00	0.00	0.00	0.00
8472	5,524	5,433	35	98.3	0.6	5.20	4.05	5.11	6.40
8474	12,598	4,556	99	36.2	0.8	5.40	3.49	1.95	0.00
8475	12,848	6,672	35	51.9	0.3	9.43	2.04	4.90	8.00
8476	1,544	360	169	23.3	11.0	13.60	3.62	3.17	8.00
8477	221,821	89,290	97	40.3	0.0	3.75	0.97	1.51	8.00
8478	502	502	0	100.0	0.0	7.50	7.18	7.50	8.00
8479	786,364	141,467	13,111	18.0	1.7	3.96	0.97	0.71	6.22
8480	234,106	125,365	298	53.6	0.1	7.31	2.55	3.92	7.20
8481	177,118	112,016	26,719	63.2	15.1	5.89	4.12	3.72	8.00
8482	65,613	42,815	18,411	65.3	28.1	7.75	4.44	5.06	8.63
8483	154,025	84,145	60,498	54.6	39.3	7.20	4.48	3.93	6.33
8484	20,869	14,123	4,825	67.7	23.1	8.00	5.96	5.41	8.00
8485	12,323	6,548	1,652	53.1	13.4	7.00	2.07	3.72	8.00
9001	659,028	25,671	631,751	3.9	95.9	15.10	0.79	0.59	8.00
9002	55,753	9,624	44,902	17.3	80.5	13.44	1.64	2.32	7.58
9003	1,617	29	1,585	1.8	98.0	12.67	3.00	0.23	8.00
9004	984	78	901	7.9	91.6	18.67	4.69	1.48	8.00
9005	28	27	0	99.4	0.0	8.00	1.34	7.95	8.00
9006	3,847	181	3,665	4.7	95.3	13.58	1.32	0.64	8.00
9007	87	28	60	31.7	68.3	12.13	2.28	3.84	8.00
9008	405	379	0	93.6	0.0	14.50	2.15	13.57	8.00
9009	135,919	1,346	88,284	1.0	65.0	6.88	0.71	0.07	2.67
9010	17,148	1,185	0	6.9	0.0	8.65	0.71	0.60	3.20
9011	2,769	762	0	27.5	0.0	1.75	1.04	0.48	6.15
9012	1,665	261	0	15.7	0.0	0.00	0.00	0.00	4.80
9013	10,636,078	1,089,164	6,918,161	10.2	65.0	7.75	0.48	0.79	6.55
9014	121	75	44	61.9	36.3	1.88	0.78	1.16	8.00
9015	92	43	42	46.9	45.8	7.67	5.53	3.60	8.00

## (5) 기계산업(계속)

HS 코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실질관세율		
						평균	대세계	대한국	
9016	273	38	0	13.7	0.0	9.75	7.43	1.34	8.00
9017	7,340	2,038	4,669	27.8	63.6	4.80	1.91	1.33	4.57
9018	54,628	46,945	2,018	85.9	3.7	4.58	3.10	3.93	8.00
9019	5,555	3,240	12	58.3	0.2	7.67	5.02	4.47	0.00
9020	280	34	0	12.0	0.0	8.00	5.00	0.96	8.00
9021	725	725	0	100.0	0.0	4.00	1.72	4.00	0.00
9022	9,200	4,763	614	51.8	6.7	4.40	2.73	2.28	8.00
9023	490	435	1	88.8	0.2	7.00	5.31	6.21	8.00
9024	7,559	2,660	0	35.2	0.0	6.00	3.36	2.11	8.00
9025	3,872	1,337	950	34.5	24.5	7.96	4.92	2.75	7.50
9026	15,578	4,501	2,880	28.9	18.5	0.00	0.00	0.00	0.00
9027	13,806	4,971	0	36.0	0.0	2.33	1.41	0.84	1.85
9028	3,303	304	2,872	9.2	86.9	9.60	7.12	0.88	8.00
9029	41,094	40,328	368	98.1	0.9	11.83	8.74	11.61	8.00
9030	149,734	69,440	5,583	46.4	3.7	7.81	2.75	3.62	5.33
9031	225,319	52,845	501	23.5	0.2	4.33	1.43	1.02	5.03
9032	182,832	143,843	18,511	78.7	10.1	6.60	4.35	5.19	6.55
9033	50,916	45,888	4,453	90.1	8.7	6.00	3.64	5.41	8.00
9101	47	32	0	69.3	0.0	14.71	7.67	10.19	8.00
9102	3,110	134	0	4.3	0.0	15.93	4.63	0.69	8.00
9103	7	0	6	0.1	96.7	21.50	6.15	0.03	8.00
9104	4,097	4,001	96	97.6	2.4	10.00	8.72	9.76	8.00
9105	95	78	11	82.9	11.8	18.29	7.28	15.15	8.00
9106	521	346	175	66.3	33.5	16.00	5.00	10.62	8.00
9107	84	48	34	56.8	40.7	12.00	1.57	6.82	8.00
9108	0	0	0	0.0	0.0	16.00	0.30	..	5.00
9109	71	25	46	35.2	64.8	16.00	0.78	5.64	8.00
9110	50	2	49	3.5	96.5	16.00	0.31	0.56	8.00
9111	101	91	0	89.4	0.0	14.00	0.30	12.51	8.00
9112	7	6	0	95.1	4.9	13.00	2.02	12.36	8.00
9113	103	83	0	80.7	0.0	16.00	1.30	12.92	8.00
9114	660	43	617	6.5	93.5	14.00	0.58	0.91	8.00

## (6) 석유화학산업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2707	364,570	183,641	2,431	50.4	0.7	6.63	3.74	3.34	5.30
2708	186	86	98,836	46.0	53,132.6	6.50	5.32	2.99	5.00
2709	0	0	23	..	..	0.00	0.00	..	5.00
2710	4,954,676	2,506,014	7,853	50.6	0.2	6.61	4.39	3.34	5.91
2711	43,369	41,287	21,796	95.2	50.3	5.00	4.55	4.76	4.20
2712	938	441	109	47.0	11.7	8.00	4.38	3.76	8.00
2713	448,108	432,487	381	96.5	0.1	4.33	3.86	4.18	5.00
2714	40	18	116	45.7	291.0	4.25	4.22	1.94	5.00
2715	6,749	6,714	22	99.5	0.3	8.00	7.38	7.96	5.00
2801	719	430	272	59.8	37.9	5.50	3.94	3.29	5.50
2802	72	14	58	19.7	80.3	5.50	1.62	1.08	5.00
2803	29,721	13,050	16,456	43.9	55.4	5.50	3.76	2.41	5.50
2804	88,825	34,992	38,875	39.4	43.8	5.00	2.32	1.97	5.32
2805	97	95	2	97.9	2.1	5.50	0.88	5.38	5.50
2806	54	47	7	87.4	12.6	5.50	4.96	4.81	5.50
2807	26,389	24,966	1,423	94.6	5.4	5.50	5.31	5.20	5.50
2808	4,905	4,828	60	98.4	1.2	5.50	5.31	5.41	5.50
2809	3,356	2,828	427	84.3	12.7	2.50	2.17	2.11	5.50
2810	630	66	564	10.4	89.5	5.50	4.20	0.57	5.50
2811	14,444	10,187	3,900	70.5	27.0	5.50	3.62	3.88	5.50
2812	6,191	1,776	2,326	28.7	37.6	5.50	2.58	1.58	5.11
2813	0	0	0	..	..	5.50	5.50	..	5.50
2814	1,266	519	578	41.0	45.7	5.50	4.37	2.25	2.00
2815	556	123	430	22.1	77.3	7.25	4.59	1.60	6.00
2816	75	75	0	99.5	0.5	5.50	1.84	5.47	5.50
2817	8,133	2,682	5,447	33.0	67.0	5.50	1.55	1.81	5.50
2818	14,504	4,440	9,980	30.6	68.8	6.33	4.82	1.94	3.60
2819	274	70	204	25.7	74.3	5.50	3.35	1.41	5.50
2820	108	8	100	7.3	92.7	5.50	0.71	0.40	5.50
2821	17,141	5,306	11,835	31.0	69.0	5.50	1.39	1.70	5.50
2822	1	1	0	100.0	0.0	5.50	0.65	5.50	5.50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2823	2,565	682	1,884	26.6	73.4	5.50	4.52	1.46	5.50
2824	0	0	0	..	..	5.50	0.11	..	5.50
2825	13,012	3,582	9,429	27.5	72.5	5.50	0.85	1.51	5.34
2826	302	91	126	30.1	41.9	5.50	3.11	1.66	5.50
2827	1,482	650	774	43.9	52.2	5.41	3.40	2.38	5.50
2828	1,080	979	97	90.6	9.0	8.75	5.47	7.93	5.50
2829	3	0	3	5.5	94.5	7.13	3.27	0.39	5.50
2830	543	377	166	69.5	30.5	5.50	3.02	3.82	5.50
2831	9	0	0	0.0	0.0	5.50	1.88	0.00	5.50
2832	103	70	32	68.4	31.6	5.50	3.64	3.76	5.50
2833	1,879	827	1,052	44.0	56.0	5.50	2.03	2.42	5.64
2834	71	71	0	99.6	0.4	5.20	4.93	5.18	5.50
2835	1,197	854	343	71.3	28.7	5.50	1.35	3.92	5.50
2836	4,531	1,962	2,569	43.3	56.7	5.50	3.24	2.38	5.71
2837	39,793	39,793	0	100.0	0.0	5.50	5.42	5.50	5.50
2838	38	38	0	100.0	0.0	5.50	5.03	5.50	5.50
2839	900	648	174	72.0	19.3	5.50	4.41	3.96	8.00
2840	34	34	0	99.1	0.9	5.50	5.26	5.45	5.00
2841	10,308	732	9,575	7.1	92.9	5.50	1.27	0.39	5.59
2842	581	283	298	48.6	51.2	5.50	3.16	2.68	5.63
2843	1,937	419	1,478	21.6	76.3	5.50	1.17	1.19	5.50
2844	33	33	0	100.0	0.0	5.07	0.60	5.07	0.00
2845	245	245	0	100.0	0.0	5.50	5.49	5.50	0.00
2846	349	347	2	99.4	0.6	5.50	1.30	5.46	5.00
2847	8,882	6,972	1,908	78.5	21.5	5.50	4.66	4.32	5.50
2848	81	81	0	100.0	0.0	5.50	1.28	5.50	5.50
2849	113	90	23	79.3	20.4	5.50	3.97	4.36	5.40
2850	2,354	875	16	37.2	0.7	5.50	2.03	2.05	5.50
2851	44	44	0	99.2	0.0	5.50	0.78	5.46	5.50
2901	301,325	282,982	14,701	93.9	4.9	2.00	1.89	1.88	0.00
2902	2,590,264	2,260,030	107,944	87.3	4.2	2.00	1.69	1.75	3.33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2903	132,927	83,326	45,889	62.7	34.5	5.85	4.17	3.67	5.49
2904	668	665	2	99.6	0.4	5.50	2.97	5.48	5.50
2905	420,311	251,021	52,597	59.7	12.5	6.22	4.16	3.72	5.51
2906	284	284	0	100.0	0.0	5.38	2.04	5.37	5.71
2907	168,631	84,810	35,690	50.3	21.2	5.34	2.83	2.69	5.48
2908	581	232	349	40.0	60.0	5.20	1.10	2.08	5.30
2909	38,131	17,857	428	46.8	1.1	5.39	3.37	2.53	5.50
2910	34,906	18,607	7,542	53.3	21.6	5.50	2.34	2.93	5.38
2911	29	0	29	0.0	100.0	5.50	4.53	0.00	5.50
2912	354	39	314	10.9	88.8	5.50	4.01	0.60	5.48
2913	0	0	0	..	..	5.50	2.57	..	5.50
2914	78,930	65,908	10,841	83.5	13.7	5.42	4.13	4.52	5.31
2915	66,334	50,370	5,875	75.9	8.9	5.57	4.10	4.23	5.50
2916	49,415	32,672	16,476	66.1	33.3	6.33	3.25	4.19	6.50
2917	2,886,708	2,208,833	494,789	76.5	17.1	6.61	4.94	5.06	6.55
2918	6,223	5,580	616	89.7	9.9	6.47	4.49	5.80	6.54
2919	2,374	137	2,077	5.8	87.5	6.50	1.75	0.37	6.50
2920	5,079	2,257	2,805	44.4	55.2	6.50	4.00	2.89	6.50
2921	6,921	2,690	4,163	38.9	60.1	6.17	4.47	2.40	6.40
2922	40,421	17,762	19,455	43.9	48.1	6.66	3.99	2.92	6.47
2923	7,886	7,691	181	97.5	2.3	6.50	6.03	6.34	6.50
2924	31,219	16,622	5,950	53.2	19.1	6.39	2.92	3.40	6.38
2925	314	47	267	14.9	85.1	7.13	5.53	1.06	6.50
2926	203,011	178,020	24,991	87.7	12.3	6.08	4.73	5.33	6.50
2927	3,343	1,166	2,176	34.9	65.1	6.50	1.94	2.27	7.25
2928	225	44	181	19.5	80.5	6.50	4.49	1.27	6.50
2929	207,568	121,865	75,233	58.7	36.2	6.78	4.38	3.98	6.50
2930	3,937	3,868	69	98.2	1.8	6.50	4.86	6.39	6.50
2931	7,314	3,338	3,900	45.6	53.3	6.50	3.98	2.97	6.50
2932	13,352	12,983	211	97.2	1.6	6.21	5.40	6.04	5.83
2933	64,876	50,016	13,825	77.1	21.3	6.61	4.32	5.10	6.50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2934	995	666	328	67.0	33.0	6.44	5.54	4.31	6.62
2935	302	289	13	95.5	4.2	6.50	5.32	6.21	6.50
2936	2,539	1,996	1	78.6	0.0	4.00	2.81	3.14	6.50
2937	245	245	0	100.0	0.0	4.00	3.79	4.00	2.02
2938	98	98	0	100.0	0.0	6.50	5.97	6.50	6.50
2939	0	0	0	..	..	4.00	3.27	..	0.24
2940	67	22	45	32.7	67.3	6.00	5.23	1.96	8.00
2941	16,599	16,599	0	100.0	0.0	4.88	3.98	4.88	6.50
2942	181	126	55	69.6	30.4	6.50	3.35	4.52	6.50
3001	0	0	0	..	..	3.00	2.99	..	0.00
3002	79	79	0	100.0	0.0	3.00	2.57	3.00	0.76
3003	1,674	1,674	0	100.0	0.0	5.77	5.10	5.77	8.00
3004	9,403	9,389	0	99.9	0.0	5.13	3.52	5.13	8.00
3005	1,317	738	485	56.1	36.8	5.00	2.47	2.80	0.00
3006	5,434	4,832	602	88.9	11.1	3.72	1.63	3.31	1.54
3101	81	79	0	97.9	0.0	4.50	4.20	4.40	6.50
3102	0	0	0	68.4	0.0	8.60	3.19	5.88	6.50
3103	0	0	0	..	..	4.00	4.00	..	6.50
3104	0	0	0	..	..	3.00	1.70	..	2.57
3105	30	30	0	100.0	0.0	15.50	11.02	15.50	6.50
3201	256	30	226	11.7	88.3	6.13	2.81	0.71	7.55
3202	11,763	3,489	8,273	29.7	70.3	6.50	3.61	1.93	6.50
3203	576	361	214	62.8	37.2	6.50	4.98	4.08	6.50
3204	84,711	20,911	62,626	24.7	73.9	6.76	2.79	1.67	7.70
3205	83	1	81	1.3	97.0	6.50	2.72	0.09	6.50
3206	20,983	8,172	12,804	38.9	61.0	6.82	4.38	2.66	6.50
3207	5,319	1,345	3,974	25.3	67.6	5.00	3.28	1.26	6.50
3208	117,165	35,165	74,457	30.0	63.5	10.00	4.02	3.00	6.88
3209	21,398	14,549	6,800	68.0	31.8	10.00	6.25	6.80	6.91
3210	22,555	2,866	19,574	12.7	86.8	10.00	3.51	1.27	6.80
3211	4,002	2,342	1,622	58.5	40.5	10.00	5.67	5.85	6.50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3212	16,393	10,544	5,833	64.3	35.6	12.50	7.59	8.04	6.50
3213	47	14	32	29.3	67.3	10.00	3.52	2.93	8.00
3214	34,860	13,671	19,125	39.2	54.9	9.00	4.35	3.53	6.75
3215	35,118	15,015	19,216	42.8	54.7	7.38	2.23	3.15	6.50
3301	67	54	13	80.9	19.1	19.35	13.02	15.66	32.81
3302	2,224	1,585	639	71.3	28.7	13.33	10.86	9.50	12.40
3303	5	0	4	4.6	77.6	10.00	2.70	0.46	8.00
3304	16,509	14,145	73	85.7	0.4	11.56	3.87	9.91	8.00
3305	1,666	1,584	54	95.1	3.3	12.65	6.40	12.03	8.00
3306	1,079	548	0	50.7	0.0	10.00	3.84	5.07	8.00
3307	1,037	762	180	73.5	17.4	9.83	5.88	7.23	7.73
3401	2,381	2,063	98	86.7	4.1	12.00	8.94	10.40	6.71
3402	35,059	27,435	7,232	78.3	20.6	7.86	6.39	6.15	7.10
3403	31,533	21,154	9,991	67.1	31.7	10.00	7.00	6.71	6.50
3404	11,809	7,386	4,431	62.5	37.5	10.00	7.32	6.25	6.71
3405	3,106	1,344	1,740	43.3	56.0	10.00	3.70	4.33	6.50
3406	218	8	210	3.5	96.3	10.00	0.74	0.35	8.00
3407	75	39	35	52.9	46.9	7.67	4.54	4.06	6.50
3501	103	54	49	52.7	47.3	10.00	8.23	5.27	20.00
3502	151	131	19	87.2	12.8	10.00	9.41	8.72	8.00
3503	209	0	209	0.0	100.0	12.00	5.94	0.00	8.00
3504	44	44	0	100.0	0.0	5.50	4.08	5.50	8.00
3505	561	189	371	33.8	66.1	16.00	10.08	5.41	240.27
3506	102,584	21,222	78,536	20.7	76.6	10.00	2.71	2.07	6.50
3507	163	134	29	81.9	18.0	6.00	5.38	4.91	6.50
3601	0	0	0	..	..	9.00	9.00	..	6.50
3602	0	0	0	..	..	9.00	0.00	..	6.50
3603	2,936	2,646	291	90.1	9.9	9.00	8.53	8.11	6.50
3604	5	5	0	100.0	0.0	6.00	4.80	6.00	8.00
3605	0	0	0	..	..	6.00	0.16	..	8.00
3606	82	82	0	100.0	0.0	9.25	2.14	9.25	8.00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3701	563	464	9	82.3	1.7	10.20	5.85	8.39	7.08
3702	1,236	299	937	24.1	75.8	0.43	0.18	0.10	7.61
3703	7	7	0	100.0	0.0	23.67	18.30	23.67	8.00
3704	4	4	0	95.3	0.0	12.25	3.65	11.67	6.29
3705	4,307	593	0	13.8	0.0	8.00	2.71	1.10	1.00
3706	67	67	0	100.0	0.0	2.25	2.23	2.25	0.00
3707	39,023	13,739	24,602	35.2	63.0	10.50	2.59	3.70	6.50
3801	2,088	1,310	777	62.7	37.2	6.50	4.07	4.08	6.50
3802	1,455	389	938	26.7	64.4	8.25	5.25	2.21	6.50
3803	0	0	0	..	..	6.50	6.50	..	5.00
3804	25	23	2	90.5	9.5	6.50	5.59	5.88	6.50
3805	6	6	0	100.0	0.0	6.50	4.28	6.50	6.50
3806	572	423	147	73.9	25.6	7.67	2.66	5.67	6.50
3807	0	0	0	..	..	6.50	1.80	..	6.50
3808	4,558	4,356	187	95.6	4.1	8.08	6.15	7.73	6.50
3809	45,701	28,918	16,700	63.3	36.5	7.38	4.04	4.67	6.88
3810	41,801	25,908	15,595	62.0	37.3	6.50	2.93	4.03	6.50
3811	5,012	4,219	764	84.2	15.2	6.50	5.45	5.47	5.90
3812	46,981	13,792	33,007	29.4	70.3	6.25	1.69	1.83	6.50
3813	17	2	15	9.5	90.0	8.25	2.87	0.78	6.50
3814	18,511	7,596	8,663	41.0	46.8	10.00	4.02	4.10	6.50
3815	52,577	34,245	7,936	65.1	15.1	6.50	4.49	4.23	6.50
3816	2,962	2,603	326	87.9	11.0	6.50	5.66	5.71	6.50
3817	9,399	4,483	4,456	47.7	47.4	6.50	3.93	3.10	6.50
3818	65,083	27,331	31,772	42.0	48.8	0.00	0.00	0.00	0.00
3819	1,346	1,341	0	99.6	0.0	6.50	5.38	6.48	6.50
3820	478	474	5	99.0	0.9	10.00	8.68	9.90	6.50
3821	1,247	1,246	0	99.9	0.0	3.00	2.48	3.00	6.50
3822	2,336	2,138	36	91.5	1.5	4.50	3.57	4.12	5.04
3823	2,906	1,077	1,796	37.1	61.8	15.40	11.79	5.71	6.64
3824	324,774	142,864	166,829	44.0	51.4	7.21	3.24	3.17	6.53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국	
3825	0	0	0	..	..	6.89	6.89	..	6.21
3901	1,242,159	748,823	419,499	60.3	33.8	7.37	3.60	4.44	6.50
3902	1,268,901	478,851	698,765	37.7	55.1	8.60	2.79	3.25	6.50
3903	1,403,702	193,605	1,172,672	13.8	83.5	9.28	1.11	1.28	6.50
3904	131,921	22,654	108,054	17.2	81.9	9.10	1.16	1.56	6.50
3905	16,116	7,633	8,482	47.4	52.6	10.57	7.06	5.01	6.71
3906	126,079	36,321	36,971	28.8	29.3	6.50	0.86	1.87	7.50
3907	654,786	170,747	450,240	26.1	68.8	8.15	1.93	2.13	6.50
3908	116,616	2,616	17,688	2.2	15.2	8.43	0.23	0.19	6.50
3909	61,121	19,594	39,204	32.1	64.1	6.92	2.93	2.22	6.50
3910	56,905	33,383	22,159	58.7	38.9	6.50	3.46	3.81	6.50
3911	30,500	10,278	20,193	33.7	66.2	6.50	2.91	2.19	7.14
3912	2,279	1,698	581	74.5	25.5	6.50	5.75	4.84	6.17
3913	328	52	189	15.8	57.8	8.25	5.74	1.30	6.64
3914	215	164	50	76.4	23.4	6.50	4.93	4.97	6.50
3915	80,972	35,794	697	44.2	0.9	8.60	4.35	3.80	6.50
3916	4,460	339	4,019	7.6	90.1	10.00	3.41	0.76	6.50
3917	51,100	20,717	26,540	40.5	51.9	9.16	3.87	3.71	6.79
3918	36,617	30,186	1,299	82.4	3.5	10.00	8.18	8.24	6.50
3919	168,933	48,796	115,780	28.9	68.5	6.50	1.75	1.88	6.50
3920	422,966	86,691	317,659	20.5	75.1	7.61	2.22	1.56	6.50
3921	192,076	40,843	148,376	21.3	77.2	7.82	2.04	1.66	6.50
3922	387	219	157	56.4	40.5	10.00	7.13	5.64	8.00
3923	156,200	20,315	126,147	13.0	80.8	9.50	1.68	1.24	7.79
3924	14,199	13,809	315	97.3	2.2	10.00	6.28	9.73	8.00
3925	1,666	412	828	24.7	49.7	10.00	3.05	2.47	8.00
3926	387,532	64,036	319,173	16.5	82.4	10.00	2.39	1.65	8.00
4002	398,386	141,194	241,117	35.4	60.5	7.09	2.92	2.51	7.38
4003	4,240	1,047	3,193	24.7	75.3	8.00	3.90	1.97	8.00
4004	597	597	0	100.0	0.0	8.00	4.85	8.00	3.00
4005	39,409	20,305	19,002	51.5	48.2	8.00	5.36	4.12	8.00

## (6) 석유화학산업(계속)

HS4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 (2006, 천 달러)			대한민국 수입구성		중국관세율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
	전체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단순 평균	실질관세율		
							대세계	대한민국	
4006	500	90	396	18.0	79.1	10.00	5.52	1.80	8.00
4007	1,019	59	960	5.8	94.2	14.00	8.53	0.81	8.00
4008	31,193	7,391	23,723	23.7	76.1	8.00	2.56	1.90	8.00
4009	50,148	39,782	8,917	79.3	17.8	10.25	7.24	8.13	8.00
4010	17,251	14,657	2,233	85.0	12.9	9.09	5.76	7.72	8.00
4011	11,623	11,100	418	95.5	3.6	17.38	13.32	16.60	7.84
4012	1,103	13	563	1.1	51.0	19.67	6.07	0.23	6.94
4013	1	0	1	0.0	95.2	12.00	0.86	0.00	7.57
4014	105	82	17	77.7	16.6	8.75	6.33	6.80	8.00
4015	2,257	1,329	867	58.9	38.4	12.25	5.08	7.21	8.00
4016	136,413	54,858	75,170	40.2	55.1	13.60	6.48	5.47	7.43
4017	4,237	582	3,430	13.7	81.0	11.50	3.05	1.58	8.00



## Executive Summary

###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a Korea-China FTA

PyoungSeob Yang, ChangKyu Lee, Hyunjung Park, Jina Yeo,  
SeungBin Pae, HyunJun Cho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adopt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The findings of these research generally show that the effects of an FTA on Korea's GDP will be much greater than China's, and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will expa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Given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effect of exports to China will be lower than expec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China trad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Korea's exports to China are designated for re-exporting abroad after processing in china rather than meeting China's domestic demand. In fact, exports for processing in China make up 56% of Korea's total exports to China. Thus, parts and intermediary goods account for nearly 80% of Korea's exports to China, and consumer products on which China imposes relatively high levels of tariff rates account for only 3.3%. Second, buyers who purchase the products Korea

exports to China are distinct.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which include Korean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account for 76% of them. Third, it is estimated that 48.9% of Korea's exporting to China is accomplished by Korean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These characteristics of trade influence the relationship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lso China's real tariff rates on Korea.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division of labor and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general trade largely presents a pattern of inter industry trade, processing trade belongs mainly to intra industry trade. The result also confirms that Korea reveals a high value in the intra industry trade index with China in the parts and capital products industries, because most of Korea's enterprises in China invest in the intermediary products industry and these enterprises purchase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from Korea. Second, comparing the average real tariff rates of Korea and China, Korea's tariff rates are much higher than China's because of a Korea-China trade structure based on processing trade. China's nominal tariff rate on industrial products is greater than that of Korea, but Korea is higher than China in terms of imports with trade partner weighted average tariff rates. China's actual import tariffs on Korea especially maintain relatively low levels because Korea's exports for processing in China make up 56% of its total exports to China. When a trade partner exports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for processing trade to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frees or returns import tariffs on them onc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re export processed goods abroad. Third,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a survey and interview of Korea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even if Korea accomplishes tariff elimination through a Korea China FTA, the increased effect of exports to Korea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will not be so large. Most Korea invested

enterprises have expanded into China for processing and are already benefiting from free tariffs and are localizing operations in China in tune with the dynamic expansion of the Chinese economy. Thus they are increasing local procurement of parts and components rather than importing them from Korea.

Therefore, Korea should devise the most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to maximize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on industrial products after establishing an FTA. First, Korea needs tariff reduction strategies considering China's nominal, weighted average, and actual tariff rates on Korea overall. Specifically, Korea should conduct tariff reduction on commodities for which China's real import tariff on Korea is relatively high, rather than on those for which the nominal tariff rate is high, to maximize the price effects of an FTA. Korea's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high levels of China's actual tariff rates are cars, clothing, household appliance, and others. Second, Korea's tariff reduction strategies should focus on commodities for which China's global weighted average tariff rates are high, confronting intense competition in Chinese import market. If Korea achieves tariff elimination, it is expected that both price effects and substitution effects will be high in industries such as autos, auto parts, apparel and other textile products, household appliances, rubber, plastic products, steel products, machinery, nonmetallic minerals and so on. Third, Korea should first negotiate tariff reduction on the export of items targeting the Chinese domestic market. Most of these items are dealt with by general trade in the division of trade method in China and belong to consumer products due to product features.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try to alleviate or eliminate a variety of non tariff barriers to trade such as import control, as well as tariff elimination, to maximize the increased effects of export to China after establishing a Korea-China FTA.

Given the export inducement effect of Korea's investment in China, it is also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Korea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through a Korea-China FTA. First, a survey of Korea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shows that the aspect related to a business environment that is expected to most improve through an FTA is the mutual conduction of tariff elimination. Next, desires were revealed, in order, to b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removal of non tariff barriers, openness of service market, alleviation of the control over the labor movement, and improvement of irrational commercial practices in China. Second, Korean companies in China claimed to first solve problems related to customs through an FTA negotiation. Secondly, they indicated problems of tariff treatment such as arbitrary imposition of import tariffs. Korea needs to establish diverse negotiating groups that can discuss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non tariff barriers and difficulties with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as well as a negotiating group on commodity tr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imports from China will increase sharply after establishing an FTA. The increase of imports from China could possibly be comprehensively carried out by Korea invested enterprises, Chinese local companie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fact, Korea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answered that they would pla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xports to Korea as a portion of total sales, and anticipated that exports to Korea of Chinese products, especially final goods such as autos, apparel, and other goods, rather than intermediary goods, would increase rapidly after an FTA. Therefore, Korea should devise strategies that can expand sensitive commoditie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addi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strengthen its FTA commitment on the rules of origin to prevent imports from passing through China.

#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07. 12

##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해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시아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근·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중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울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울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Jeffrey Robertson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중혁 · 고희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 이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론리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o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o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o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Working Papers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근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종 · 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楊平燮)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중국경제전공) 박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現, E-mail: psya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대한민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7)  
『산업패널을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결정요인분석』, (2007) 외

## 이장규(李章揆)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제학 박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現, E-mail: cklee57@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경제연보』 (공저, 20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 (공저, 2003) 외

## 박현정(朴炫貞)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現, E-mail: hjpark@kiep.go.kr )

### 저서 및 논문

『한중 FTA 지식재산권분야의 이슈 점검』 (공저, 2007)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공저, 2006) 외

## 여지나(呂智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지역연구 경제학 석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現, E-mail: jina7@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 방송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공저, 2006) 외

## 배승빈(裴升彬)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국지역학 석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現, E-mail: sbpae@kiep.go.kr )

### 저서 및 논문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공저, 2007) 외

**조현준(趙顯俊)**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법학박사(중국지역학)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現, E-mail: hjzion@konkuk.ac.kr)

**저서 및 논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공저, 2004)

『한국 섬유의류업계의 중국내 투자·경영실태 실증분석』, (2005) 외

연구보고서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2007년 12월 26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발행처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273-9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a Korea-China FTA

PyoungSeob Yang, ChangKyu Lee, Hyunjung Park, Jina Yeo,  
SeungBin Pae, HyunJun Cho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 교역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하였으며,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진출기업들의 매입·매출전략과 현지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중 FTA 추진시 상품분야의 협상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세인하전략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739  
ISBN 978-89-322-1273-9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